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역적 맥락에서 본 제주농촌지역의
성매매 지형에 관한 연구

- 지역개발 과정에서 ‘피리’마을 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여 성 학 과

강 경 숙

2009

지역적 맥락에서 본 제주농촌지역의
성매매 지형에 관한 연구

- 지역개발 과정에서 '피리'마을 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강경숙

강 경 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조 순 경 _____

심사위원 김 은 실 _____

김 현 미 _____

조 순 경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기존 논의 검토	6
C.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10
1. 연구방법과 연구과정	10
2. 연구참여자의 특성	16
II. 피리마을의 배경	20
A. 역사적, 사회경제적 배경	20
B. 친족체계와 마을공동체- ‘권당’문화	23
C. 가족제도 - 이혼과 축첩제(築妾制)	24
D. 마을의 권력구조	27
III. 피리마을의 성산업 지형의 특성	30
A. 티켓영업 중심의 성산업과 상권 구조	30
1. 성매매 지형 내에서 티켓영업의 구조	30
2. 다방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티켓영업과 지역의 상권 구조	33
B. 다방종사여성의 고용 및 영업 방식의 차이	38
1. 차 배달 없는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와 다방여성의 프리랜서화	38
2. ‘족은각시’로 호명되는 다방종사여성과 장기적, 독점적 단골장사	41
3. 중장년층의 다방종사여성과 다방종사여성의 주민화	44
C. 티켓영업을 성매매와 구분하는 지역 주민의 인식	49
IV.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여가/놀이문화의 성별분리체계	54
A. 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과 티켓영업다방의 번성	54
B. 지역 남성의 연령에 따른 티켓구매 양상의 차이	59
1. 노년층 남성의 일상적인 ‘티켓구매행위’	59
2. 젊은 남성을 위한 이성과의 만남의 장으로써 티켓영업	63

C.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성별분리체계	67
1. 지역개발과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	67
2. 성별분리체계와 지역 남성의 여가/놀이문화로써 티켓구매	70
3. 다방종사여성의 여성성을 구매하는 지역 남성	74
V.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의 변화	78
A.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에 대한 욕망	78
B. 지역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관계	83
1.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티켓영업: 업주의 토박이화	83
2. 지역여성의 다방종사여성과 구별 짓는 방식	85
3. 지역남성의 로비 창구로써 티켓영업과 다방종사여성의 조직화	88
C. 소비를 통한 상부상조와 지역공동체의 변화	92
VI. 결론	99
참 고 문 헌	103
ABSTRACT	110

표 목차

<표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2> ‘피리마을’의 가구 구성 비율로 본 산업 분류(2008)	22
<표3> 전국, 제주도 이혼율 비교(1946-2005)	26
<표4> 전국 및 제주도의 여성 통장과 리장 성별 분포(2005)	29
<표5> 성매매의 유형	31
<표6> 제주농촌지역의 성매매가능 업소	35
<표7> 서귀포시 읍면별 산업별 종사자수(2006)	36
<표8> 피리마을 식품, 공중위생업소 현황(2007)	37
<표9> 제주지역 산업별, 성별 구성비의 변화	57
<표10> 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1961-2001)	68
<표11> 제주, 전국의 성별 간 경제활동참여율 비교(1960~2007)	69
<표12> 제주지역 요정 업소 별 면적 및 수용인원(1970~80년대)	80

논문 개요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티켓영업다방 중심의 성산업이 ‘특화 산업화’된 공간인 피리마을에 주목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제주 농촌 지역의 성매매 지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가 마을 공간을 어떻게 성산업 중심으로 구성하는지 지역 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성매매에 관한 연구들은 티켓영업다방이 성판매여성의 성산업에 유입되는 초기 경로이자 십대여성의 고용 현상에 주목하였지만 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들은 대부분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여성이며 성판매여성의 경험이 아닌 지역주민의 이혼, 가출, 자살 등의 가족해체 현상으로 티켓영업다방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의 사회적 조건과 지역 구성원의 욕구가 상호작용하면서 성판매여성이 처한 환경과 성매매 지형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매매의 문제가 성판매여성 과 성구매남성 그리고 업주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지역 주민과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관한 연구들은 성판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 민족, 성산업의 착취 구조, 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각각 이루어졌지만 지역 주민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논의들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방식과 이와 관련된 문화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주지역의 지역개발과정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의 맥락에서 지역 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면접과 마을의 현지조사 과정을 통하여 참여관찰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리마을의 성산업 지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피리마을은 티켓영업을 통한 성산업 중심의 상권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성이 있으며 성산업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지가(地價)를 형성하고 있다. 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의 고용, 영업 방식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데, 차 배달 없는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와 다방종사여성의 프리랜서 영업을 눈에 띠며 지역 남성은 다방종사여성을 ‘족은각시(작은부인)’로

호명하며 장기적, 독점적 관계에서 단골장사를 선호한다. 다방종사여성들은 대다수가 중장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피리마을을 삶의 ‘중착지’로 여기는 여성들로, 피리마을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인식은 다방종사여성들이 피리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지역 주민들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다방종사여성의 일을 일로써 인식하고 다방종사여성에 대한 비하나 낙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방종사여성은 지역 주민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이성애적 연애 관계와 경계가 모호하고 지역 남성의 ‘외도(外道)’와 가족해체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티켓영업은 성매매로 이어지거나 가족해체의 원인이 될 경우 문제적인 반면 티켓영업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경향이 강하다.

둘째, 제주지역의 1차, 3차 산업 중심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제주지역의 성별분리체계의 맥락에서 지역 남성의 티켓구매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피리마을은 지역개발을 통하여 상업적 농업의 전환과 관광단지로 개발되었고 이러한 개발 방향은 지역의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역 개발과 함께 남성의 경제력이 향상된 반면 여성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하여 여성들은 가족노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지역의 경제 구조와 맞물려 지역 남성의 소비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피리마을은 축산업과 감귤 등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인해 농산물 출하시기에 고액의 현금이 유통되는 지역의 경제 구조 하에서 지역 남성의 티켓구매를 통한 유흥소비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노동과 시간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제주지역의 성별분리체계에 따라 남성들의 여가/놀이 문화로써 티켓구매가 가능하였고 지역 남성들은 티켓을 통해 유흥종사여성의 여성성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 성산업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개발의 방향이 현실에서 지역 주민의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다방종사여성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80년대 이후 관광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개발은 성산업을 육성하였고 이러한 지역 개발의 과정은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주 지역의 관광개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에 의해 ‘기생관광’을 시작으로 관광유흥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다. 오늘날 지역경제가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에 포섭되고 지역 발전 담론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서 각 단위의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이 지역 경제의 큰 축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티켓영업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식이 강하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업주들과 다방종사여성들은 주민화되고 티켓영업은 지역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지역 남성들은 자신의 권력 재생산을 위해 티켓을 활용하고 다방종사여성을 조직하고 있다. 지역 여성들은 결혼을 통하여 다방종사여성 과 자신을 구별짓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에서 다방종사여성 과 공존이 가능해진다. 특히,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특성 상 지역 주민 간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소비가 미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는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와 소비를 통한 경제공동체로 변화하면서 성인 남성을 위한 유흥 공간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지역과 성판매여성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성매매 관련 연구들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농어촌 지역과 지역 주민의 경험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성매매 연구와 지역 연구의 접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성매매 지형과 각 사회적 조건 간의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티켓영업다방 중심의 성산업이 ‘특화 산업화’된 공간인 피리마을¹⁾에 주목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제주 농촌 지역의 성매매 지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티켓영업이 유입,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피리마을이 어떻게 티켓영업다방²⁾ 중심의 성산업에 수용적인 공간으로 구성되는지 지역 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판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티켓영업다방에 관한 연구들은 지방 소도시나 신흥 도시 지역과 십대 여성 종업원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여성이며 성매매의 문제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나 빈곤의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의 이혼, 가출, 자살 등의 가족해체 현상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지역 구성원의 욕구와 사회적 조건이 상호작용하면서 성판매여성이 처한 조건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매매 지형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기존 연구들의 경향은 특정 지역과 대상의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지역, 업소 형태 등의 차이에 따라 성매매 지형이 어떻게 다른 조건을 구성하는지 살펴보기 어렵다. 이

1) 마을 명칭은 가명으로 한다. 본 연구는 마을을 알아 볼 수 있는 모든 명칭을 가명으로 하거나 무기명으로 처리한다. 피리마을은 10개의 마을로 구성된 읍면단위의 지역으로 해안에 위치한 ‘피리마을’이 티켓영업다방, 단란주점 등 성산업 중심의 상권 및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리마을 중에서도 ‘피리마을’과 타 마을과 구분이 필요할 때는 ‘피리마을’과 인근 마을이라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것이다. 티켓다방 등 유흥업소가 ‘피리마을’에 있지만 이에 대한 수요자는 인근마을 전역에 걸쳐 있고 동일한 행정단위로써 각 마을 간의 공동생활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인근마을을 연구대상지로 포함하고 있다. 마을의 배경에 대해서는 II장에서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2) 기존의 논의나 언론에서는 ‘티켓다방’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주희(2006)는 티켓화된 다방의 영업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위해 ‘티켓영업다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티켓다방’과 ‘티켓영업다방’을 분리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방이 티켓영업의 주요 매개체이기는 하지만 다방이라는 공간을 넘어 일상적으로 확장하여 ‘티켓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티켓영업다방’ 그리고 ‘티켓영업’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성매매에 대한 연구들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방식과 이와 관련된 문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피리마을의 지역적 맥락에서 성매매 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티켓영업다방은 1980년대 이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지방 소도시나 신흥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³⁾ 대부분의 티켓영업다방에 관한 기존 논의들(성윤애, 2000; 여성부, 2002;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김주희, 2006 등)은 이러한 도시 주변의 ‘신종’ 티켓영업다방에 주목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도 티켓영업다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티켓영업다방을 구분 짓는 이유는 티켓영업다방이 도입되었던 사회적 조건에 따라 티켓영업방식이나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지역과 달리 수요가 없고 성적으로 ‘보수적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존의 다방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가 도입(홍성철, 2007)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다방이라는 공간은 지역 남성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곳으로 티켓영업방식은 지역 남성의 여가, 놀이, 관계 등 지역 주민의 삶과 상호 작용하면서 해당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은 이미 지난 1990년대에 방송 보도⁵⁾에 의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은 부부, 가족 구성원 간의 잦은 다툼과 불화의 원인으로 주목 받았는데 지역 남성이 다방에 재산을 탕진하고 다방종사여성과 같이 살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여 지역 여성의 가출, 자

3) 청소년을 고용한 신종 티켓영업다방이 시흥, 안산, 광양, 평택 등 신흥도시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서울지검 발표자료, 2002)되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티켓영업다방은 변두리 도시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4) 2002년 여성부(125-126)는 전국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네 지역으로 분할하여 지역에 따른 업소별 성매매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무도유흥주점 업소(59.9%), 다방(54.9%), 마사지 업소(50.0%)의 순으로 성매매 알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농어촌으로 이 세 업종 모두 성매매 알선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성매매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다방과 무도유흥주점이 성매매를 매개하는 주요 창구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5년 뒤인 2007년에 실시한 전국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는 중소도시 다방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22.5%, 농어촌 지역 다방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42.6%로 추정하고 있어 2002년과 비교하여 티켓영업다방의 성매매 알선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중소도시 인구 10만 명 당 티켓영업다방의 수는 12.0개 농어촌 지역 인구 10만 명 당 51.7개로 나타나고(여성부, 2007:79-80)있어 농어촌 지역의 성매매 지형에서 티켓영업다방이 차지하는 위치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MBC, 1994, “여전한 티켓다방의 사람장사”, 『PD수첩』; MBC, 1996, “‘티켓’마을”, 『시사매거진 2580』, ; 『제민일보』, 2000년 2월 22일, “96~97년 단속 회오리 ○○○ 지금은...○○지역 다방 수 25개 티켓 영업 여전” 외.

살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특히 지역 남성들은 다방종사여성을 ‘족은각시(작은부인)’로 호명하며 독점적, 장기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어 지역 여성들에게 위협적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을 통한 산업화 과정⁶⁾에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이 지역 주민의 성문화, 지역공동체 문화 등의 삶의 맥락과 교차하면서 피리마을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가시화되었다고 본다.

피리마을은 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함께 1980년대에 티켓영업다방이 도입된 이래로 80년-9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고 지금도 티켓영업다방 등 성산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다. 1990년대 당시 전국 방송 보도는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의 문제를 최초로 가시화하고 공론화하는 계기⁷⁾가 되었지만 마을에서 티켓영업다방을 퇴출시키지는 못했다. 방송 이후 면사무소와 파출소, 다방 업주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였으나 티켓영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마을 이미지를 벗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고⁸⁾ 이후에도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십 여 년이 흐른 지금도 피리마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제주 농촌 지역의 남성들은 술자리나 모임에서 ‘다방 아가씨’를 동석시키거나 성매매로 이어지는 티켓(시간)구매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고 지역 남성이 ‘다방 아가씨’와 ‘바람’이 나서 부부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⁹⁾ 이는 일반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간의 일시

6)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운동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이상철, 조성윤 외 다수)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국가 권력에 의한 지역개발과정에 주목하여 국가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물성적(gender-blind)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강성의(1995)와 권귀숙(1998)의 논문은 각각 경제활동과 이혼 등 여성의 경험에서 제주지역개발을 다룬 독보적인 논문이며 제주여성회와 제주대학교 YWCA,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등은 지역개발과정에서 ‘매춘관광’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펼쳤다.

7) 『제민일보』. 2000. “‘티켓다방’업주들의 자정결의”; 『제민일보』. 2000. “○○, 티켓 근절 자정결의 확산”,

8) 『제민일보』. 2000. “‘티켓영업’ 자정 결의 시늉뿐”, 96년~97년 티켓다방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 한 때 ○○○군 위생계 직원들이 아예 상주할 정도로 대대적인 단속의 회오리가 있었으나 2000년 당시 티켓영업이 여전히 여전하였다. (『제민일보』, 2000년 2월 22일, “96~97년 단속 회오리 ○○○ 지금은...○○지역 다방 수 25개 티켓 영업 여전”)

9) 『제민일보』. 2004. “티켓다방 또다시‘고개’ 농촌지역 중심 성업...경찰 잇따라 검거”, 현재 제주도의 농어촌 지역에는 피리마을 이외에 3개 지역을 거점으로 티켓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방식은 지역 남성 구매자와의 독점적, 장기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다방종사여성은 지역 남성의 ‘작은 부인’¹⁰⁾, ‘애인’, ‘이성 친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 남성과 다방종사여성 그리고 지역 여성의 관계는 전통적인 제주지역의 성별 분리 체계를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개발을 통한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티켓 영업 등 성산업을 통해 지역 남성의 욕망을 실현 가능하게 하였다.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작(田作)을 중심으로 하는 식량 작물 위주의 자급 농업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소득이 높은 감귤과 특용 작물을 중심의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타 지역의 1차 산업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남성 노동력의 확대와 3차 산업의 여성화라는 산업 간 성별 분업을 가져왔으며 1960년대 이전 자급 농업 하에서 높은 경제력을 보였던 여성 노동 가치의 하락과 남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였다(강성의, 1994: 58-101). 특히 피리마을은 이러한 지역개발의 흐름에 맞춰 경제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곳으로 다른 농촌 지역이 전형적인 농경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점증적으로 변화하였다면 피리마을은 1970년대 이후부터 축산업과 상업적 농업을 중심으로 시장 중심의 산업 구조로 빠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개발 과정을 통해 지역 남성의 경제력이 상승하였고 지역 남성의 경제력은 티켓영업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관광 산업 중심의 지역 개발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생관광’이 이루어졌고 제주지역은 대외적으로 관광지로 이미지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생활공간이 관광지화되고 관광 산업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경험하면서 관광 산업에 대한 허용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은 수입 농산물 개방과 농산물의 가격 하락 등 불안정한 농업 현실로 인해 농업 이외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 산업 등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피리마을은 티

10) ‘작은부인’은 과거 제주지역의 축첩제도에서 첩이 되었던 여성을 일컫는 말로 ‘족은각시’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제주지역은 역사적으로 축첩제(蓄妾制)가 있어 “남성이라면 거지라도 작은 부인을 두었다.”라는 언설이 전해질 정도로 ‘제주남성’에게 작은부인을 두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축첩제도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지만 주된 원인으로 성비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아들의 회귀라는 요인이 지적될 수 있는데 ‘제주여성’들은 사후 제사봉양에 대한 의식이 강하여 설사 남편은 없더라도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였다(김혜숙, 1999a:348).

켓 영업이 ‘특화 산업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 체제 하에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은 더욱 높아져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피리마을 주민들은 티켓영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지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티켓영업다방 등 성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 중심의 성산업 구조는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티켓 영업이 수용될 수 있었던 조건, 즉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 남성에게 허용적인 성문화,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지역공동체의 구조 등 사회문화적 측면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 등 성산업의 발달 과정을 지역 주민의 경험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때 지역 주민은 가족, 지역공동체의 관계망 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아내, 남편, 이웃, 친척, 노동자 등 역할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위치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성매매에 대한 연구들이 제주피리마을의 성산업 구조와 티켓영업과 관련된 문화 현상 등을 충분히 설명해 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피리마을 사례를 통해서 차이를 구성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다방의 문제가 성구매자나 성판매자의 경험이 아닌 지역 여성의 이혼, 자살, 가출 등 지역 주민의 경험을 통해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성매매의 문제가 지역 주민과의 관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이에 본 연구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가 어떻게 마을 공간을 성산업 중심으로 구성하는지 지역 주민의 경험과 유흥종사여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분석할 것이다.

11) 티켓영업다방 등 성매매의 문제가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사회적 맥락에는 제주 지역의 지역 개발과정과 제주 주민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티켓영업다방은 지역개발을 통하여 도입, 활성화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지역개발과 발전 욕망에 따른 관심과 지지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주는 특정 사안뿐만 아니라 도 단위 전체에서 전 도민이 관심을 갖고 전체의 개발 방향에 관한 반성과 논의가 활발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며, 때문에 국가의 개발 전략 변경과 개발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 변화의 추세를 엿보는 데 매우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다(이상철, 1995b:73).

B. 기존 논의 검토

기존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언론과 학계에서 이루어진 논의(여성부, 2002;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김주희, 2006 등)는 성매매 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거론되거나 한시적인 농어촌사회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티켓다방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지역의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티켓다방은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80년대부터 생겨난 현상으로 1990년대 말까지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의 티켓다방으로 인한 피해는 방송과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였다.¹²⁾ 그러나 이 당시에 티켓다방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과는 달리 티켓다방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성운애, 2000; 여성부, 2002;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김주희, 2006 등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2000년대 들어 활성화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티켓영업다방은 십대여성이 성적 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는 초기 경로로써 가시화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앞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부를 필두로 전국적 차원에서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되었다.¹³⁾ 그러나 이와 같은 실태 조사는 십대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적으로 ‘티켓영업다방 종업원의 10대 청소년화’(이기석, 2003) 현상을 일반화하고 이에 따라 티켓영업다방의 문제를 십대여성의 유입이 가능한 도시 주변의 신흥도시 등 특정 지역에 국한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사회에서 티켓영업다방은 1970~1980년대에 지방 소

12) 문화방송 PD수첩, 1994, <티켓다방, 물장산가 사람장산가>, <티켓다방 사람장사의 악순환의 고리> 등 많은 방송에서 티켓다방은 다방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조명되었다. 그리고 “중소 도시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티켓다방이 성업하는 것은 성인들이 사회, 가정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며 여가문화 부재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김영수)”와 같은 언설이 강조되었다. 『서울신문』, 2001, “수도권 티켓다방 급속 확산”.

1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 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된 성매수자에 대한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의 진술서 414건을 분석한 결과, 티켓다방이 38%, 단란주점 30%, 보도방 14% 등으로 조사되었고(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보도에 따르면 33.33%가 티켓다방, 유흥과 단란주점이 36.7%(경찰청, 2002)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이 티켓다방과 단란주점에 주로 고용되어 있다고 조사보고 되었다.

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전후하여 신항 도시 지역으로 티켓영업다방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고 이 곳에 십대여성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은 오늘날 성매매 지형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방도시 변두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티켓영업다방에서는 십대여성종업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논의에서 십대여성들이 티켓다방 등 성산업에서 선호되는 이유는, ‘영계’를 선호하는 남성 성문화(이효희, 1998; 성윤애, 2000)와, 다방이 대부분 ‘아가씨’들이 기피하는 매우 열악한 곳, ‘아가씨’를 구하지 못해 짤짤 매는 곳(김주희, 2006)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티켓다방은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아가씨’를 구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¹⁴⁾ 그러나 피리마을 또한 농촌지역이라는 특성 상 ‘아가씨’들이 기피하고 ‘아가씨’를 구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이를 대체하는 여성은 십대 여성이 아닌, 30대 후반부터 60대에 이르는 ‘나이 많은’ 여성들이다. 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은 지역 남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가족, 지역커뮤니티 등 일상생활과 관계의 경계 안팎을 넘나들며 존재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다방종사여성을 지역의 다방 커뮤니티 내에서 역사가 삭제된 익명의 여성, 젊은 ‘다방아가씨’(김주희, 2006:76)로 본 것과는 다른 지점이다. 이는 각 지역의 티켓영업다방이 동일하게 ‘아가씨’ 구하기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마다 지역구성원의 욕구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성관매여성인 처한 조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지형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오늘날 티켓영업다방이 십대여성이라는 특정 대상에 주목하여 가시화됨으로써 십대여성종업원과는 ‘상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연구나 정책 제정,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의 전국 조사에서 제주피리마을을 비롯하여 농어촌 지역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조사는 형식에 그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티켓영업에 대한 법 집행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여성부(2002: 297)의 성매매 전국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의 다방 밀집 지역

14)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방 소도시 다방여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방여성에게 도시 다방에 비해 읍내 다방의 선호도는 더욱 낮다. 일반적으로 읍내 다방의 손님은 평균 연령이 높으며, 농부나 어부와 같은 직업을 가졌고, 시내 다방에 비해 읍, 면내 다방은 ‘시간’(티켓)영업의 비율이 높아 이를 꺼리는 여성들은 가고 싶지 않은 곳(김수미, 2006)이다.

은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2개 시이며, 각 시나 군에 포함된 동 단위 밀집 지역은 모두 6개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티켓영업다방이 활성화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의 농어촌 지역이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 천지동의 경우 인구 4,477명에 사업체 수 23개로 조사되었는데, 피리마을은 천지동과 비슷한 인구 규모에 다방 수가 약 30개로 양적으로만 봤을 때도 천지동 보다 많은 수이지만 이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타 지역과는 달리 제주지역의 경우 읍면단위 지역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리마을의 <다방 → 식당 → 술집 혹은 노래방 → 성매매> 으로 구성되는 성매매 구조는 드러나기 어렵다. 이는 많은 실태 조사들이 일률적으로 양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인구 대비 성산업 규모가 드러나지 않고 질적인 연구가 턱없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의 탈성매매 지원 단체에서 실시한 제주지역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의 2007년도에 실시한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에 대하여 “성업 중에 있는 다방마다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어 현재 1-2명의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5년 말 조사인 경우 1개 다방 업소에 종사자가 20명 가까이 되었던 다방이 10곳 가까이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방종사여성의 고용 방식과 영업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 방식과는 달리 프리랜서 영업, 개인 단골 영업으로 변화되어 다방에 출근하는 여성보다 집이나 개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원미혜, 1996; 김선화, 2006; 김주희, 2006 외)들은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성판매여성의 잦은 이동성에 의한 익명성을 큰 특징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낙인, 빈곤 등으로 인해 성판매여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주변화 되며 사회적 낙인과 빈곤의 문제는 성판매여성들이 성판매를 그만 두기 어려운 기제로 작동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으로는 피리마을 다방종사여성들이 피리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정착지로 삼기도 한다는 점, 대부분의 경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며 다른

일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의 수입을 올린다는 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다방종사여성에 대한 비하나 혐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상 등을 설명할 틀을 제시하지 못한다.

피리마을 주민들은 여러 이유로 티켓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방종사여성의 일을 노동으로써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성판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빈곤의 상황에서 피리마을 다방종사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성노동자를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HO, Josephine, 2000; 고정갑희, 2005; 박이은실, 2007 외)은 성판매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 보다 섹슈얼리티 위계화와 성판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더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피리마을의 사례의 경우 성노동자를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을 기점으로 그동안 여성운동 진영이 주장해 온 ‘성매매피해자’라는 단일한 ‘여성’과 보편적 ‘경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성매매에 관한 연구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한된 연구 주제와 연구 대상에서 오는 한계가 그것이다. 원미혜(2005)는 1990년대 중후반 청소년성매매의 이슈화와 제도화를 전후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2000년대 들어서야 성구매자 연구, 노인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 성매매 정책 홍보, 집결지 소방 대책 등 새로운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성판매자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원인에 대하여(학위논문 제외) 연구의 대부분이 국가 주도의 ‘연구용역’이나 토론회 등의 ‘행사’에 의해 수행되어 온 2000년대 상황과 맞물린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판매여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성매매를 단일한 경험으로 취급해 왔다고 보고 이는 연구의 대부분이 현직 성판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탈성판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논의들이 성판매여성의 경험과 도시지역의 산업형 성매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험적,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성매매의 익명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여성인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에 접근하기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판매경험이 있는 ‘탈성판매여성’이라는 한정된 대상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다.

한국사회 전반적인 성산업 구조와 성판매여성의 경험의 공통성을 구조화해 내고 이를 이론화하는 것은 여성주의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판매여성들이 가진 문제를 둘러싼 조건에 대한 분석이며 그 문제의 상황과 맥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산업은 구조적 동형성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형태, 지역, 관행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원미혜, 2005). 같은 맥락에서 막달레나의 집(2002, 2004 외)과 엄상미(2007)는 성매매지형의 차이와 다양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엄상미는 국내 학계에서 드물게 중장년 성판매여성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성판매여성이라는 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와 같이 지역성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성매매 지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에는 한계적이다. 본 연구는 제주 농촌 지역의 사회적 맥락에서 지역 주민과 다방종사여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티켓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지위와 일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C.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1. 연구방법과 연구과정

연구자가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티켓영업다방으로 인해 지역 여성들이 이혼, 가출, 자살하는 현상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¹⁵⁾을 통해서였다. 특히, 피리마을은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전국 방송에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제주지역에서도 티켓영업다방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전국 방송 이후 피리마을 주민들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은 피리마을의 역사적 토대 위에 다방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유입되었고 오늘날 지역 주민의 삶과 상호작용하면서 피리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이와 같은 문화 현상은 외부자인

15) 연구자는 제주 지역의 여성단체와 인맥을 갖고 있어 여성단체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시각에서 독특하거나 문제적인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지역 주민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연구자가 만난 지역 여성들 중 대부분이 결혼 초기에는 “무슨 이런 마을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런 동네에 살아지나?”라고 생각했으나 10년, 20년 살다보니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보다”하고 넘어간다고 하였다. 지역 여성들은 결혼 초기에는 외부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내부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내부 문화에 적응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을 밝혀내는 것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경험에서 삶을 맥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관계에 주목하고 티켓 영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 관찰과 지역 주민과의 면접을 통한 현지 조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본 연구는 티켓영업다방의 다방종사여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티켓다방은 ‘제주성매매피해지원센터’의 아웃리치서비스에 동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 차례 방문하였다. 아웃리치 시, 연구자는 ‘불턱’의 상담원과 같이 피리마을의 티켓다방을 돌며 소식지를 전달하고 다방에 출근한 다방종사여성들과 함께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다방종사여성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냉담하여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이 들었다. 당시 ‘불턱’과 진행한 아웃리치 결과에 의하면 피리마을의 티켓다방은 약 27개이었고 오전 11시 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다방종사여성들이 한, 두 명 있을까 말까였으며 다방종사여성들이 정보를 주는 것을 꺼려 몇 명이 근무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방종사여성들은 대체적으로 40대 이상의 여성이었고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근무하는 다방도 있었지만 한, 두 군데로 소수이었다. 업소 내 분위기, 다방종사여성의 나이 및 규모, 아웃리치팀을 대하는 태도 등을 참고하여 마지막 두 번은 특정 다방 두, 세 군데를 정하여 각 다방마다 업주나 다방종사여성을 상대로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혼자서 다방을 찾아가 다방업주와 인터뷰를 시도하거나 손님으로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관찰하기도 하였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의 고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월급제/능력제 등 월급을 받으며 다방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방식과 간판비/소속비를 내면서 다방에 소속되어 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간접 고용 방

식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다방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출퇴근하지 않고 단골 남성과 직접 연락망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은 단골 남성을 통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방에 출근하는 여성들과 인터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해서 연구자는 제주지역의 탈성매매지원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지만 단체에서도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아웃리치 서비스와 실태조사의 초기 단계이고 다방종사여성과의 라포 형성 단계였기 때문에 이도 여의치 않았다. 이는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이 가시화된지 십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실태에 대해서는 비가시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피리마을은 실제로 제주지역에서 티켓 영업이 가장 번성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성매매종사자들의 지위나 고용환경 등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제주지역 탈성매매 지원단체 활동가의 증언에 따르면 2004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제주지역의 성매매 실태 조사 과정에서 피리마을의 티켓다방 종사자들의 협조가 가장 저조하였다고 한다. 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들에게 다른 지역에 비해 고수익과 자율적인 근무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방아가씨’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이 이점으로 작용하면서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접근은 자신과는 ‘상관 없는’, ‘반감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몇 차례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거나 혹은 연구참여자를 통해 다방종사여성을 소개받기도 하였고 피리마을에서 탈성매매한 여성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면서 다방종사여성의 경험을 단편적이거나 나눌 수 있었다. 이처럼 다방종사여성에 대한 접근이 한계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이 마을주민에게 일상문화화된 특성상 마을주민들이 다방종사여성과의 관계에서 혹은 목격한 경험을 통해서 티켓영업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초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리마을 주민을 몇 명 소개 받아 소문의 실체에 대하여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성매매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등 성매매 당사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티켓영업이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례인 경우 지역주민은

주요 정보자의 위치에 있으며 피리마을과 같이 다방종사여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티켓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증언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먹거리 관련 가게를 운영하는 한 마을여성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은 가게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르키며 다방종사여성과 다방을 이용하는 남성을 가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 어떤 지역유지가 가게를 지나가자 “저 사람은 이 마을의 ○○인데 저 사람도 다방여자를 세컨드(작은 부인)로 뒀다”고 알려주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지역유지라는 사람이 가게 안에 들어왔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를 나누었다. 다른 경우는 술집을 운영하는 마을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자신의 가게에 종종 다방종사여성과 남성손님이 찾아왔고 다방종사여성이 남성손님과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다방종사여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피리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개인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다방종사여성과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여성들은 사우나나 미용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다방종사여성과 만나고 이들은 티켓영업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어느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 하듯이 하였기 때문에 마을여성들도 티켓영업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리마을의 생활공간과 유흥 공간이 공존하는 마을 공간의 구조적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다방종사여성과 사우나, 미용실 등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경험까지 공유할 수 있었고 식당, 소주방 등에서 ‘티켓구매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원인을 ‘좁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이 때 ‘좁은지역’은 물리적·관계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좁은지역’의 특성은 피리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익명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느 집이 티켓다방으로 인해 이혼 등 가족해체를 경험하였는지 알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가 피리마을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례들이 외부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고 특히 이혼, 가출, 자살 등 개인적이고 가족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험을 이야기 해줄 당사자를 찾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일이었다. 그래서 피리마을주민들을 주변으로부터 소개받는 방식과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을 직접 찾아나서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리마을은 이미 90년대 중후반에 전국방송보도로 인해 낙인찍힌 경험이 있고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역주민들에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리마을에서 ‘티켓’이라고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이었다.¹⁶⁾ 다시 말해, 방송 보도와 같은 맥락에서 외부인이 피리마을과 ‘티켓다방’을 연결시키는 일은 마을을 옥보이는 일인 것이다.

연구참여자: 그니까 이쪽에는 그런 뭇(성매매)도 몰랐었고, 방송이 참 무서운 거예요. 방송이. 여기 완전히 ○○(피리마을)이 썬(화제) 되었잖아요.

연구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죠?

연구참여자: 싫죠. 자기 마을 옥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례9, 남, 44세>

이로 인한 연구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다. 특히, 남성과 고령자의 경우 연구자에 대한 반발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마을 노인 회관에서는 ‘어디 가서 티켓다방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라’며 쫓겨나야 했고 한 40대 남성은 ‘예전에 큰 문제화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연구자가 초기에 ‘농촌지역 남성의 성, 놀이문화’라는 주제로 의뢰했을 때는 승낙했었으나 연구물음이 티켓다방으로 좁혀지자 후에 거절의사를 내비친 사례이었다. 50대 기혼 여성인 사례2의 경우도 연구자의 후속 인터뷰 요청에 ‘남편이 이런(티켓영업다방) 얘기 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초기 접촉에서 ‘농촌지역의 남성의 성, 놀이, 여가문화’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남성의 성, 놀이, 여가문화에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티켓다방에

16) 방송보도로 인하여 ‘티켓마을’(96년 시사매거진 2580은 피리마을에 대해 보도하면서 “‘티켓’마을”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고 이 보도 프로그램은 피리마을을 제목 그대로 ‘티켓마을’로 낙인찍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이라는 낙인화를 경험한 피리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였고 업주, 관공서를 중심으로 티켓영업다방의 자정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티켓영업다방은 그대로 둔 채 관광지, 상권이 발달한 곳 등 다른 이미지로 이를 커버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대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티켓다방문화가 제주농촌지역 남성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피리마을의 현지조사는 총 4차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제주시 지역에 기거하면서 피리마을을 왕래하는 방식을 떠다가 2008년 10월에는 피리마을에 거주하면서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첫 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차는 2008년 1월 24일부터 2월 25일, 3차는 7월 17일부터 8월 12일, 4차 10월 13일부터 24일 까지(약 2주간)진행되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타 농촌지역과 티켓영업다방을 비교하기 위해서 피리마을과 유사한 조건의 한 곳을 정하여 하루 동안 다방방문, 주민인터뷰, 동네 관찰 등을 실시하였다.

비교 지역으로 정한 농촌마을은 피리마을의 경제 변동에 따라 다방종사여성이 이동하는, 대타 지역이다. 다시 말해 피리마을의 감귤 등 농산물의 가격 시세가 좋지 않을 때는 그 대안으로 S마을로 다방종사여성이 많이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S마을은 지리적으로 피리마을과 가까운 편이고 마을남성의 티켓구매행위가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방종사여성에게 이점이 있다. 이 지역도 규모는 작지만 티켓영업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 마을 기혼남성이 다방종사여성과 사는 것은 남 보기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일이라면 피리마을 남성들은 이에 대한 금기가 적고 결혼 이후에도 ‘그냥’ 피리마을에 산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접한 S마을의 사례는 60대의 남성으로 연구자는 이 남성의 며느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 60대 남성은 부인과 사별한 이후 다방종사여성과 결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다. 이전의 동네에서는 ‘남 부끄러워’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사례자의 며느리와 아들은 아버지의 재혼 상대자가 다방종사여성이었기 때문에 놀랐고 수치스러웠으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사 가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반면, 피리마을의 경우 일반남성에 대해서도 티켓영업이 허용적이지만 특히 사별한 남성의 경우에는 다방종사여성과의 결혼이나 티켓구매행위에 대해서 허용적인 차이가 있다.

제주농어촌 지역에는 피리마을과 S마을 이외에도 두 지역을 거점으로 티켓영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남성과 다방종사여성의 관계로 인해 고

통 받는 마을여성의 사례는 어느 지역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피리마을주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이에 대하여 매우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리마을의 독특성을 찾을 수 있다.

피리마을에서의 마지막 2주간은 ‘마을주민으로 살아가기’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자는 대부분 피리마을 상권 중심가를 ‘어슬렁거리며’ 사람들과 상권 구조를 관찰하곤 하였다. 그리고 손님으로 다방에 들어가서 차 마시기, 저녁에 술집 가기, 비오는 날 상가 관찰하기 등을 행하였다. 오늘날 다방은 성인 남성 손님을 위한 장소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인 연구자가 손님으로 다방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시선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자리를 뜨기 전에 다 마신 커피 잔을 치워 가 버려 간접적으로 나가기를 요구받기도 하였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는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드나들었고 커피를 마시거나 다방종사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방종사여성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티켓영업이 남성의 호출에 의해 다방 이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 상, 다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업방식은 티켓영업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방 이외에 티켓영업이 이루어지는 소주방, 호프집, 단란주점 등의 업소 중 소주방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관찰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회적인 관찰에 그쳐 많은 정보를 알아내지는 못한 것이 한계로 남는다.

2. 연구참여자의 특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티켓영업다방 등 성매매 관련 연구들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티켓영업다방과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지역주민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초기에는 티켓영업다방으로 인해 이혼, 자살, 가출한 경험이 있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여겼으나 연구과정에서 밝혔듯이 가족사와 연결된 경험을 이야기 해 줄 참여자를 구하기에는 외부자인 연구자에게 매우 한계적이었다. 그리고 연구 물음을 마을여성의 이혼, 자살, 가출 등의 현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티켓영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경험으로 확장되면서 연구참여자의 요건도 넓어졌다. 따라서 기혼이면서 피리마을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확장하였다. 단, <사례7>의 경우는 피리마을의 단란주점과 식당에서 1년 가

카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탈성매매여성'이다.

연구참여자는 대부분 알음알음 방식으로 소개 받거나 마을홈페이지에 기재된 지역단체의 단체장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시도하였다.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피리마을의 티켓다방문화가 가족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티켓다방으로 인한 낙인의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 정서 상, 연구참여자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알음알음 방식에도 한계를 느껴 직접 마을로 뛰어들어 마을주민들과 부딪힐 필요성을 느꼈고 노인회관이나 보건소, 철물점, 다방, 파출소 등에 불시적으로 들어가 마을주민들과 '티켓다방' 혹은 '마을남성의 놀이문화, 성문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병행하였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들과 나눈 경험들이 이 연구에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피리마을과 인근마을의 주민으로 행정구역상의 구분을 넘어 실질적으로 피리마을의 생활권에 포함되어 생활하는 주민들이다. 피리마을을 포함하여 10여개의 마을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웃한 두개 행정구역의 약 10여개의 마을을 포함하여 총 20여개의 마을에서 수요가 이루어질 정도로 피리마을의 상권의 규모는 크다. 그리하여 <사례10>의 경우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나 피리마을과 지리적으로 이웃해 있고 피리마을을 실제 생활권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에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례10>은 실제 거주지와 피리마을 간의 성매매 지형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 사례였다.

연구참여자 중 여성의 경우 대부분 피리마을의 인근 지역에서 출생하여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로 피리마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사례4>는 피리마을 출생자로 남편 또한 피리마을 출생자이다. 여성의 경우 거주마을에 따라, 남편이나 주위 경험에 따라 티켓다방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티켓다방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지에 사는 여성들은 남편의 경험과 상관없이 티켓영업방식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인근마을에 사는 여성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티켓다방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남성들은 티켓다방의 구조와 역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나 문제적이라고 느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반면 여성들은 티켓다방의 구조는 잘 모르지만 "불만이 많다"고 토로하여 성별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연구참여자 모두가 기혼자이고 40대 이상의 연령이

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피리마을이 장년층 이상의 기혼자 중심의 마을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였고 <사례7>의 경우 아웃리치 작업에 함께 참여하며 추가 인터뷰가 가능하였다. 인터뷰는 보통 연구참여자의 집이나 사무실, 가게, 교회 혹은 감귤 재배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면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보통 다른 연구들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등의 장소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하며 이루어지는 반면 다방이나 식당 이외에 커피숍이 없는 피리마을에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장소 선정이 고민되기도 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표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거주 마을	직업	출신지	배우자 출신지	결혼 년수	비고
1	여	43	기혼	피리마을	자영업	인근마을	피리마을	17	
2	여	51	기혼	피리마을	자영업	인근마을	피리마을	20	
3	여	49	기혼	피리마을	자영업	인근마을	이웃마을	16	
4	여	46	기혼	피리마을	학원운영	피리마을	피리마을	15	
5	여	51	기혼	인근마을	농업	인근마을	인근마을	16	
6	여	42	기혼	인근마을	농업	이웃마을	인근마을	14	사례 11과 부부관계
7	여	39	미혼	제주시	탈성매매 자활근로	부산	-	-	피리마을단 란주점근무
8	남	39	기혼	피리마을	공무원	피리마을	인근마을	10	가족이 단란주점 운영
9	남	44	기혼	인근마을	농업	인근마을	이웃마을	10	
10	남	53	기혼	이웃마을	농업	이웃마을	이웃마을	25	
11	남	43	기혼	인근마을	농업	인근마을	인근마을	14	
12	남	40	기혼	피리마을	단체활동	피리마을	인근마을	8	
13	남	57	기혼	피리마을	공무원	피리마을	인근마을	35	

* <인근마을>은 피리마을을 중심으로 둘러싸여있는 주변마을로 피리마을과 동일한 행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웃마을>은 지리적으로 피리마을과 가깝고 실질적으로 피리마을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다.

II. 피리마을의 배경

A. 역사적, 사회경제적 배경

제주피리마을은 해안마을과 산간마을을 골고루 갖춘 농어촌 마을이다. 피리마을은 10개의 마을이 모여 이루어진 읍면단위의 마을로써 현재 총 인구는 약 10,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10개의 마을 중 해안 지대에 위치한 ‘피리마을’에 티켓영업다방, 단란주점 등 성산업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은 제주목(濟州牧)이라하고 서쪽은 대정현(大靜縣), 동쪽은 정의현(旌義縣)이라 하여 1416년부터 1914년까지 약 오백 년 동안 세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다(오성찬, 1987:9). 그 중에서도 피리마을의 산간지역은 역사적으로 조선 초기부터 약 5세기 동안 도읍지의 역할을 하였다. 원래 도읍지는 해안에 위치한 이웃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안에 위치해 있어 왜적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고 그 이유로 피리마을의 산간지역으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1915년 도제(島制)가 실시되면서 약 500년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고 1934년 면사무소가 해안마을인 ‘피리마을’로 옮겨지면서 ‘피리마을’이 인근 지역의 중심지가 된다. 그리고 일제시대인 1914년에 도로가 뚫리고 1917년에 오일장과 상점들이 들어서 상권이 형성되는 한편 인근 해역에서는 어장이 형성되어 이로 인한 수익이 높았다. 인근 해역은 조선시대부터 포구였는데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전복 채취선의 근거지가 되고 일본을 왕래하는 여객선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취락이 형성되었고 현재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횃집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오성찬, 1987:24).

피리마을은 조선시대의 관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관청이 있던 산간마을에서 1900년대 초부터 서당교육이 시작되었고 몇 년 후에 보통학교가 생겨났다. 1930년대 면사무소가 ‘피리마을’로 옮겨지면서 학교 또한 ‘피리마을’로 이전하게 되었고 제주지역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로써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시대 도읍지의 소재지로써 피리마을은 계급 구분이 없었던 제주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양반과 상민의 계급 구분과 양반 중심의 기생문화가 존재하였고 일제시대에는 일본 상인들이 ‘피리마을’에 드나들면서 해안지역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생촌’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은 오늘날 지역의 남성 놀이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리마을)이라는 특수한 지역정서가 따로 있습니다. 옛날부터 향락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어서, ○○이 관청 소재지지 않습니까? □□(해안에 위치한 거리)라고 해가지고, 일본상인들이 드나들던 데가 지금 ○○에 □□라는, P호텔 있는 데 거기가 어촌과 같은 항구 부락이었는데, 현청 옆에 부산 동래같이, 동래장 같은 기생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옛날부터 ○○가 했었어요. 거기 머 술도가니도 있었지. ◇◇(이웃마을)에는 소주 공장이 없을 때 ○○에는 옛날부터 소주 공장이 있고 한량들이 원래부터 많았어요. 60년대에 와보니까 63년도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억하기서 부터가 보니까 중국집도 ◇◇에 없어도 ○○엔 있고 했거든. 그 정도로 먹거리, 향락문화가. ○○에 보면 유명한 게 많아요. D마을(인근마을)보면 머 돼지순대국 유명하고 하여튼 먹거리 유명하고 다방문화도 우리 어릴 때부터 ○○는 다방이 있었던 걸로...<사례10, 남, 53세>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피리마을은 이웃한 마을을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피리마을은 산간지역과 해안지역에 고루 마을이 분포되어 있어 광활한 산간마을에는 우시장이 발달하였고 해안마을에는 일제시대부터 어장과 포구가 형성되어 있어 시장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았다. 시장의 발달은 피리마을이 오랫동안 먹거리와 향락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고 축산업과 함께 감귤을 비롯한 상업적 농업이 들어설 수 있는 자연환경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다른 읍면지역보다 산업사회로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이어져 피리마을의 산업구조는 인근마을의 1차 산업과 ‘피리마을’의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2> ‘피리마을’의 가구 구성 비율로 본 산업 분류(2008) (단위: 가구)

계(가구)	농가	어가	기타
1,380	470	124	786

자료: 피리마을(면사무소) 내부자료

기타: 호텔, 리조트 등 관광업과 식당, 미용실, 유흥업소 등 자영업 종사 가구

피리마을은 10개의 마을 중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역이다. 반면 피리마을의 중심가인 ‘피리마을’은 <표2>와 같이 농가와 어가를 합하더라도 기타 가구 수에 못 미치고 있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골고루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가구의 다수는 자영업 종사자로 대부분 호텔, 식당 등 관광 서비스업과 다방, 단란주점, 식당 등 티켓 영업과 관련된 업종이다.¹⁷⁾ 1차 산업 분야로는 감귤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해수욕장, 관광단지 등 관광산업과 티켓영업다방, 단란주점, 식당, 노래방 등 성산업을 통한 3차 산업이 발달하였다. 1차 산업분야는 감귤을 중심으로 발작물인 콩, 참깨, 고구마, 유채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일반 작물 재배 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감귤 재배 면적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업은 제2종항인 ○○항에 선박 30여척이 정박 어로작업을 하고 있으나 점차 어획량의 감소로 어업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촌계는 계원 3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중 90%정도가 해녀 작업을 하고 있으나 점차로 해녀 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¹⁸⁾ 상권이 위치한 ‘피리마을’은 피리마을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살고 있고 실제 상주 인구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농어촌 마을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인구율을 보이고 있다.¹⁹⁾

17) 피리마을사무소 직원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임.

18) 피리마을 홈페이지

19) 제주도의 마을은 가구 수가 육지의 다른 마을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1968년도의 제주도 통계에 의하면 자연부락 수는 545개 마을, 가구 수는 총 75,886가구이다. 따라서 하나의 마을(자연부락)에 평균 139가구가 되는 셈이다. 행정 단위의 크기를 보더라도 1984년 10월 현재 가구 수로 보면 100~299가구로 이루어진 행정리가 전체의 48.8%가 되고 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25.7%이며 99가구 이하의 마을은 16%정도에 불과하다. 육지의 경우는 도별로 볼 때 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전체의 0.04%에서부터 많아야 9% 정도에 그친다. 이에 비해 99가구 이하의 마을은 42.6%에서부터 91.9%에까지 걸쳐 있다. 1986년 현재로 보면 제주도에는 행정구역상 30개 동, 161개 리 557개의 자연부락이 있다(제주도, 1993:1257-1258), (고관법, 2005:37 재인용).

B. 친족체계와 마을공동체- ‘켄당’문화

제주도의 친족체계는 육지부의 부계 혈연 중심의 친족 체계와는 달리 혼인으로 이어진 친척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친족 체계를 ‘켄당’이라고 한다. ‘켄당’은 부계 또는 모계 친족 집단이 없는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한 친족 범주인 친속(kindred)라고 할 수 있다(김혜숙, 1999b:16). 켄당은 한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의 망이며 켄당 구성원은 단지 한 개인을 중심으로 친족원에 대한 공동의 의무, 역할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 인간관계는 혈통과 혼인양자를 통해 형성된다(김창민, 1992:97). 그리고 켄당은 부계와 인척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바로 켄당이기 때문에 한 개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켄당이 될 수 있다. 켄당의 수가 많은 사람은 부계친과 모변친을 중심으로 켄당의 범위를 제한하여 일을 했으나 켄당의 수가 적은 사람은 켄당의 범위를 넓혀 혈통이나 혼인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까지 복친으로 삼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켄당은 혈통집단과는 달리 성원권이 분명하지 않으며 특정의 사회적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역할의 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창민, 1992:111).

이처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친족관계는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집안의 제사나 결혼 등 경조사 때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제주도에서는 한 집안의 제사 때 부계 혈연관계의 친척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 간 딸과 사위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참석하며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즉, 혈연과 인척 관계를 떠나 직장 동료나 이웃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 켄당인 셈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친족체계는 역사적으로 제주도의 혼인 양상과 노동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같은 마을이나 이웃마을 사람끼리 혼인하는 통혼권(通婚圈)이 존재하였다.²⁰⁾ 이와 같은 마을내혼의 혼인망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친정과 기혼 자매가 근거리에 거주하여 친정 켄당과의 결속을 높일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부계 친족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범위의 친족구성원들이 인접할 수 있었다(김혜숙, 1999b:16). 그리고 화산섬이라

20) 제주 마을은 잡성마을이며 육지지역의 마을보다는 인구나 가구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혹은 이웃마을끼리의 혼인이 가능하였다.

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생산성이 낮은 척박한 토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 동원이 중요했고 노동력 동원과 교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연(地聯)이 강조되었다.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친족에 있어서도 성원권이 열려 있는 범주로서의 친족이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이다(김창민, 1992:103). 이와 같이 제주지역의 친족체계는 주민들의 자연과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실리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켄당이라는 친족체계를 통해서, 제주도의 마을은 지연공동체의 특성(김항원, 1990:135)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마을의 지연공동체의 특성으로 인해 마을공동체의 상호부조로써 계(係)와 접(接)이 발달하였고 이러한 결사체들은 부계혈통집단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조직으로 기능하였다(김창민, 1992:105). 다시 말해, 제주도의 친족체계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부계혈연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로 확장된 개념인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타인을 켄당과 사둔(자기의 비속이나 본인 세대에서 혼인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방계친과 혼인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은 ‘사둔’이라고 표현)으로 범주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사람은 모두 켄당 아니면 사둔이다’라는 표현이나 ‘알고 보면 모두 켄당’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이 표현을 마을 내에서 적용시켜 보면 모든 마을 구성원이 켄당이며 켄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둔관계는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김창민, 1992:100).

오늘날 마을내혼의 감소와 외부인구의 유입 등으로 기존의 공동체가 많이 와해되기는 하였지만 지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켄당이라는 친족체계는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전통적인 친족체계와 마을공동체 문화가 잔재해 있는데 피리마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피리마을의 경우 타 농촌지역에 비해 빠른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외부인구가 많이 유입되었고 기존의 마을공동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지만 기존의 마을내혼의 통혼권이 확장되어 이웃마을 내의 혼인을 선호하거나 켄당의 친족체계와 지연공동체의 성향이 강하다.

C. 가족제도 - 이혼과 축첩제(樂妾制)

피리마을의 경우 조선시대에 약 500년간 도읍지로 지냈던 역사 속에서 양반문화가 존재하였고 기생문화와 축첩제도가 결합하여 일부다처제 형태의 가

족체계가 존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4.3사건 당시 중산간 마을 남성들이 많이 희생되면서 성비불균형이 나타났고²¹⁾ 이로 인해 축첩이 널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가족은 장남분가와 균분상속의 전통, 부계혈연집단의 결속약화, 조상제사의 분할 등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남아선호의식이 강하며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제사를 중시하여 아들을 얻기 위한 축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행해졌다(이창기, 1999: 김혜숙, 1999a). 이는 제주도의 가족이 비부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선호사상과 축첩제도 등 가부장적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말해 준다.

제주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마을내혼이 이루어짐으로써 친, 인척관계가 동시에 중시되는 친족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경우 육지와 달리 평소에도 친정의 출입이 자유로웠고 경우에 따라 친정에 장기간 거주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 후에는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권귀숙, 1998b:58). 이는 전통적으로 제주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산업화 이전부터 타 지역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이혼율을 보여줌으로써 주목을 받아왔다.

아래 <표3>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은 1945년부터 200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46년부터 1965년까지는 전국 평균 2-3배에 이르는 높은 이혼율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점점 전국 평균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산업화 시기와 맞물려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상과는 다르게 제주지역은 산업화 이전부터 이혼이 잦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제주지역의 높은 이혼율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이 많이 거론되어 왔으나 이뿐만 아니라 노동의 자율성이나 이동성을 갖는 노동의 성격²²⁾이 이혼

21) 한 예로 산간마을인 D마을의 경우 4.3사건 당시 마을 주민 157명이 한꺼번에 학살되어 2004년 현재 495명 인구 중 60대 이상 주민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다이내믹제주, 2004:11). D마을은 4.3사건 때 소개령(疏開令)으로 피신해 온 산간마을 사람들에게 거처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18~40세에 이르는 마을 남성들이 거의 희생당하였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가장 노릇을 하며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이 '가장'을 잃고 홀로 자식을 키웠던 여성들의 고통을 달래주는 의미에서 마을 앞 바다에는 아기 구덕(요람)을 흔들고 있는 여성을 형상화한 '4.3모자상'이 세워져있다(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2008:355-356).

율과 연관이 높으며, 마을 내혼으로 인한 특수한 친족체계/가족구조도 이혼을 용이하게 만들고, 이혼에 대한 낙인이 덜한 문화(한정운, 1986; 권귀숙, 1998)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3> 제주도와 전국 이혼율 비교(1946-2005) (단위: %)

구분 년도	조이혼율*		유배우 이혼율**	
	제주	전국	제주	전국
1946	-	0.20	13.9	6.0
1955	-	0.27	7.8	2.5
1965	0.68	0.28	9.0	4.8
1976	1.29	0.74	9.4	7.39
1986	2.21	1.88	12.8	10.78
1996	2.50	1.79	22.0	19.1
2005	3.0	2.6	-	-

자료: 1946-1965년은 『민사사건 통계표』, 1976-1996년은 『사법연감』, 권귀숙(2003) p.54 재구성하여 재인용, 2005년은 통계청(2006), p27에서 재구성.

* 조이혼율: 인구 1천 명 당 이혼건수

** 유배우 이혼율: 배우자가 있는 인구 1천 명 당 이혼건수

이처럼 전통적으로 부계혈연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친족체계와 자율적인 여성 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여성들은 설사 남편은 없더라도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가부장제적 관념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제주도의 첩 제도는 사후 제사봉양에 대한 강한 의식에서 비롯하여 성비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아들에 대한 희구가 첩 제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혜숙, 1999a:348). 이 때 첩이 된 여성은 ‘죽은 각시(작은각시)’, ‘죽은어멍(작은어머니)’으로 불리웠다. 여성의 경우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보다는 정신적 의지의 상대를 찾아서라거나 또는 아들이 없는

22) 제주주민들은 1900년대 초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 공장에서 임노동을 경험하였고 제주해녀들은 먼 지역까지 자주 드나들었다. 이러한 제주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육지’의 전형적인 농어촌 여성들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제주 여성들은 집안의 농사일을 보조하는 ‘육지’의 여성과는 달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현금 수익을 가져오는 경제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성격의 경제활동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이동에 따른 가족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부모, 친척들의 통제력을 낮추며 여성들의 이혼 후 생활에의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혼율의 증가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권귀숙, 2003:56).

자는 득남을 위한 방편으로 재혼 또는 첩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첩이 되는 일보다도 더 불안하게 여겨지기도 하였다(김혜숙, 1999a:346).

D. 마을의 권력구조

제주지역은 예로부터 제주 주민 사이에 계급 구분이 없는 사회였다. 제주도는 삼무(三無)로 유명한데 즉, 거지, 도둑, 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거지와 도둑이 없었던 것은 그 만큼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없었으며 제주 주민들 사이에 계급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반면 피리마을은 조선시대에 도읍지로서 관청 소재였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드물게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존재하였던 곳이다. 이는 조선시대 약 5세기 동안 지속되다가 1914년 도제(島制)가 실시되고 1946년 군제(郡制) 실시에 따라 제주도가 지금의 근대적 행정구역으로 재편되면서 약 5세기 동안 도읍지였던 피리마을은 평범한 농촌마을로 변모해 간다(오성찬, 1987:18). 그리고 일제시대부터 마을의 중심지가 해안마을인 지금의 ‘피리마을’로 옮겨지면서 관청 소재지였던 ○○마을의 자취는 사라져갔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도읍지였던 궁지가 남아 있어 ‘피리마을’에 갈 때면 지금도 “촌에 간다”는 표현을 쓴다(오성찬, 1987:23). 즉, 양반의 자손이라는 궁지가 10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근대적 행정구역으로 재편되기 이전의 제주마을은 산간지역과 해안지역으로 구분되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였다. 즉, 마을이 산간에 위치했는가 해안에 위치했는가에 따라 사회적 인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과거에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해안마을 사람들이 더 많은 수탈을 당한 반면에 중산간 마을의 목장 수입이 해안마을의 어업과 농업으로 얻는 수입보다 많았다. 이러한 경제적 수입의 차이는 중산간 마을이 해안마을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원인이 되었다(고관범, 2005:20). 그러나 일제시대에 이르러 해녀가 수확한 해산물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고 현금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안마을의 가계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중산간보다 낮았던 해안마을의 사회적 위세가 높아졌다(진관훈, 2004). 오늘날 해안지역에 위치한 ‘피리마을’이 인근마을의 중심지로서 모든 행정기관, 교육기관이나 상업적 시

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마을 간의 권력이 ‘피리마을’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력의 변화는 일제시대 이후 근대화를 통한 자본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잡성(雜鋌)마을의 성격이 강한 제주의 마을은 문중조직이 형성, 강화될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서 육지마을과는 달리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족보다는 마을공동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신행철, 1994:103). 때문에 ‘육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성을 가진 부계혈연집단이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남성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²³⁾ 실시 이후 마을 단위의 의례가 더욱 정교해져 남성권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제로써 작동하고 있다. 제주도의 각 마을에서 진행되는 축제, 체육대회 등을 통해 남성들의 가부장적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사라졌던 마을의 포제²⁴⁾가 다시 부활하면서 남성들만의 의례로 재탄생하여 의례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사회적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김효선, 2007:69).

특히, 지자체 이후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마을단위의 조직이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피리마을의 경우 타 농어촌 마을에 비해 마을단위의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마을 남성 권력의 지지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잦은 모임과 단체 조직은 오늘날 피리마을의 티켓영업 등 성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제이다.

(티켓영업 활성화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지. 그게 또 그 모임도 언제 활성화되었냐 하면 직선제 선거하고 관련이 있지. 지자체 부활시기하고 맞물려서 친목이라든지 각종 단체 무슨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여행계 식으로 그런 모임들을 꾸준하게 만들고 그것이 상시적인 선거 조직으로 있다니까. 거기에 상납하는 아가씨들 돈줄은 다른 데 있더라도 그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지.<사례11, 남, 43세>

23)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단되었다가 이후 30년간 지방자치 없는 중앙집권시대를 보냈고, 1991년에 이르러 구, 시, 군의회 선거(3.26)와 시, 도의회 의원 선거(6.20)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부활하였다. 그러나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임명제 단체장체제가 존속하는 상황의 유명무실한 것이었고 이후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된다(DAUM 사전).

24) 제주도의 각 마을에서 남성들이 유교식 제법으로 시행하는 마을제(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면 단위 단체가 47개, 공무원(?)에서 인정해주는 단체가 47개예요. 사단법인이나 그런 거, 그런 게 47개인데, 머 자질구레한 단체는 한 100개, 그 중에 사단법인 같은 단체는 빼고 면장 다음으로 인정해주는 게 연합청년회장. 어딜 가도 면장 옆에 행사 어디가도 면장 옆에 앉죠. 그렇게 연합회장 하면은 파워가 좀 세죠. 다른 읍면은 틀려요. 여기가 ○○○시잖아요. ○○○시, 다시 또 읍면동회장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연합청년회가 있으면은 그걸 다시 또 시 연합청년회가 있어요. 또 도 연합청년회가 있어요. 제주도 읍면동시 연합회가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도 연합청년회, 근데 다른 마을은 보니까 우리 마을은 어쨌거나 예전부터 내려온 게 면에서 연합청년회를 인정해주는데 다른 데는 연합청년회장이 저 밑에 가 있더라고, 그게 다 읍면동마다 틀리더라고. <사례9, 남, 44세>

농어촌 지역에서는 면장, 이장, 연합회장 등 마을단체의 단체장이 되는 것이 권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남성의 영역이다. 아래 <표4>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2005년 현재 제주지역의 여성 이장은 전체 172명 중 2명으로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여성 이장 비율인 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가부장적 권력이 클수록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적어짐을 의미한다.

<표4> 전국 및 제주도의 여성 통장과 리장 성별 분포(2005) (단위: 명, %)

	합계			통장			이장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제주도	644	118	18.3	427	116	24.6	172	2	1.0
전국	95,728	37,138	38.8	56,399	31,806	56.4	39,329	5,336	3.0

자료: 행정자치부. 여성공무원 현황(2006. 6. 30. 기준), 정영태(2006:20, 연구자 재인용)
주: 2005. 12월 31일 현재.

피리마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면장 등의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여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곳이다. 이들은 피리마을의 토박이 남성들로 이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토박이남성과 지역유지남성은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주요 '고객'이다.

III. 피리마을의 성산업 지형의 특성

피리마을의 성산업은 보도방 형식의 티켓영업을 매개로 하여 티켓영업다방과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성 고객’이 다방 공간 밖에서 ‘아가씨’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사는 티켓영업의 개념 상, 티켓영업은 다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한정됨이 없이 식당, 노래방, 남성의 근무 장소 등 ‘남성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리마을의 성산업은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의 지역 상권으로 확장된다.

특히 피리마을은 티켓영업을 중심으로 성산업이 특화 산업화되어 있어 성산업 중심의 상권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성이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다방종사여성은 지역 남성에게 ‘족은 각시’로 호명되고 장기적, 독점적 단골장사를 하며 대다수가 중장년층인 다방종사여성은 피리마을의 주민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티켓’을 성매매와 구분 짓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의 티켓영업 등 성산업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A. 티켓영업 중심의 성산업과 상권 구조

1. 성매매 지형 내에서 티켓영업의 구조

티켓영업다방은 다방에서 ‘티켓’ 구매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몇 가지 관련 법령에 의해 그 의미가 해석되고 있다. ‘티켓영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42조 제 1항 별표 13에서도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기석, 2002:4).

일반적으로 티켓영업다방은 산업형성매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의

변두리 도시나 신흥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다른 성매매 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티켓 영업다방은 지역남성의 성구매를 매개하는 주요 창구로써 역할을 한다.

<표5> 성매매의 유형

유형	주요 특성	업소형태	내 용
전업형 (전통형) 성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가 일차적 업종인 경우(주류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성매매가 주된 목적이라면, 이에 해당됨) 특정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가시화 여성은 성매매를 통해서만 생계유지 업주와 종사여성간에 법률적 성격이 모호함. 근로계약의 성립 불가능 	대규모 성매매집결지	서울 용산, 청량리588, 영등포, 미아리텍사스, 부산 완월동, 인천 학익동, 대구 자갈마당 및 용주골 등 기지촌
		소규모 성매매업소	군소규모의 유흥장소로 널리 알려지지 않는 지역들(흔히 '판자집' 또는 '별집', '웬푸집'이라고 알려진 장소들)
겸업형 (산업형) 성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래 업종의 서비스와 더불어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제공·알선 업소의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내 또는 업소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근로계약 성립가능 및 계약된 근로내용은 형식적으론 합법적 최근에는 업소에서 종사여성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보다는 보도방 등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고객의 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형태로 변화 또한 업소가 타 업소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을 접대부로 일시 공급하여 소개료를 받아 챙기는 식(일종의 직업소개처럼)의 영업전략도 등장함. 	식품접객 업소	휴게음식점(다방), 일반음식점(카페, 레스토랑, 인삼찜집), 단란주점, 유흥주점(톱싸롱, 외국인 관광클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공중위생 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 사우나, 증기탕 등의 특수목욕장 업소, 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	안마시술소 및 스포츠맛사지 업소 등에서 안마사 및 보조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최근엔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함.
		풍속영업 관련업소	노래연습장(노래빠), 무도학원 및 무도장, 비디오방, 게임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자료: 여성부(2002:21, 재구성).

티켓영업다방 등 산업형성매매는 3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이 이에 속하는데 음식과 숙박 제공을 주업으로 하면서, 그곳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의해 직접 또는 '보도'라는 일종의 인력 공급책에 의한 접대부 공급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여성부, 2002:22). 아래 <표5>에서 보면, 티켓영업다방은 산업형성매매 중에서도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며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티켓영업이 다방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주요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티켓'이 곧 다방 외부에서 이루어

지는 ‘시간’으로 의미화 되는 컨셉으로 인해 티켓영업의 공간은 ‘남성 손님’이 원하는 장소, 즉 여관, 식당, 노래방 등의 다른 업소로 확장된다.

한국사회에서 티켓영업다방은 성구매남성이 성판매여성에게 화대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 업주에게 티켓을 구입해 성매매 대가로 건네는 방식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다방종사여성이 다방 밖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서 주인이 보게 되는 손실을 만회하는 개념으로 ‘남성 손님’은 다방 카운터에서 티켓을 구입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차를 주문한다. 이어 다방종사여성이 커피 배달 세트를 들고 찾아가면 형식상 커피를 배달하고 이후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다방종사여성이 티켓을 받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티켓다방이 널리 퍼지면서 다방에 직접 들러 티켓을 구입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대신 그 시간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업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홍성철, 2007:286).

이처럼 다방에서는 시간 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 ‘티켓’을 끊고 나가서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티켓다방’은 여기서 연유했다고 할 수 있다. ‘티켓’은 다방종사여성이 다방을 비운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시간 동안 티켓을 끊은 ‘남성 손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변화순 외, 1998). 즉, 티켓영업다방은 ‘남성 손님’과 ‘다방 아가씨’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티켓’은 곧 ‘다방 아가씨’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사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티켓’은 ‘시간’으로 ‘티켓비’는 ‘시간비’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리마울의 경우 초기의 티켓은 3천원, 5천 원짜리 (봉봉)쥬스였는데²⁵⁾ 시간 당 얼마의 액수를 지급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마을남성들은 티켓이라는 시간 당 정해진 액수를 지불하면 원하는 시간 동안 ‘다방아가씨’와 식사를 하든지, 모임에 참석을 하든지, 성매매를 하든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때 성매매 비용은 별도로 추가 계산된다.

맨 처음 티켓다방은 티켓하게 되면은 가서 돈을 직접 받아오지 않고 사실은 냉커피, 차 한 잔에 천 원 할 때, 삼천 원짜리 쥬스, 오천 원짜리 이게 티켓이었거든요? 장부에도 보면 봉봉 열 개 이게 티켓다방이었는데 그 다음에 변한 게 다음부터는 돈으로 미터기 같이 시간 당 얼마로 변했잖아요.

25) 전국적으로 ‘봉봉다방’이 유명했던 시기도 다방이 티켓영업다방으로 변화하면서 부터이다.

<사례10, 남, 53세>

지역남성들은 ‘시간’이 끝난 이후에 직접 다방종사여성에게 티켓비를 지불하며 티켓비는 1-2만원으로 확실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1만원으로 통용되고 있다. 성매매 비용은 유흥종사여성의 나이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티켓비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피리마을의 경제가 좋았을 때는 2-3만원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지역경제의 침체기에는 티켓의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이 일반적으로 ‘단골’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전의 교환이 매 때마다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남성은 ‘외상’을 하기도 하고 다방종사여성에게 가전제품 등 필요한 물품을 사주거나 ‘용돈’ 형식으로 주기도 하며 다방종사여성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2. 다방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티켓영업과 지역의 상권 구조

피리마을 티켓다방의 큰 특징은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인데 비해, 티켓다방을 비롯한 유흥업소와 다방여성의 규모가 크고 이 구조가 마을내부의 남성 수요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현재, 피리마을의 25세 이상 성인남성 인구가 약 3,700명이고 다방여성의 수가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추정되고 있어 성인남성 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다방여성이 피리마을에 상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리마을의 상권은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을 제외하고 다방, 단란주점, 식당 등 티켓영업과 관련된 업소로 구성,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티켓영업은 다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남성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영업을 이루어지는 특성상 티켓영업의 규모는 다방, 식당, 술집, 노래방 등으로 확장된다. <사례2>는 이러한 피리마을 남성들의 티켓구매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그 할아버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사는 게 허무하잖아요. 일만 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다 내보내니까 사는 게

허무하잖아요. 하루는 날씨가 어둡침침하고 흐린 날 밖에 보면 주위에 나무들만 있고 허무하잖아요. '내가 산 게 뭘까' 그런 생각 드는 찰나에 어떤 친구가 전화와가지고 ○○에 가면 좋은 일이 많다고 ○○ 가자고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온 게 1차로 9시나 10시쯤에 다방 가면 소위 직업여성이 몰려와요. 와가지고 앉아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죠. 할아버지 그러다 보면 보통 주머니에 한 30만 원 이상 가지고 내려와요. 그거 갖고 모자라. 단계가 어찌냐면 9시, 10시쯤에 내려오면 다방에서 커피 마시죠. 거기서 한 아이들 다 커피 사줘요. 그러면 한 2~3만원 없어져요. 조금 있으면 얘기가 되어가지고 일하는 아가씨가 "오빠, 나 점심 사줘"하고 꼬시면 개네들은 일반 식당 안가요. 횡집가거나 갈비집도 안가. 횡집 같은 데 가서 거기는 두 세 명만 가도, 5~6만원 쓰잖아요. 그게 점심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주방 가요. 여기는 낮에도 소주방 다 열어요. 유흥음식점 다 열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다방이 그 전에 다방(유흥음식점)이 400개였어요. 다 예요. 여기 그냥 아이들 재미없어요. 유흥음식점이 그런 게 400개. 20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 때는 밀감 값이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밀감 값이 좋아가지고 흥청망청 썼죠. 그러다 보면 소주방 가서 소주 마시면 3~4만원 없어지죠. 그 다음에 노래방 가요. 노래방 가면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하면 3~4만원 없어져요. 그 다음에 아가씨들이 머 하나면 이제 여관으로 가요. 여관가면 그 땐 이미 할아버지 몸이 녹초 되잖아요. 여관가면 아가씨들 손도 못 만져 보지. 그럴 힘도 없지. 아가씨들이 그냥 놔버리는 거라. 그러면 30만원 그냥. 인간관계 되잖아요? 그야말로 한 달 정도 사귀면 머 재수 좋은 아이들은 한 보름만 만나도, 시골 할아버지들은 재미없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며 막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죠.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고 그러면 아까운 게 없어요. 그 나이 때 되면 아까운 게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머 막 다 갖다 줘요. <사례2, 여, 51세>

현재 피리마을의 성산업의 규모는 다방 30여개,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30여개 그리고 식당, 소주방, 노래방, 미용실, 의상실, 사우나 등이 있으며 피리마을에서 유흥종사여성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숙소, 미용실, 의상실, 식당 등의 영향력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제주지역에서 티켓영업다방은 '구제주' 지역과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피리마을을 포함하여 4개 지역을 거점으로 티켓영업다방 등 성매매업소가 활성화되어 있다. 제주지역 전체적으로 티켓영업이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반해 피리마을의 경우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는 <표6>에서와 같이 제주지역의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²⁶⁾ 이는 유흥주점과는 달리 <다방→ 식당→ 술집(소주방) 또는 노래방→ 성매매>로 이어지는 티켓영업방식의 특성 상 다방 수만으로 티켓영업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표6> 제주농촌지역의 성매매가능 업소 (단위: 개소)

지역명	2004년(a)						2007년(b)						증감 (b-a)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다방	단란	유흥	숙박	이용원	합계	다방	단란	유흥	숙박	이용원	합계	
마을 가	14	15	3	2	5	39	14	15	4	5	5	43	4
마을 나	20	40	17	19	14	110	26	35	19	20	14	114	4
마을 다	17	35	12	7	11	82	15	32	13	8	11	79	-3
피리마을	28	23	9	9	-	69	26	22	11	5	5	69	0

자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2007:16-23, 연구자 채구성)

<표6>에 나타난 제주 농촌 지역의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 피리마을의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규모는 약 60개고 주민들이 산정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약 500명에서 6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 방식에 따르면 60개의 업소에 약 10여명의 여성이 고용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 직접 고용되어 있는 여성 수는 훨씬 적는데 다방 종사여성의 고용 방식이 프리랜서나 간접 고용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실태 조사는 다방 공간 안에서 머물지 않고 내 외부로 넘나드는 티켓영업방식의 특성과 다방종사여성의 고용 방식의 변

26) 일반적으로 여성단체의 성매매 실태조사는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를 추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게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피리마을의 주민들이 산정하는 다방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규모 보다는 여성단체의 산정 규모가 훨씬 작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화를 감안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타 농촌 지역과 업소 수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아래 <표7>에서 서귀포시 읍면별 산업별 종사자수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티켓영업다방이 발달한 농촌 지역 중 한 곳인 ‘마을 다’와 비교하여도 피리마을의 종사자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이를 통하여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다방과 식당, 노래방, 술집 등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8> 피리마을의 식품, 공중위생 업소 현황을 보면 티켓영업다방 등 성산업을 포함하여 지역 상권이 ‘피리마을’에 집중되어 있다.

<표7> 서귀포시 읍면별 산업별 종사자수(2006) (단위: 명)

읍면별 산업별	마을 다	마을 라	마을 마	피리마을
계	3,549	3,248	3,092	3,267
농업 및 임업	18	383	368	314
어업	29	189	69	1
제조업	368	368	117	151
건설업	70	110	48	59
도매 및 소매업	890	390	413	517
숙박 및 음식점업	623	391	615	1,010
운수업	220	193	313	74
금융 및 보험업	209	166	215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31	195	148	113
교육서비스업	309	285	264	27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63	207	109	8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5	91	99	29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61	186	215	142

자료: 통계청(2007:7),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 재구성.

<표8> 피리마을 식품, 공중위생업소 현황(2007. 7)

(단위: 개소)

리별 업종별	합계	'피리 마을'	A 마을	B 마을	C 마을	D 마을	E 마을	F 마을	G 마을	H 마을	I 마을
합 계	494	330	14	102	3	16	7	5	0	1	16
일반음식점	244	152	5	64	-	10	2	3	-	-	8
유흥주점	12	12	-	-	-	-	-	-	-	-	-
단란주점	23	23	-	-	-	-	-	-	-	-	-
휴게음식점	35	33	-	2	-	-	-	-	-	-	-
집단급식소	15	6	1	2	1	1	-	2	-	-	2
식품제조 가공업	17		3	6	2	2	3	-	-	-	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5	12	1	1	-	1	-	-	-	-	-
식품소분업	5	4	-	1	-	-	-	-	-	-	-
식품등수입 판매업	4	3	1	-	-	-	-	-	-	-	-
기타식품 판매업	3	3	-	-	-	-	-	-	-	-	-
자동차판매기	39	13	-	25	-	-	-	-	-	-	1
위탁급식 영업	1	-	-	-	-	1	-	-	-	-	-
제과점영업	5	4	-	-	-	-	-	-	-	-	1
건강기능식 품일반판매	5	2	1	-	-	-	1	-	-	-	1
계절음식점	11	10	1	-	-	-	-	-	-	-	-
목욕장업	4	3		-	-	-	-	-	-	1	-
숙박업	14	9	1	1	-	-	1	-	-	-	2
이용업	5	5	-	-	-	-	-	-	-	-	-
미용업	18	17	-	-	-	1	-	-	-	-	-
세탁위생	9	9	-	-	-	-	-	-	-	-	-
병·의원	6	6	-	-	-	-	-	-	-	-	-
약국	4	4	-	-	-	-	-	-	-	-	-

자료: 면 사무소 내부자료.

<표8>을 살펴보면 피리마을의 전체 식품, 공중위생업소 494개소 중 ‘피리마을’에 330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67%의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집중되어 있는 B마을은 유명한 민속관광지로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자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B마을의 경우 관광객 수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피리마을’은 지역주민을 위한 업소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특성화로 인해 피리마을은 제주시 못지않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상가 중심지의 집값은 제주지역에서 가장 변화한 신제주 지역의 집값과 유사할 정도이다.²⁷⁾ 높은 집값과 상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빈 가게가 나오면 바로 새로 입주자가 생긴다고 하니 여전히 높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다방종사여성의 고용 및 영업 방식의 차이

1. 차 배달 없는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와 다방여성의 프리랜서화

성매매방지법 이후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범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형식적인 커피 배달을 통해 티켓영업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면 현재는 아예 커피 배달 자체가 없으며 다방에 출근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어 일반 ‘여염집 여자’와 구별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방종사여성의 고용 방식의 변화는 성매매방지법의 영향도 있지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피리마을은 2002년을 기점으로 몇 년 동안 감골 값의 하락하면서 티켓영업이 잠시 주춤하였다. 경제 불황의 시기에 전통적인 고용 방식이 아닌 ‘간판비’만 내걸거나 프리랜서 등의 유연한 고용 방식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현장에서도 ‘노동의 유연화’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방종사여성의 고용 방식과 피리마을의 경제적 조건의 관련성은 피리마을이 90년대와 달리 2000년대 이르러 더 이상 범적

27) 피리마을의 지가 상승은 1980년대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정에서 외지인의 투자에 의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해수욕장과 민속촌 등의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피리마을’의 상권 중심지의 경우 평당 250만원에서 500만원을 호가하였고 양어장이 형성될 수 있는 지리적, 기후 조건으로 인해 해안가에는 외지인에 의한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축산정책이 시행되어 산간 지대의 목장지는 대부분 외지인들의 소유가 되었다(이혜숙, 1989:62-64).

제재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현실이 뒷받침한다.²⁸⁾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에 대한 불감증이 전 지역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관할 파출소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자가 만난 피리마을 파출소의 한 경찰관은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이 남성 노인층의 소일거리 정도이고 농어촌 지역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상부 조직인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일개 파출소에서 티켓영업을 제지할 문제는 아니라는 방관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찰의 방관적 태도는 해당 파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범망에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을 인정하는 인상마저 준다. 이처럼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외부의 관심에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피리마을의 프리랜서 고용 방식은 불법 행위를 은폐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방의 남성 손님에게 커피는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여자역할’을 수행하는 ‘아가씨’를 만나기 위함이 크다(김주희, 2006:75). 티켓영업다방은 유흥종사여성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남성들에게 여성들을 공급하는 ‘보도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쪽 분(연구자)이 가서 만일에 대학 다닐 때 그 동네에서 명절 때나 누구 와서 맥주 한잔하자 그러면, 자기 아는 데에서 저쪽에 가려고 하면 아니 이쪽에 가자, 여자들은 그런 거 덜 합니다 만은, 남자들은 데리고 갔다 그러면은 아가씨 없는 데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왕이면 아가씨 있는데 데리고 가지, 이왕 같은 돈 내고 먹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가나 마찬가지예요. 아가씨가 있으면은 그나마 장사가 되는 거고 없으면은 장사 안 되는 거고 문 닫는 데는 아가씨 없으니까 문 닫는 거고 실질로 돈은 있어도 아가씨가 없는 데 머, 촌에서 장사는 술장사나 다방장사는 아가씨 장사예요. 아가씨장사, 얼마나 아가씨를 많이 잘 데리고 오느냐 그거예요.

28) 90년대 중반 에서 2000년대 초 까지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에 대한 방송보도는 다음과 같이 자주 이루어졌다. MBC, 1994, “여전한 티켓다방의 사람장사”, 『PD수첩』; MBC, 1996, “‘티켓마을’, 『시사매거진 2580』; 『체민일보』, 2000년 2월 22일, “96~97년 단속 회오리 ○○○ 지금은...○○지역 다방 수 25개 티켓 영업 여전”; 『체민일보』, 2000. “‘티켓영업’ 자정 결의 시 농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피리마을의 티켓영업 대한 언론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 해 보도된 『KBS제주 뉴스』, 2008, 2. 14 “농어촌 불법 노래방 특별 단속”; 2008. 2. 13 “노래방 불법 영업 단속 사각”에서는 피리마을의 노래방 도우미에 초점이 맞춰져서 피리마을의 전반적인 티켓영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례8, 남, 39세>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를 하는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으로 인해 유홍종사여성은 더 이상 다방이라는 공간에 머물 필요성이 없어진다. 공간에 상관없이 마을남성과 연락만 되면 티켓영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리마을에는 소위 ‘전화발이’라 불리는 프리랜서 여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피리마을의 유홍종사여성의 고용방식은 다방에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다방에는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다방이라는 공간의 매개 없이 직접 마을남성과 접촉하는 방식과 아예 다방에 소속되지 않고 단골 남성과 영업을 하는 프리랜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 남성의 노동 환경에 따른 융통성 있는 영업 방식이기도 하다. 즉, 손님이 없는 농번기에는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손님이 많은 농한기에 활동하기도 하고 수시로 비가 오는 날이면 핸드폰으로 쉽게 연락이 되어 영업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죠. 특히 아가씨들이 많아요. 아가씨들 지금, 원룸에 방이 없을 정도잖아요. 육지 다방 아가씨들도, 단란주점 아가씨들도 옛날에는 숙소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자유예요 자유. 자기 스스로 돈은 들어가도 자기 스스로 원룸 빌어서 나가요. 혼자 살아요. 티켓 다방도 옛날에는 다방에 전화해서 누구 보내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다 핸드폰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나 누군데 여기 있는데 여기 와서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래서 점심 먹고 노래방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올 때 쯤 되면은 충산간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죠. <사례2, 여, 51세>

<사례7>은 피리마을의 단란주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피리마을의 다방 혹은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 그는 일할 당시에 간혹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할 경우가 있었는데 같은 다방이라도 커피

29) 이런 의미에서 피리마을의 경우 어떤 시기에 티켓다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농번기에는 유홍종사여성의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농한기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 지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달하는 여성들과 티켓영업을 하는 여성들이 달랐으며 그 차이를 다방에 고정 출근하는 여성과 프리랜서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보니까 밤에 봤던 아가씨들이 보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도 낮에 커피를 시키면은 밤에 봤던 언니들이 아니더라고, 다 그 고정 아가씨만 다방 아가씨만 고정 직원만 커피 배달해주고, “어디, 어디 숙소입니다 커피 갖다 주세요.” 그거지. 돈이 되니까 그런가봐. 그냥 말만 소속이고 몸은 개인플레이하고 항상 전화는 대기 중 인거 같아. <사례7, 여, 39세>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지방소도시 다방종사여성의 노동 과정에 관한 연구(김수미, 2006)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이후 다방종사여성의 채무가 무효화되자 업주와의 구속적인 고용 관계에서 벗어나 이·퇴직의 자유를 얻게 된 반면 업주의 경우 다방종사여성의 안정적 고용과 관리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용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다방종사여성은 업주와 직접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과급제와 월급제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프리랜서 형식의 고용구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피리마을의 한 다방 업주에 의하면 ‘육지’ 지역이나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월급제, 아침 6시부터 근무, 시간비 입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와 아가씨의 프리랜서화 현상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방식의 특성으로 보인다.

2. ‘죽은각시’로 호명되는 다방종사여성과 장기적, 독점적 단골장사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장기적, 독점적 관계의 단골장사로 이루어지며 마을 남성은 고정적으로 부르는 다방종사여성을 ‘죽은각시’, ‘세컨드’라고 호칭한다. 그리고 티켓을 부를 때 ‘죽은 각시 부르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죽은각시’란 ‘작은부인’을 일컫는 제주어로 첩(妾)을 실제 생활에서 호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마을남성들이 특정한 다방종사여성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과 단골을 보유하고자 하는 다방종사여성의 영업 방식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마을노인 남성들의 경우 독점적으로 다방종사여성과 관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워~ 막 싸움들도 난다니까. 파트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찜해놓은 애 있으면은 거의 고정파트너로 하잖아. 딴 사람이랑 친해지고 하면은 막 싸워. 재밌어 여기. 남자들이 질투가 심해가지고 여기 머 어디 춤추는데 가면 그런다는 말은 들어도 그렇게도 하더라구요. <사례1, 여, 43세>

근데 거기 ○○ 손님들은 다 하나 같이 그냥 술 먹진 않더라고요. 다방에 작은 각시라고 해야 하나. 다 머 다방마다 다 세컨드가 있더라고. 마스터는 그냥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고, 아가씨는 자기 파트너는 다방마다, 그 여자 분이 또 다른 테이블 나갔잖아요. 그 아가씨가 티켓을 나갔으면 또 다른 다방에 전화를 해서 있냐 물어보고. 다른 데는 그 업소에 오면은 술 먹고 가는 그 정도인데, 그 인원 갖고 먹고 그런데 거기는 자기네들 다 콜걸? 거기는 자랑스럽게 작은 각시 있어~하고. 밤에 보면 그렇더라고. 다 낮에 보면 지성인이고, 밤에는 다 그래도 자기 지정 파트너가 다 있어. 자랑스럽게 아 나 모 다방에 죽은 각시 불러 볼까. 아니면 두 번째 각시 불러볼까? 자랑스럽게, 오히려 없으면 좀 바보 취급, 없는 사람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대체로 경하더라고. <사례7, 여, 39세>

성매매 관계에서 ‘단골’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관계이다. ‘단골’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성구매를 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김선화, 2006:43). 특히, 다방은 지역의 남성 집단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손님들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김주희, 2006:98). 성매매의장에서 ‘단골’의 존재는 성매매를 통한 익명성의 경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 관계가 이성애 커플의 연속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선화, 2006:42). 다방종사여성들에게 ‘단골장사’는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며 단골관계에서는 ‘그냥’ 서비스 해주기도 하고 그 때 그 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돈 형식으로 지급받기도 한다. 마을남성들은 자신과 독점적인 관계에 있는 다방종사여성에게 가전제품을 사주기도 하고 생일날 케익이나 꽃다발을 배달을 시켜 선물하기도 한다.

우린, 아휴~ 우린 다방아가씨 보다 팔자 안 좋다고, 생일이라고 케익 사주지, 또 밥 사 멕이지, 술 사 멕이지, 심심하면 가서 잠자리도 해주지, 이

거는 돈 받으면서 그것도. 저 아이 네는 진짜 팔자가 좋은 팔자라고. <사례1, 여, 43세>

아가씨들도 자기 고객을 잡기 위해서 한 번쯤은 서비스로 무료 봉사라고 하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나이 든 언니들은 서비스라도 해 줘야 자기들도~. 어디 자기 파트너 손님이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있으면은 “나 어디, 어디에 술 먹고 있으니까 여기 와라” 하면은 그게 다 돈이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두 번 정도는 미끼를 놓는 거죠. 서비스로. <사례7, 여, 39세>

일반적으로 성매매의 장에서 ‘단골’의 존재는 성매매가 이성애 커플에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관계가 성매매의 장을 벗어나서 ‘실제’ 연애관계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는 ‘실제’ 연애관계와 구분되며 이성애 연애 각본에 따라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티켓영업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다방의 영업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방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다(김주희, 2006:102). 반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다방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며 다방의 경계를 넘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은 ‘그냥’ 서비스 해주기도 하고 용돈 형식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식은 ‘실제’ 이성애 관계와 구분이 어렵다. 그리고 마을남성들 사이에서는 특정 남성의 작은부인으로 ‘찍힌’ 다방종사여성은 부르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 피리마을만의 남성연대를 실천해 나간다.

다방여자들은 ○○가 돈이 되는 곳이니까 다른 곳에 있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누구의 단골이라고 찍히면 다른 남자들한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누구의 단골로 찍힌 여성은 다른 남성들도 누구, 누구의 여자인데 하면서 부르지 않으니까. <사례13, 남, 57세>

아가씨들 상당수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애인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단골손님이 다 애인인데, 한 다섯 명 씩 서너 명 씩 그렇게 되는 데, 나가 말하는 애인이라는 말은 유흥조직 쪽에서 기동서

방 같이 기동서방이 한 사람씩 있어요. 이 기동서방들은 완월동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나 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편 같이 옛날 제주도의 작은 마누라 같이 완전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어. <사례10, 남, 53세>

이처럼 피리마을 남성들이 다방종사여성의 작은부인화하는 현상은 일반적인 성매매의 장에서의 연애 각본을 수행하는 ‘단골장사’와는 차이가 있다. 마을 남성들의 티켓구매 양태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마을 남성들은 특정 다방종사여성을 ‘족은 각시’, ‘세컨드’로 호명하며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피리마을 남성들 중에는 다방종사여성과 결혼하기도 하고 다방종사여성과 살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기도 한다. 특히, 80년대와 90년대의 티켓영업이 전성기를 누리었는데 당시에 마을남성들이 다방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다방종사여성과 ‘바람이 나서’ 아내의 ‘속을 썩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3. 중장년층의 다방종사여성과 다방종사여성의 주민화

일반적으로 티켓영업다방은 성판매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초기 경로로써 알려져 있다. 성판매여성의 대부분이 10대 후반에 성산업에 유입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티켓영업다방에는 십대여성이 고용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나 실태조사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의 다방여성에 대한 연구(김수미, 2006)에서도 지방 도시의 다방종사여성의 나이는 20, 30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종사자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피리마을에서 40대 다방종사여성은 ‘젊은 여성’에 해당한다. 성매매 집결지나 기지촌의 성판매여성의 경우 10년, 20년 장기간 동안 성판매 일을 해온 중장년층 여성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계’를 선호하는 남성 성문화(이효희, 1998; 성윤애, 2000) 하에서 피리마을의 중장년층 다방종사여성의 존재는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사람 해보야 내가 보기에는 20대가 없어. 30대 후반, 중후반이 제일 어리다고 봐야하고 대부분이 40대 중반 후반까지. 아가씨지 아줌만지 모

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처음에 그런 계통으로 발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게 여기 제주도 ○○이라고. 부산 갔다가 신제주 쪽에 갔다가 최종적으로 여기 오는 형편이지. 여기는 새로 들어오는 아가씨들의 경로가 그렇다니까. 지금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중국 동포들, 연변 아니면 이런 조선족 이런 쪽으로 해서 ○○으로 많이 유입되지.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갈 데가 없지. 돈 많은 사람이라도 여기서 잘 만나면 여기서 가게라도 하나 내고 살려고 하는 거고. <사례11, 남, 43세>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형성하고 있는 다방종사여성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외지에서 온 여성들로 피리마을은 삶의 ‘종착지’로 의미화되기 때문에 오래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³⁰⁾ 피리마을에서도 젊은 남성들 사이에는 젊고 새로운 여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유흥종사여성들도 자주 이동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주민화된다. 지역 주민들은 업주에 대하여 지역 주민으로써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흥종사여성들도 주민으로 인정하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는 다방아가씨를 손님으로써, 지역이 좁다보니까 동네는, 그리고 항상 여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아가씨들도, 그러면 항상 다니면서 인사 서로가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그 아가씨들도 그렇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창피하다는 것을 안 느껴요. 창피하다는 것을 안 느끼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할 거 없어서 저런 데서 일하나 때로는 물론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얘기 할 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대화를 해요. 몇 번 보다보니까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일단 여기에 있을 동안은 똑같이 주민이 되어 가지고 운동도 같이 갔다가 같이 오고. <사례3, 여, 49세>

30) 최근 10년 사이에는 중국 연변 출신 여성들의 이주도 눈에 띈다. 연구자가 만난 중국 연변 출신의 40대 여성은 약 10년 동안 피리마을의 다방에서 일을 하였고 얼마 전 연변에 있는 딸을 데리고 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여성의 현재 고민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의 대학 진학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라고 하였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은 출신 국가에 따라 종사하는 업종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몽골의 여성들은 생산직에, 필리핀과 구 소련계 여성들은 성산업에, 중국동포의 경우는 식당과 다방 등에 대개 취업하고 있다(한국염, 2004).

티켓 아가씨라고 해가지고 티켓영업만 하기 위해서 그냥 방안에 쳐 박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일하러 다니는 아줌마들 식당일하고 머 낮에는 다른 일하고 겹치기로 두, 세 가지 겹치기 하는 식으로, 사실은 단란주점 마스터가 그 시간 되면 그 일하고 낮에는 단란주점 안하니까 다방 일하고, 사실은 그 아가씨가 그 아가씨라. 언젠가는 스쳐간다고 한 2,3년 다니다 보면...<사례11, 남, 43세>

유홍종사여성은 피리마을이 티켓영업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일자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유입되고 한 번 유입되면 쉽게 떠나지 않는다. 한 50대의 다방종사여성은 피리마을은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며, “누가 50대인 나를, 식당에서도 안 받아주는 데 150만원 주면서 쓰겠나?”며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듯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리마을’이 남성의 소비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적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이 성애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례2> 여성 또한 지역 남성에게 의한 소비뿐만 아니라 피리마을이 호텔, 골프장, 리조트 등 관광산업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자리에 비해 여성 인력을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였다.

○○이 정말 돈을 많이 써요. 돈 나올 데도 많고 경제가 괜찮았었어요. 여기 일자리 많아. 식당 같은 데도, P리조트 생기면서 여자들이 할 일자리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런데 사람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야. <사례2, 여, 51세>

피리마을의 이와 같은 현실은 제주 지역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3차 산업의 여성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피리마을의 유홍종사여성들은 농한기에 티켓 구매가 줄어들더라도 이 기간에 티켓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굳이 마을을 떠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불경기 시에 피리마을을 떠났다가도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홍종사여성이라고 하여 특정 여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홍종사여성이면서도 동시에 식당이나 호텔, 감귤 밭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때문에 주민들은 유홍종사여성에 대하여 일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온 여성 노동자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피리마을의 경제적 여건과 함께 유흥종사여성에 대한 비하나 낙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 정서도 이 여성들이 피리마을에 오래 거주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피리마을 주민들은 지금과 달리 티켓영업다방의 유입 초기인 80년대에는 다방종사여성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여성들이었다고 한다. 당시, 감귤 값이 호황을 누리며 30, 40대의 젊은 남성들도 높은 소득을 누릴 수 있었고 젊은 남성을 타겟으로 한 다방종사여성들의 연령도 10대, 20대 층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생긴다.

90년대 중하반에 감귤 등 농산물 가격의 하락하게 되고 이는 오늘까지 이어져 동시에 젊은 남성의 경제력이 하락하였다.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안정되어 있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남성들이 티켓영업의 주 수요층으로 바뀌었다. 50대, 60대 그리고 70대의 마을남성 수요에 맞춰 다방종사여성의 나이도 상승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0대의 젊은남성들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여성과 상대하는 경우도 생겨나며 65세의 장년층 성판매여성이 42살의 마을남성에게 티켓영업을 하기도 한다. 이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여성성을 어떻게 판매하느냐의 문제이다.

30대도 있긴 있겠지요. 근데 드물어요. 특히 보통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은 40대 후반, 단란주점하고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나이 차가 커요. 단란주점 아가씨들은 3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다방 아가씨들은 아줌마들이죠. 아가씨가 아니고. 어쩔 때는 나보다 위에 한참 위에 할머니하고 같이 노니까. <사례9, 남, 44세>

그 42살 난 아인데 머리가 이상해도 와서 보니까 자기 엄마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아이, 아줌마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을 것 같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그걸 안 그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남자의 손을 가슴에 얹혀 놓고 “자, 가슴 만져봐. 너희 엄마 보다 젊지?” 가슴이 잘했었나봐(괜찮았나 봐). 개하고 그렇게 해서 쫓아 와 가지고 우리 집에서 치킨하나 시켜서 호프마시고, 그 65세 된 할머니가 별 아양을 다 떨어. “오빠, 오빠” 하고. 겨우 만원 벌고. 한 시간 반. 그 사람들은 주는 대로 받아야지 어떻게 해. <사례2, 여, 51세>

남성의 경제력이 티켓구매에 영향을 미치지만 피리마을 남성에게 티켓구매가 문화화 되어 있음을 볼 때 피리마을 유흥중사여성의 중장년층화 현상은 경제적 조건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피리마을은 90년대 중반 티켓영업다방으로 전국 방송 보도가 될 정도로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 혹은 동네 삼촌과 조카가 동일한 다방중사여성과 관계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특히, 다방중사여성을 작은부인화하여 독점적, 장기적 관계를 선호하는 마을남성의 성문화 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다방중사여성을 공유하는 것은 ‘폐륜’에 가까운 매우 문제적인 현상이다. 50대 이상의 노년층 남성에게 30대 이하의 유흥중사여성은 ‘어린 여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신의 파트너가 되기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50대 후반 남성인 <사례13>은 젊은 여성을 손자뻘에 비유하며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은 남들 보기에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젊은 여성이 있어도 그 곳은 장사가 안 돼. 손자뻘 나이의 여성과 같이 놀 일이 있나? 남들이 뭐라고 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보통 30대 후반에서 50대. 60대는 잘 보지 못했어. <사례13, 남, 57세>

여기는 커피숍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커피를 마시려면 다방을 가야 해요. 다방에 가다보면 다 동네 삼촌 어른들, 새끼들이나 삼촌들이 같이 파트너로 노는 것을 어떻게, 삼촌 벌이나 아버지 벌되는 사람들 파트너를 같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방에 가면 삼촌이나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럼 빠져나와버려요. <사례9, 남, 44세>

피리마을을 비롯하여 제주지역은 전통적으로 친인척을 기반으로 한 지연공동체이다. 그리고 토박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다. 즉, 피리마을은 토박이 남성 중심의 마을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피리마을 남성들이 자신의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린’ 다방아가씨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남성 중심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피리마을에서 아버지와 아들, 동네 어른과 젊은남성이 동일한 ‘다방 아가씨’를 공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물로써 작용하고 있다.

C. 티켓영업을 성매매와 구분하는 지역 주민의 인식

본 연구는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이 성매매의 매개체로 역할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역 주민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티켓’이 곧 성매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사례9>의 40대 남성은 다른 지역의 성관매여성과는 달리 피리마을의 유흥종사여성들은 나이가 많고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성관매를 하려 하지 않으며 지역 남성들도 성매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관계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단지 술벗 해주려고 (옆에)앉는 거지. 그런 거는 아니예요. 왜냐하면은 티켓다방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애기들(자녀)이 있는데 어디 가서 잠자리하고, 개 중에 서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서로가 맘에 들어서 갑시다, 해가지고 좋다, 해서 가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말 했잖아요. 짜증낸다고 만지고 그러면 짜증내요.
<사례9, 남, 44세>

그러나 이 남성은 티켓이 성매매는 아니지만 “둘이 좋아서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례9> 남성에게 성관계와 성매매의 차이는 서로 간의 “호감”과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유무에 있다. <사례9> 뿐만 아니라 지역 남성들은 티켓구매가 곧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둘 사이에 이야기가 잘 되면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돈으로 거래되는’ ‘성매매’와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적인 행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들이 말하는 ‘서로 마음에 들어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흥종사여성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하기도 하며 피리마을의 단란주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례7>은 지역 남성에게 의한 성매매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례의 성구매 남성은 익명의 남성이 아닌 업주와 같은 모임의 구성원으로 ‘남성 고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사람이, 그 택시아저씨가 그 날 비번이었어요. 업주하고도 모임도 하는데 마치고 숙소로 퇴근하려고 하는데 귀에 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주가, 손님 많이 데려오니까 괜찮다. 할 수 없이, 맨 정신으로 내가 하긴 머 하더라고요. 앞에 꼬치 집에서 나 돈으로 소주 사 먹고 바로 여관으로 갔죠. 좀 시달리다가 고통스러워서 바로 숙소로 쫓아 왔는데, 그 당시 미미 언니가 두 시간 동안 울면서 하소연하고 그랬지.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냐고, 그래서 너무나 서운하고 그랬었거든요. 하혈도 하고, 그 다음에 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업주는 입 싹 딱아 버리더라고. 그 마을의 습성이 그래서 그런지 아, 저 아가씨 마음에 드니까 2차 나가게 해달라고 업주에게 주선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번 주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섭섭하더라고예. 한 푼도 없잖아, 사실 하대비라도 줬으면은 봉사료라도 줬으면은, 덜~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사례7, 여, 39세>

지역 남성들에게 성매매는 유흥중사여성과 ‘여관에 가는 것’으로 이는 ‘퇴폐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반면 티켓을 통하여 여성성을 구매한다는 티켓영업의 컨셉 자체는 전혀 문제적인 것이 아니다.

티켓 끊어서 뭐 여관 가야 퇴폐이고 티켓 끊어서 노래방 가면 퇴폐 아니고 룸싸롱 가야 퇴폐고 룸싸롱 가면 2차 가야 (퇴폐)~. 이런 인식의 기준은 성적인 관계나 행위를 하나 안 하나의 문제다~. <사례12, 남, 40세>

실제로 지금의 피리마을 남성들은 티켓을 통하여 익명의 관계에서 성구매 행위를 하기 보다는 특징의 유흥중사여성과 이성애적 연애 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 남성의 이성애적 욕망으로 인해 유흥중사여성의 관계는 ‘외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피리마을의 티켓구매행위는 즉각적인 금전이 교환되는 방식이 아닐 뿐 성매매와 구분되기 어렵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의 문제가 가족해체의 문제로 가시화된 원인도 성매매와 이성애 관계를 구분하기 힘든 지역 남성의 티켓 구매 양상 때문이다.

90년대 중반 티켓영업다방으로 인한 전국 방송 보도는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지형을 변화시킬 만큼의 큰 ‘사건’이었다. 방송에 보도된 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그 이전부터 지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혹은 가족해체가 기승을 부렸으나 방송 보도 이후 달라졌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티켓영업은 지역 남성의 ‘술벗’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리장을 지냈던 한 주민은 신문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지난 96년에는 농사를 등한 시 할 정도로 티켓다방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은 노래방 갈 때나 부를 정도로 전보다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³¹⁾고 말하고 있어 티켓영업에 대한 허용적인 인식을 알 수 있다. 노래방 도우미가 현행법 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울 정도인데 이러한 인식은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 정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방송 보도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하여 최초로 문제제기 한 것으로 특히 방송으로 인한 과급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외부인의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이전에 내부적으로 티켓영업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주민에게 티켓영업이 문제적인 이유는 방송에서 문제제기 한 것과 동일하게 티켓영업이 외도와 연결되어 가족 해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생활문화화 되어 있는 티켓영업을 없애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티켓영업과 성매매 또는 가족 해체를 구분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가족 해체와는 달리 티켓영업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었다.

<사례3>의 40대 여성은 지역 주민들의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구분 짓는 이분법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데 <사례3>에 의하면 피리마을에서 성매매는 지역 외부의 남성, 특히 관광객과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피리마을에서 다방종사여성이 주민화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가 피리마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지역 남성과 다방종사여성 등 지역 주민과는 무관한 것이 된다.

연구참여자: 보통 2차 나가자 하는 분들이 면민들(마을사람들)이 와서 2차

31) 『제민일보』, 2000년 2월 22일, “96~97년 단속 회오리 ○○○ 지금은...○○지역 다방 수 25개 티켓 영업 여전”

나가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2차 나가면서 20~30만원씩 주면서 면민이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연 구 자: 그러면요?

연구참여자: 외부에서~.

연 구 자: 어디, 제주시나 다른 데서?

연구참여자: 물론 그디(제주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행을 온다던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2차를 요구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은 별로 요구를 안 할 거예요.

연 구 자: 그런데 여기 티켓이 지금 돈을 버는 이유가 여기 동네 사람들이 면민들이 와서 쓰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참여자: 예. 게난 그 여자들은 다방여자들이고 자기네 생활 할 만큼 밖에 안 되잖아요. 다방여자들은 50대 난 사람들이고, 40대 부터 50대, 아까 얘기 했던 것은 단란(주점)~.

<사례3, 여, 49세>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성매매는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언급할 때 지역 남성과 이를 상대하는 다방종사여성은 제외 되지만 이러한 이분법은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확연히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 지형에서 티켓영업을 이야기 할 때 중요한 것은 티켓영업이 성매매로 이어지는가 혹은 성매매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보다는 티켓영업의 내용과 성격이며 지역 주민 특히 지역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나 티켓영업과 성매매의 이분법적 인식은 티켓영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을 더 이상 의미 없는 일로 여기게 만든다. 즉, 성매매는 나쁜 것이지만 티켓은 괜찮은 것, 티켓은 노년층 남성의 문제이지 젊은 남성은 예외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시키며 이는 각각 다방과 단란주점, 다방종사여성과 단란주점 종사여성, 나이든 여성과 젊은 여성을 이분화 하여 인식하는 것과 연결된다. 즉, 다방에서 일하는 나이 많은 여성들은 지역 남성을 상대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생계를 위한 것이기에 용인되지만 단란주점의 젊은 여성들은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외부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더라도 문제적이지 않다. 이러한 이분법은 내부와 외부로 가르는 방식으로

피리마을에 티켓영업다방 등 유흥 공간이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과 공존하고 있지만 문제적인 것들은 타자화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문제적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다.

티켓영업이 성매매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날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문제는 티켓영업은 성매매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지역 주민의 확고한 이분법적 사고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역 주민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서이기에 내부에서 티켓영업에 대하여 문제제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²⁾

32)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가 아닌 지역을 ‘육지’라고 부르며 ‘육지사람’과 ‘제주도민’을 구분해 낸다. 이는 개인이 어떠한 지역정체성을 지니게 되느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장소와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제주시와 같은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도민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진현영, 2007:70-73). 같은 맥락에서 유철인(1984:125-132)은 현대의 제주 주민들의 인지의 근간이 제주와 육지의 구분에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근원을 섬이라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조건에 있다고 보았다. 과거 국가 주도에 의한 지역개발 과정에서 주민 운동의 핵심 요구가 제주 주민의 주권 회복에 있었다는 점은 지역개발의 내용을 떠나서 국가나 외부가 아닌 ‘제주도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분법적 구분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민과 외부인을 나누는 이분법의 경계는 공고한 것이 아니며 균열 과정을 거치면서 재구성된다. 이러한 이분법의 균열은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을 통한 상권과 지역개발 과정에서 유입된 ‘육지사람’들의 주민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피리마을에 유흥업소 업주나 업소 종사자들이 장기 거주하고 토박이화, 주민화 되면서 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이 된다. 또 다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재구성되지만 이분법의 경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IV.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여가/놀이문화의 성별분리체계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은 국가 주도에 의해 60년대 목축업, 감귤산업 등 1차 산업의 상업화를 시작으로 80년대 이후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³³⁾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3차, 1차, 2차 산업의 순으로, 1차 산업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광공업부문이 점증하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산업구조와는 상이한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이상철, 1987; 김진영, 1995). 이는 발농사적인 체제에서 바로 산업화 체제로 건너뛰는 변화(조혜정, 1998)로써 이러한 산업화 과정은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제주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장에서는 1차, 3차 산업 중심의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의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피리마을의 티켓영업과 어떻게 연결되며 이로 인해 지역의 노동/여가/시간의 성별분리체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역 남성과 지역 여성 그리고 다방종사여성의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 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과 티켓영업다방의 변성

제주지역의 개발은 1960년대에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시작으로 이후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 사업과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목축업, 감귤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강성의, 1993). 특히 감귤 농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금도 제주도의 특화 산업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피리마을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70년대 축산업을 시작으로 감귤 등 환금작물을 도입하여 제주지역에서도 상업적 농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다. 피리마을은 전국적으로 축산업이 활발했던 70년대, 광활한 산간지대를 이용

33)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은 항공,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도민소득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발에 의한 마을공동체 및 전통적 문화의 붕괴, 1차 3차 위주의 불안정한 산업구조, 국가와 외지자본 주도로 인한 제주도민 소외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역개발은 여성 노동력의 가치 하락을 가져왔다. 지역개발과정에서 대규모의 위락시설 및 수용시설의 확충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은 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며 이는 관광관련 산업인 3차 산업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지역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강성의(1994)의 논문을 참고할 것.

하여 거대한 우시장(牛市場)을 형성하였다. 당시, 남성 중개자들이 소를 거래하는 장소로써 다방(茶房)이 존재하였고 80년대에 이르러 티켓영업이 도입된다. 이후 80년, 90년대 감귤 값이 폭등하면서 이 시기와 맞물려 티켓영업다방이 전성기를 맞게 된다. 특히, 피리마을 중에서도 산간지역에 위치한 D마을과 H마을은 축산업과 하우스 농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던 곳으로 지역 남성들의 '놀이'와 다방 등 유흥에 소비하는 씬 씬이가 남달랐다고 한다.

D마을은 소할 때 돈이 많이 되었고 H마을은 하우스, 감귤, 바나나나 이런 것들, 하우스 초기에 돈 엄청 벌었지. 80년대 후반에. 그 때부터 시작해서 하우스 관련 수입이 상당히 크지. D마을, H마을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지역에서 놀러 다니고 하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돈 나올 구멍이 별로 없는 데 품셈품사해야 할 거 아니야? 같이 어울려야 할 거 아니야? 뱀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처럼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지. <사례11, 남, 43세>

다방 산업의 특성상 티켓영업은 지역의 남성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장사를 한다(김주희, 2006:98). 특히, 도시 지역의 티켓영업다방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좁은 관계망 하에서 이루어지는 티켓영업은 불특정 남성이 아닌, 내부의 특정 지역 남성 수요에 의해 유지된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지역 남성의 경제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70년대 이후 90년대 까지 축산업에서 감귤로 이어지는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인해 당시 젊은 남성들도 높은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은 티켓 구매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당시 티켓영업의 주 구매층은 20, 30대 젊은 남성이었고 이에 따라 다방종사여성의 나이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주를 이루었다.

제가 결혼하고서 올 때는 젊은 사람들이 다방에 갔었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안가고 50대 중년 이상들이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그러니까 그 때는 다방에 있는 직업여성들도 나이층이 아주 어렸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왔었고. 그 때는. 왜냐하면 여기 고객이 원하는 사람을 서비스 해줘야 하기 때문에, 40대 이전에 있는 아이들이 정신없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다방에도 많이 가고 단란주점에도 많

이 가고 직업여성들이 연령층이 아주 낮았었어요. 2, 30대까지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60대, 70대 다방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이 가는 데...<사례2, 여, 51세>

여기 보면은 희안해.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경찰 있는데, ○○ 만큼은 가기가 싫다. 무슨 사건 터졌다 하면 가기가 싫어. 하트 젊은 사람들도 좀 옛날부터 남자들의 생활이 이상하더라고. 처음 와 보니까 내가 88년돈가 89년돈가 내가 여기를, 그 전부터는 우리 언니가 여기로 시집을 와버리니까 그 전에도 왔지만은 내가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하여튼 89년도엔가 여기 들어 왔을 거라. 그 때도 룬(싸롱) 같은데 있으면서 남자들은 일도 안하고, 아 돈 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또 노름하는 데도 완전 많고 잘도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일도 안 해도 잘도 이상한 동네구나. <사례1, 여, 43세>

식량 작물 위주의 자급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은 이전과 달리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게 하였고 남성 자본의 확대를 가져왔다. 아래 <표9> 제주도 산업별, 성별 구성비를 보면, 1차 산업에서 1960년대에는 여성이 59.1%를 차지하여 남성 40.9%보다 많은 수가 농업 관련 경제 활동에 종사해 왔으나 1990년에 이르러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41.7%로 감소한 반면 남성의 비율은 50.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작(田作)을 중심으로 하는 식량작물 위주의 자급 농업에서 60년대 후반부터 소득이 높은 감귤과 특용 작물을 중심의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다른 지역의 1차 산업과는 달리 남성 노동력이 확대(강성의, 1993:56-58)되었음을 말해준다.

<표9> 제주도 산업별, 성별 구성비의 변화

(단위: 명, %)

산업분류 \ 년대	1960	1970	1980	1990
취업자	124,410	135,382	170,510	200,608
여	55.2	49.6	45.2	41.4
남	44.8	50.5	54.8	58.6
농림어업	88.1	72.2	68.6	41.7
여	59.1	57.4	54.0	49.3
남	40.9	42.6	46.0	50.7
광 공 업	2.1	4.7	5.3	3.7
여	-	25.6	28.8	22.8
남	100	74.4	71.5	77.2
서비스 및 기타	9.8	23.1	26.1	54.6
여	26.2	30.6	31.2	36.4
남	73.8	69.4	68.8	63.6

자료: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대한통계협회: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 1980』,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총인구 및 주택보고, 1970』, 경제기획원: 『인구주택국세조사보고, 1960』 경제기획원. (강성의, 1993 자료 재인용)

이러한 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남성 유흥 문화와 맞물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이 발달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현금이 유통되는 지역 경제의 구조는 별다른 여가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농촌 지역의 삶 속에서 마을 남성들은 티켓영업다방에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농업 체계의 문제도 있어예. 거의 농사, 여기도 대부분 중산간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고 하는 데 그 이유가 ○○ 같은 경우는 저기 머랜(워라고) 해야 하나, 농업이 융작 체계가 좋아 예. 미강(감귤) 있지, 무 있지, 더덕 있지, 콩 있지, 고비 고비에 그 하우스 밀감 머 요럴 때 고비 고비에 나오는 수입들이 그 경제가 이렇게 유회환이 되어가지고 현금들이 도는 거라예.
<사례6, 여, 42세>

그 때(90년대) 한참 그랬죠. 여기는 밀감 밖에 나올게, 거기서 나오는 돈이 엄청 낮았어요. 그게 다 여기서 소비되잖아요. 중간 도시가 다 여기, 다 부농들이예요. 조그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부농들이예요. 그 사람

들 오면 여기서 다 소비하는 거예요. 가깝고 여기 오면 다 되거든요. 술
되지, 먹을 거 되지 다 여기서 소비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그랬었죠. <사
례2, 여, 51세>

이와 같은 경제적 맥락에서 피리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티켓영업다방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90년대에 신문
방송에서 농어촌 지역의 티켓다방 문제를 자주 다루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이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농촌지역은 공통적으로 감귤, 수박
등 상업농이 발달한 지역으로 환금 작물의 출하시기에 맞추어 마을 전체적으
로 고액의 현금 유통이 가능한 경제적 배경과 맞물려 농한기에 지역 주민들
이 여가를 보낼만한 마땅한 놀이문화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³⁴⁾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지역남성들의 일상적으로 ‘아가씨’를 대동하는 유흥/성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농촌 지역 남성의 여가와 놀이문화의
부재로 일반화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여가/놀이문화가 없어서 티켓을 구매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남성의 여가/놀이문화 자체가 티켓 구매인 것
이다.

현재 피리마을 주민들은 티켓영업이 전국 방송에 보도되었던 90년대 중반
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에는 심각했던 문제였지만 지금은 60대 이상의 남성노
인층에 한정된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피리마을은 IMF 시기에도 불황
을 겪지 않은 지역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2000년대 들어서 감귤 값의 하락과
농산물 가격의 잦은 변동 등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힘든 소리를 내었다. 그러
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규모는 제주지역의 타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 상권은 제주시 지역을 능가할 정도이다. 이는 피리마
울의 티켓영업이 경제적 변동에 따라 규모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
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³⁵⁾

34) 한 예로 전국적으로 티켓영업다방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성주군의 경우 참외와 수박 농사로 지
역남성들이 목돈을 만질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당시 경북 성주군의 전체 인구는 5만 3,000명으
로 군대 다방 수가 140곳으로 군민 380명당 하나 풀이어서 군 단위로도 인구 수와 비례해 가장
많은 다방을 보유하게 되었다. (국민일보, 1998, 『농촌에 다방이 넘친다/전국 최고 ‘보급물’ 경
북 성주군 르포』)

35) 피리마을 다방중사여성은 피리마을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피리마을의 경기와 수요가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아가씨들이 여기 좋았던 때에는 팀 문화가 좋았어요. 막말로 그게 짹짹했다고요. 근데 지금 없
어요. 저희들도 보면 고생했다고 봉사료 줄 수 있는데 못 줘. 돈이 없는데. 아주 예의 바른 사람

B. 지역 남성의 연령에 따른 티켓구매 양상의 차이

1. 노년층 남성의 일상적인 ‘티켓구매행위’

1980년대 티켓영업이 유입된 이후 20~3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주 구매층은 지역 남성이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리마을의 경우는 지역 남성들이 꾸준히 주요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³⁶⁾ 이는 지역 남성들에게 티켓구매행위가 집단 문화로써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려는 욕구에는 ‘비밀 보장’이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하며 익명적 성을 원하는 남성의 욕구와 전제는 남성들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원미혜, 1999:190-191).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의 ‘동네’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성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피리마을 남성들이 마을 내에서 일상적으로 티켓 구매를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피리마을 주민들은 ‘티켓’과 성매매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와는 달리 티켓 구매 행위에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시각이 티켓구매를 허용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티켓영업의 주요 수요층을 나이 많은 노인층으로 특정화한다.

피리마을의 성산업은 티켓영업을 중심으로 젊은층은 단란주점, 60대 이상 장년층은 다방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나이층에 따라 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남성의 나이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티켓영업다방을 이용하는 주요층은 노년층 남성이다. 마을의 젊은 남성들이 대부

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예요. 왜 ☆☆로 가냐면 ☆☆가, 지금 ☆☆하고 ○○이 지리상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감귤 값 똑 같이, 여기도 일차산업이 월동작물 이잖아요. 감자, 당근 돈 되는 작물이. 감자, 당근이 내리 3년인가 4년 동안 돈 되는 때가 있었고, 감귤 값 폭락하면 이게 좀 돈 되고 이게 폭락하면 이게 돈 되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밀감 값 안 된다고 하면 욕은(영리한) 아가씨나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봐야 월급은 받는데 사장 눈치나 보고 저 쪽 강(가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여름에 여기 오던지 이런 거예요. 약간 유랑 생활하는 거죠.”<사례12, 남, 40세>

36) 전국 차원에서 산업형성매매에 대해 연구한 변화순(1998)은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업체 수도 많기 때문에 밀집 지역과 분산 지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유흥업소들은 그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마을 내부 남성 수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수를 고려하여 밀집 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분 농사를 짓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어 농한기나 휴일에 티켓구매를 주로 하는 반면 일선에서 물러난 노년층 남성의 경우 농한기나 휴일의 의미가 없으며 티켓구매는 일상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노년층 남성에게 티켓구매는 아침부터 시작되어 저녁에 마무리 되는 하루 일과이며 또래 집단의 문화가 되어 있다. <사례13>은 50대 후반 남성으로 친구들 사이에 다방 가는 것을 거절하면 ‘왕따’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이 들어서, 집에 가봐야 맨날 보는 얼굴인데 다방 가면 재미도 있고, 비오는 날 같은 때 집에 있어 봐야 뭐하고 친구들끼리 전화를 해서 다방에 갈까 하고 서로 연락해서 다방에 가서 놀니다. 친구들이 다방가자, 노래방가자, 시간(티켓) 부르자 하는 데 싫다고 하면 다음에 놀 때 연락 안 하고 왕따 시켜버려요.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사례13, 남, 57세>

농사를 자녀나 젊은 층에게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난 농촌 지역 노년층 남성들은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생활하며 부인과의 관계도 소원하다. 상대적으로 ‘제주 여성’은 노인이 되어서도 밭일이나 물질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놀아 줄’ 여력이 없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년층 남성에게 티켓영업은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며 노년층으로 갈수록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가 당연시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경우 친구 관계에서도 ‘왕따’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노인층 남성에게 티켓구매는 노년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아내도 ‘상대해주지 않고’ 자녀들도 바빠서 소일 없이 혼자 지내는 노년층 남성에게 티켓영업은 ‘노인복지사업’에 비유되기도 한다. <사례12>는 이웃마을 거주자로 피리마울의 이러한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나이 들어서 뭐, 노인내 난다 암내 난다 하는 할아버지들 그런 할아버지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 아가씨들이 다방에 일하는 아가씨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짜장면 먹으러 가면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주고 노래방 가면은 귀찮다 안하고 번호, 할아버지들 잘 안 보이니까 번호 다 눌러주면서 노래 못 불러도 박자 맞추고 노래 가르쳐 주면서, 할아버지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돈을 계산해 보면, 아침에 다방에 나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에

는 다른 지역이 차 값 천 오 백원 할 때 천 원밖에 안 받는 동네~. 티켓 다방이 주업종이어서, 아가씨랑 차를 마시고 11시나 12시쯤에 점심 먹으러 칼국(수)을 먹으러 가는 짜장면을 먹으러 가든 아니면 더 비싼 거 먹으러 가든 갈 거잖아요? 두 사람이 차 마셔도 2천 원 밖에 안 들고 세 사람이 마셔도 3천 원 밖에 안 들잖아. 다방에 가서 당신에다가 4사람 더해서 5천 원 먹었다 치자. 5천 원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밖에 가서 식당에 가서 5천 원짜리 먹으면 그 때는 여러 아가씨 안 데리고 가고 자기 파트너만 데리고 가니까 둘이만 가면 밥값이 만원이잖아요? 5천 원(더하기), 5천 원(하면) 만원. 그러면 만 오천 원 들고 또 밥 먹고 하다 보면 시간이, 그 다음에 노래방 가고 밥 먹는 시간, 노래하는 시간 다 2시간 하면, 그 때 당시 시간비가 2만 원 하면 2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돈 5만 원을 가지면 제주도 여자한테 제주도 부인한테 못 받았었던 온갖 여성스러운, 돈 5만원이면 하루 정말 왕 대접 받고 임금 대접 받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농사일도 그만두고 시간적 여유 있고 하는 어른들은 이게 일상이 되었다는...<사례12, 남, 40세>

친족공동체 사회인 피리마을의 공동체적 특성 상, 마을의 어른인 노년층 남성들의 행동에 대하여 나이 어린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버릇없는 행동’이 된다. 때문에 피리마을 노년층 남성의 티켓구매 행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노년층 남성의 일상생활화된 티켓구매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이해’하고 허용하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나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데 나이와 성별, 피리마을에 거주 기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례9>의 경우 아버지가 다방에 자주 다닌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사례9>의 어머니는 “나이 먹어서 뭘 하겠냐”며 남편에 대한 체념 또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사례9>의 아내는 시아버지의 이러한 태도를 부끄러워하며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반면 남성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용적인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나도 사실상 우리 아버지 다방에서 커피 마시고 뭐 하고 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집안에서 뭐만 안하면 되지 뭐. 시간 나면은 가서 어

가 생활 하다가 들어오는 건데 나쁜 짓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살아 보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젊었을 때 그 만큼 고생을 했고 예전 같은 경우야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나이 먹고 하니깐 같이 어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해서 들어오는 정도는 상관없다고 봐요. 우리 어머니는 나이 먹어서 멀 하겠냐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근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한심하죠. 나는 머 그렇게~, 우리 집사람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휴~ 나이 들어서 머깽~!” 하는 데, 나는 머 “내볼라~시간 남아서 노는데 어디서 나쁜 짓하는 것도 아닌 데~”, 아예 거기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사례9, 남, 44세>

(그)것도 생각해 보기 나름인데, 사실상 노인들이 늙어가지고 여가 생활도 없고 그러니까 다방이나 어디 가서 아가씨 차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오고 하는 여가 생활은 좋죠. 그건 좋은 데 그걸 너무 깊이 들어 가면은 안 되죠. 그니까 한 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나쁘죠. 사실 상 노인들 가서 아가씨들 옆에 앉혀가지고 커피 마시는 거는 좋죠. 같이 어울리고 같이..우리가, 젊은 애들이 생각할 때, 중산간 지역 사람들이 일만 하다가 비올 때 좀 잠깐 쉴 때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정도다 이해를 해주지. 가정 파탄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쇠 빠지게 일해서, 솔직히 비올 때, 집에만 있을 수 없는 거고, 여기 와서 ○○ 와서 진짜 솔직히 머, 아가씨 손도 한 번 잡아보고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는데 벗도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와이프 데리고 가서 놀기도 머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은 머 좀 나이 드신 분 고생한 거에 대해서 머 문화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혜택을 자기네가 누릴려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사례8, 남, 39세>

이처럼 젊은 남성들의 허용적인 인식은 연배는 다른지만 농촌 지역 남성이라는 공감대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젊은 남성들이 나이를 먹고 지역공동체의 어른이 되는 시기가 되면 이들도 이러한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노년층 남성들의 일상생활화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지만 노년층 남성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지역의 젊은 남성들도 농번기나 여가 시간에 티켓을 부르는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2. 젊은 남성을 위한 이성과의 만남의 장으로써 티켓영업

제주 농어촌 지역의 성매매 지형이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산업의 분화가 일찍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티켓영업다방의 규모만큼이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규모도 크다.³⁷⁾ 티켓영업다방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는 30-40대의 젊은남성층이 주로 가는 곳으로 농어촌 지역에도 연령에 따른 성산업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개발 과정에서 상업적 농업의 발달이 젊은남성들을 농어촌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으로 육지의 농어촌 지역과 달리 많은 인구의 젊은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산업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

단란주점 없으면 어떻게 놀아, 아가씨들하고 어떻게 부킹을 해. 제주시 가서 부킹 의도적으로 하면서까지 관계 맺으면서 까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야. 고정적으로 본질적으로 정신 상태가 그런 사람들은 가겠지만 머 서울이라도 가겠지만, 여기는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조건적인 여건이 어떤 문제가 되고 30, 40년 동안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지, 이제는 머 다른 동네 가도 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사례 11, 남, 43세>

피리마을의 젊은 남성들에게 단란주점은 유흥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만남을 매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례11>의 ‘부킹’이라는 단어는 매우 상징적이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성매매와 달리 이성과의 ‘원나

37) 제주지역은 80년대 이후 관광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유흥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단란주점의 경우 1993년 정부의 허가 이후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다(오정준, 2003b:145). 이 시기는 피리마을에 단란주점이 들어선 시기와 일치한다. 전국적으로 1994년에 생긴 단란주점은 12,133개 업소로 출발해서 3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변화순 외, 1998:31-32). 변화순과 오정준 간의 단란주점 허가 시기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1993년에 정부의 허가가 났고 공식적인 통계는 1994년부터 집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잇스탠드'을 위해 '부킹'을 한다. 이때 남성에게 성판매여성과 부킹에서 만난 여성은 위계화 되어 있다. 반면 피리마을 남성에게 이와 같은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일레인 킴(2001)은 남성의 계층 차이에 주목하고 하층 남성의 경우 성판매 여성에 대하여 가장 인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남성 성문화는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지역에 따라 남성들의 성문화도 달라질 수 있다.³⁸⁾ 일레인 킴은 하층 남성들이 성판매여성을 결혼 상대자로 여기거나 자신과 동일한 노동자로 위치 짓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리마을 남성들도 이와 유사한 인식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제주 농촌 지역이 산업화 과정을 통한 사회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사회는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 농촌의 인구들이 도시로 대거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으며 반대로 농촌의 인구가 대거 빠져나가고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인구는 지역개발 초기인 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70년대 후반 감귤원 조성 및 감귤 소득의 증대, 관광 붐이 일어나면서 육지부에서 많은 인구유입이 이루어졌다(강성의, 1993:48)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남성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져 젊은 남성의 유출을 막은 반면 여성이 일할 곳은 마땅치 않았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도시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 이는 피리마을을 비롯하여 농촌지역의 남성화를 야기하였으며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특히 80년대 이후 상업적 농업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농촌 지역의 젊은 남성을 상대로 한 티켓영업이 매우 활성화되었고 유흥종사여성의 유입은 농촌 지역의 여성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소위, 농촌에 여성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여성들이 학교,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서 어디를 가냐 하면은, 우리 누나도 부산에 갔었는데 ??공단에 갔었는데, 그 때 아주 대거로 빠져나갔습니다. 육지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때 당시 일시적으로 농촌에는 공동화 현상이 있

38)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화 되었던 '너는 내운명'이라는 영화는 다방종사여성과 사랑에 빠진 농촌 남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였어요. 여성이 없었어요. 여성이. 90년대 초, 중반.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진짜 없었어요.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걸 겨냥한, 그리고 그 때 한참 돈 될 때잖아요? 그걸 겨냥한 공격적인,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티켓문화하고 그걸 당연히 언론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일상적인 거야. 막말로 우리 동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사례12, 남, 40세>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결혼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국적 추세와는 달리 제주 농촌 지역 중에서도 피리마을은 국제결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제주도 주민 사이에는 ‘제주도민’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이 강한 지역 정서가 있어서 이는 혼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³⁹⁾ 이는 제주지역의 통혼권이 제주지역을 넘어서지 않는 경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인에 있어 ‘제주도민’과의 혼인을 우선시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 ‘육지사람’, 그 다음이 국제결혼 순이라는 정서가 강하다. 이러한 정서는 언어와 국가가 다른 국제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유흥종사여성이라도 한국사람과 하는 것이 낫다는 민족적 동질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방종사여성과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주민들도 다방종사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낙인을 서서히 철회하게 된다.

우리 선배들 우스개소리로, 장가 못 간다게~ 죽을 때까지~ 농담 식으로. 그런데 그 부모들이 걱정했어요. 베트남 가서 여자 사와야 할 건데 그건 더 싫고 그래서 부모가 주선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부모들이 주선 행으네 결혼한 사람이 2, 3 사람 있었어요. 오히려 후배들이나, 짓궂게 시리 “오봉순이⁴⁰⁾~ 오봉순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만 그렇다고 그 여성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뭐 마을공동체이든 뭐든 선후배 남성들이

39) 김혜숙(1993:161-166)의 연구에 의하면 50년대 까지 제주지역의 마을내혼율은 40%이상이었으나 점점 줄어들어 80년대에는 마을 내혼율이 19.8%이었고 같은 먼 17.8%, 같은 군 18.8%, 도의 다른 시, 군 29.7%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늘날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마을내혼의 혼인양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마을 내에 국한되었던 통혼권의 범위가 제주도내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라는 지역 범위가 통혼권의 범위로써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40) ‘오봉’은 쟁반을 일컫는 일본어로, ‘오봉순이’는 다방에서 쟁반을 이용하여 커피를 배달하는 방식에 기원하여 커피를 배달하는 다방종사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집에 자주 놀러가잖아요? 술 한 잔 먹으로 가도 잘 해주고. 그런 게 90년대부터 90년 초중반에 일정 정도 꽤 많이 유입되었죠. 그래서 그게 사는 걸 지켜봤잖아요? 10년 정도 지켜보고 사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의식도 많이 형성되었어요. <사례12, 남, 40세>

○○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다방종사여성) 얼마간의 빛이 지고 있더라고.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자주 부르다 보면은, 자주라고 하면 횡수가 얼마인진 모르겠지만은, 만나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정이 들고 나이든 노총각들이 빛을 해결해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주위에서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국제결혼) 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속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과연 잘 살까? 머 잘 살아 줄 건가? 해도 우리 주위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사례4, 여, 46세>

초기에 티켓영업이 도입될 당시에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남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하다가 ‘도망가는’ 유흥종사여성들을 자주 목격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유흥종사여성들이 이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과연 잘 살까? 잘 살아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러한 의문을 서서히 철회하게 된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도 이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가정들이 이혼하는 모습을 보며 유흥종사 여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 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들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뭐 우리 사촌 육촌 형네도 이혼했거든요? 그 사람 네가 다른 사람 욕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이혼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도대체 그러면 너네 뭐가 문제냐~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사람이 잘 사는 부분이 더 크게, 오히려 잘만 살면 된다 이런 식의~<사례12, 남, 40세>

이처럼 피리마을의 미혼남성들은 유흥종사여성을 결혼 상대자 혹은 연애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남성들이다. 그리고 실제 유흥종사여성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례들은 티켓영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허용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C.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성별분리체계

1. 지역개발과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

제주도의 지역개발은 상업적 농업의 육성을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관광산업 개발⁴¹⁾ 중심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제주도 개발은 ‘제1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3개의 관광 단지, 26개의 관광 지구 중심의 관광지 개발로 요약될 수 있으며 피리마일은 3개의 관광 단지 중 하나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민속 위락 단지로 개발되었다(강성의, 1994:40). 이와 같은 관광산업 중심의 개발 방향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 종사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3차 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래 <표10>의 제주지역 산업 구조와 취업 구조를 보면 1960년대까지 1차 산업이 전체 산업 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80년대를 기점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제주도 관광개발계획의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제주도를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시설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지형적 특색이 뚜렷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공원과 민속자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제주도 민속자원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다수의 관광객을 체류시키기 위하여 종합 휴향지와 위락공원 조성을 계획하였다. 그 외에 골프장, 승마장, 수중전망대, 낚시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시설을 개발하였다. 1990년대에는 80년대 수립한 휴향 및 레크레이션 시설을 개발하였다. 1990년대에는 80년대 수립한 휴향 및 레크레이션 시설 개발을 시행하는 한편, 대형공연장, 대형박물관, 식물원, 미술관, 관광농원, 관광휴양목장, 관광체험어장 등을 개발하여 80년대 이전의 자연감상의 방식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자연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 성향은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을 관람하는 정적인 형태의 관광으로부터 인위적으로 형성된 산업관광시설이나 스포츠 레저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지향적인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고 있으며 이에 맞춰 관광개발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정찬숙, 1997: 21-31).

<표10> 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1961-2001)

(단위: %)

산업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체	
	총생산	취업자	총생산	취업자	총생산	취업자	총생산	취업자
1961	55.7	80.5*	10.8	1.7*	33.5	17.8*	100.0	100.0
1971	49.3	81.3	8.0	3.1	42.7	15.6	100.0	100.0
1981	34.9	71.8	5.3	3.1	59.8	25.1	100.0	100.0
1990	35.0	42.0	3.0	3.8	62.0	54.2	100.0	100.0
2001	16.0	25.0	3.0	4.5	81.0	70.5	100.0	100.0

자료: 1961-1990: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2권, p. 622-624, 2001: 제주도(2006), 『제주도지-산업·경제편』 제 4권, p. 944-948 에서 재구성.

* 1961년도 취업구조는 1967년도 것임.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 전의 제주 주민, 특히 여성 일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여성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자립도가 꾸준히 상승한 것과는 달리 개발되기 이전 시기에 제주여성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과 경제 참여율이 매우 높으나 1960년대 이후 90년대 까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11>에서 1960년도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66%로 전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28.4% 보다 훨씬 높았으나 1970년부터 감소하다가 1990년도에는 전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보다도 낮은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다.⁴²⁾

42) <표11>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제주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약 20%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확대에 따른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80년-90년대에 3차 산업의 성장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의 비율 증가로 나타나 영세하였고 비공식 부문의 생산 활동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경제활동참여율이 곧 여성 노동력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 가는 제고해 보아야 하며 여성 일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11> 제주, 전국의 성별 간 경제활동참여율 비교

(단위: %)

연도	제주		전국	
	여	남	여	남
1960	66.0	73.1	28.4	76.7
1970	57.7	71.4	37.6	72.5
1980	50.3	70.8	38.4	72.4
1990	42.3	66.1	47.0	73.9
2000	61.2	75.5	48.8	74.2
2007	63.3	75.5	50.2	74.0

자료: 1960, 1970, 1980: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1990: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강성의, 1994 재인용), 2000, 2007: 통계청.

이는 지역 개발 이전의 제주여성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지역 개발 이후 1차 산업이 상업화와 남성화되면서 여성들이 1차 산업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1차 산업에서 여성 노동력의 지위 변화는 2007년에 실시한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강경희, 2007)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설문 대상인 여성 농업인 542명 중 농업 노동 전체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정도에 대해서 61.2%의 응답자가 50%이상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농업인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62.3%가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적 농업인’으로 34.4%가 전문적 여성 농업인으로 생각함으로써 실제 하는 일에 비해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을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커, 1차 산업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제주지역 개발에 따른 산업 구조와 생산 활동의 변화로 인해 남성은 1차 산업, 여성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아 졌지만 여성의 경우 무급 가족 종사자이거나 임시 및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거나 기혼 여성의 경우 가족노동에 흡수되는 등 여성 노동력의 가치는 절하되었다. 즉, 제주여성들은 제주지역개발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가구 내부로 귀속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가구 중심의 생산 활동의 확대는 여성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전히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가정주부로 비가시화시켜 더욱 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낮게 평가되는 요인이기도 하다(강성의, 1996:86-87). 그리고 관

광산업 육성에 따른 유흥 산업의 발달은 성적 서비스를 담당할 여성들의 필요에 의해 많은 '외지 여성'들이 유입 되었다.

2. 성별분리체제와 지역 남성의 여가/놀이문화로써 티켓구매

피리마을은 축산업을 시작으로 감귤 등 환금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 남성의 경제력이 상승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편승하여 80년대 티켓영업이 유입되면서 티켓영업은 지역 남성의 여가문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남성의 여가문화는 지역의 노동/여가/시간의 성별분리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리적 공간에 한정됨이 없이 남성이 부르는 곳에 이동하여 이루어지는 티켓영업방식은 농어촌 지역 남성의 노동과 여가 등 삶의 방식에 적합한 방식이다. 농어촌 남성들은 도시 지역의 직장인 남성처럼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규칙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이루어지는 티켓영업은 농어촌 남성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티켓영업 다방이 농어촌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농어촌 남성들에게 노동과 여가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며 농촌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인 삶의 방식이 농사 위주로 맞춰져 있어 농한기나 비오는 날이 곧 휴일이 되고 여가 시간이 된다.

비 안 오면 계속 일하는 거고 쉴 틈도 없이 일하는 거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은 그 때 쉬는 게 머예요. 그래 가지고 비오거나 머 할 때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모여 가지고 술 한 잔 먹거나 아니면은 머 보통 술 먹는 게 제일 많죠. 술 먹으면서 서로 농사 어떻게 짓느냐,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기술을 어떻게, 농사 잘 짓는 사람 말 들어 가면서 기술을 배우는 편이고...전국 방송에도 나왔지만 머 티켓다방이나 머 했었지만은 어쨌거나 농사 끝나면은 할 게 없잖아요. 농사 끝나거나 비오거나 하면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노인 분들이 심심하면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한 해 농사지은 걸 가지고 나와서 다방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해요. <사례9, 남, 44세>

이와 같은 지역 남성의 실정을 반영하여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농번기/농한기, 비오는 날/화창한 날에 따라 대조적인 양상을 띤다. 유흥종사여성들은 피리마을 남성들의 삶을 잘 알고 있고 이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줄 아는 여성들로써 농번기에는 감귤을 따러 다니거나 3-4월 고사리 철이 되면 들로 산으로 고사리를 채취하러 다니고 감귤 출하가 끝나고 현금이 들어오는 1-2월이 되면 돈을 쓰기 위해 내려오는 지역 남성들로 티켓영업이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이에 맞춰 분주하게 영업을 한다. 이 여성들은 지역 남성들이 언제 무엇을 하는지, 어느 지역의 현금이 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근데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이 낮에 다 안 내려오니깐 굴 따러도 가요. 고사리 철에는 고사리 밭에 다 깔려 있어요. 가면 다 그 아이들. <사례2, 여, 51세>

손님 없으면 낮에도 전화해 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일하지 않고 있구나~. 2003년, 2004년, 2002년, 이 3년 동안 감귤 값이 상당히 폭락했어. 그 때 마늘하고 당근, 야채 값은 상당히 좋았거든. 구좌읍 세화 쪽에 다방이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그 3년 동안 ○○에 있는 다방아가씨들이 구좌 쪽으로 다 이동했다고, 3년 동안 거주 했던 아가씨들이 갈 곳이 없다가, 3년 동안 손님이 없으니깐 문 닫아야지. 근데 최근 3년 동안 감귤 값이 상당히 좋았거든, 작년에 하우스 감귤 값도 엄청 벌었거든. <사례11, 남, 43세>

2002년부터 3년 동안 감귤 값이 하락하면서 피리마을의 유흥종사여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다가 2005년 이후 다시 감귤 값이 상승하자 피리마을로 다시 돌아왔다. 피리마을에서는 지역 남성이 바쁠 때가 유흥종사여성에게는 휴일이고 지역 남성이 한가할 때가 유흥종사여성에게는 ‘대목’인 셈이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의 피리마을의 풍경은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준다. 지역 여성들은 비오는 날이면 티켓구매를 위해 ‘피리마을’에 대거 몰려드는 지역 남성들을 ‘노루’에 비유하며 “우뜨르(윗마을) 노루들 내려왔다”고 표현한다. 피리마을의 단란주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례7>은 비오는 날만 되면 저

녁 7시부터 마을남성들이 ‘들이닥쳐’ 만원을 이루기 때문에 ‘파치’⁴³⁾아가씨도 ‘매진’된다고 하였다.

여기 제일 잘 하는 말, 비 오잖아요. 비 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산간 지방 머 H마을이니, D마을 산간지방 쪽에 있는 ‘웃뜨르’ 우리 제주도 말로 웃뜨르 노루들 내려왔다, 아이고 저 웃뜨르 노루들 내려왔져. 오늘 다방아가씨들 바빴져. 아예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사례 1, 여, 43세>

비올 때는 저녁에 완전 풀이거든요? 저녁 7시부터 완전 들이닥쳐요. 그니까 H마을이나 저 외곽지 D마을 쪽에 그 쪽에서 비 오면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낮에부터, 제가 또 갈비집도 서빙을 했는데, 갈비집도 보니까 작은 방에 보니까 비올 때는 다 다방의, 제가 단란주점에 있었으니까 아가씨들 얼굴은 다 알잖아요? 오면은 나는 서빙보는 사람이니까 모른 척해주지. 근데 밥을 먹든 멀 먹든 벌건 대낮에도 집에 안집 주인이 있는 데도 그럴더라고. 비오는 날에는 막말로 파치 아가씨들도 매진되고 없을 정도로. 손님이 단란주점에 7시부터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두 시 까지 세 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모 다방에 누구 불러라 하면은, 못 생긴 아가씨도 없는 거야 낮에부터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 중간 역할 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테이블 돌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도 술 취하지. 우리 역시 그 아가씨들이 오면은 편해요. 옆에 있어주니까 우리가 그만큼 술 덜 먹잖아. 아~ 비올 때가 우리는 죽고 주인은 좋지. <사례7, 여, 39세>

농촌 지역 남성들에게 티켓구매는 여가/놀이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 지역 남성이 티켓영업다방에 재산을 탕진하는 사례는 농어촌 지역 어디라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8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지역의 티켓영업다방이 여론에 자주 거론되었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농촌 지역 남성들의 여가/놀이문화의 부재를 문제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남성에게 허용되는 성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이

43) ‘깨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는 물건’을 이르는 말로 제주도에서는 못 생기고 흠이 나서 상품 가치가 없는 감귤을 일컫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못 생긴’ 사람을 감귤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농어촌 지역의 여가와 문화의 부재는 농어촌 지역의 소외와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남성의 집단적 티켓 구매 행위를 농촌 지역 남성의 소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이미 남성에게 허용적인 성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결국 티켓을 구매하는 남성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가/놀이문화의 부재가 남성들의 티켓구매행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남성들의 여가/놀이문화 자체가 티켓구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지역 남성의 삶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피리마을 남성의 농한기, 농번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 티켓영업방식은 농촌 지역 남성의 여가/놀이문화 뿐만 아니라 부부, 지역공동체의 관계 등의 삶의 맥락과 티켓영업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해준다.

피리마을을 비롯하여 제주 농촌 지역은 지역개발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전과 달리 노동의 영역에 남성들이 차지하는 범위가 커졌고 남성들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티켓구매라는 새로운 방식의 여가, 놀이 문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제주지역의 ‘노동’과 ‘시간’의 성별분리체계와 맞물려 ‘여가’의 의미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공적영역은 남성, 사적영역은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공사영역의 분리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성별분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육지지역’과는 달리 노동의 영역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제주지역의 공적 영역은 크게 의례와 노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례가 남성의 영역이라면 노동은 여성의 영역으로 제주여성들은 공사 영역 모두에서 노동을 해왔다(김효선, 2007:68). 이와 같은 공사 영역의 성별 분리 체계는 매우 공고하여 제주 지역의 남성들은 의례 이외에 할 일이 없더라도 여성들의 일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지역 비교를 위해 찾은 다른 농촌 마을에서 경험한 일이다. 이 마을은 해안가 마을로 어업이 발달한 곳으로 60대 부부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바닷가에서 미역이나 우미를 채취하는 일을 하고 남성은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한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일이 시간과 노력 면에서 과중하지만 물질은 남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들은 아내가 일이 끝날 즈음에 바닷가로 가서 해산물을 나르는 일만 하였다. 따라서 낮에는 딱히 할 일이 없는 남성들은 다방에서 소일을 보낸다고 하였다.

제주여성들의 강한 생활력과 노동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이러한 성별 분리 체계에 기인한 것이다.

제주여성들은 농사 일이 끝나면 ‘물질’을 하러갈 정도로 바쁘게 일하는 여성들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노동과 시간의 의미가 다르게 구성되며 ‘여가’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의 문제는 이러한 성별분리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남성이 여가와 놀이로써 티켓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어촌 지역의 티켓다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역 남성의 여가 문화의 부재로만 해석되기 보다는 지역의 성별분리체계와 지역 경제의 구조 등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이야기 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방종사여성의 여성성을 구매하는 지역 남성

제주지역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서로의 일을 함께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성별 분리 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성별 분리 체계가 공고하게 남아있다.⁴⁴⁾ 노동 중심의 공적 영역을 담당해 온 제주여성들에게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연애, 친교 등의 행위를 할 시간이나 심적 여유가 없었으며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다방종사여성 등 유흥종사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현장에서 성판매여성은 청소, 안마, 애교, 성적 농담을 받아주기와 같은 여성성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요구받는다(김주희, 2006:73). 피리마을의 유흥종사여성들은 남성의 나이 불문하고 ‘오빠’, 혹은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

44) “제주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남성중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혼인식, 명절, 제사, 상가, 축제, 마을잔치, 야유회 및 운동회, 소풍 등)에서 남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음식 달라, 소주 달라, 커피 달라’ 주문만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먹은 그릇도 개수대로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한번은 조천읍의 행사에서 밥을 먹고 식판을 닦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면서 제지하던 마을부녀회와 새마을 부녀회분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례등을 지나다가 낯선 풍경과 맛따뜨리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아저씨들이 그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물질하고 나오는 아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물질 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짚어지고 나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달구어진 갯바위를 잠수복차림으로 걸어옵니다. 얼른 달려가서 해산물이라도 받아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오성근, 2007).

하는데 이는 마을남성의 욕망과 결합하는 것이다. 피리마을 남성들은 티켓을 통하여 평소 부인에게 느껴보지 못한 ‘여성다움’을 경험하며 주민들은 이를 ‘중독’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아무리 밭에 가서 일하고 와서 옷이 작업복 차림이든 머든 그냥 돈만 갖고 가서 술 사주고 티켓 비주고 그러면은 그 애들은 어차피 다 돈이니까 그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돈으로 보이니까, 다 머 오빠, 오빠 심지어 아빠, 아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은 오늘 갔다 오면 중독이라 그게 다. 막 잘 해주 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남성들은 무뚝뚝해가지고 부드럽게 안 해 주다가 어디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드럽게 해주면 혹하는 거 똑같은 심정이라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 마씨. 더 웃찬해주고 잘해주고 어디 가면 다 잘해주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바지도 잡아주고 심지어는 거기도 잡아서, 오줌을 쌀 때도 받쳐준다는 거라. 그런 거를 우리 아는 동생들이 호프집 같은 데 가면은, 자기도 깜짝 놀랐다며 그 정도로 해 주는 데 어느 사람이 안 가겠냐 이거라. 집에 가면 노인네 취급이나 받고 그러는데...<사례1, 여, 43세>

이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놀이 문화, 아~ 머~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게이트볼하고 머하고, 돈만 있으면 10만 원만 있으면 그 날 하루는 세종대왕 되는 거야. 연산군 되는 거야. 발도 씻겨 주고, 내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아가씨들 정말 헌신적으로 한 대. 정말 회춘시킬 정도로 성관계까지도 아주 요새는 고객감동 마케팅한대. 정말 놀랐다니까 진짜, 내가 돈이 참 더러운 거내~ 이 아가씨들 결국은 돈 때매 하는 거구나, 우리말로 색골이여서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야 고객, 고객이 감동할 정도로 해야... <사례10, 남, 53세>

이처럼 마을남성들은 티켓 구매를 통하여 ‘연산군’, ‘세종대왕’이 되는 경험을 하고 한 번 가면 ‘중독’이 된다. 다방종사여성은 일상적으로 성별화된 몸으로 재현되고 여성성을 판매한다. 그래서 티켓을 나가서 도박관에서 남성 손님의 어깨를 주무르고 재떨이를 비워오는 등의 잔심부름 등의 일을 수행한다. 같은 맥락에서 피리마을에서 ‘화장실 갈 때 쫓아가서 바지를 잡아주고 심

지어 오줌 살 때 받쳐' 주거나 '발을 씻겨 주는' 행위는 이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남성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재떨이를 비우는 등의 행위는 일상적인 '여성의 역할'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오줌 쌀 때 받쳐주거나 발을 씻기는 행위는 다른 지역의 성매매 지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여성의 역할'이라 보기에 힘든 모습이다. <사례10>은 이러한 모습을 "돈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티켓영업을 통해 나타나는 마을남성의 욕망은 남성 지배적 행위의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 남성들에게 유흥종사여성은 지역 여성에게서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스러움'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아내와 성판매여성 간의 섹슈얼리티 위계에 균열을 내고 있다.

제주도 여자들이 여성스럽지 못한 게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투박스럽고 이렇게 생활력은 강한데 여자로서 애교스럽다든가 상냥스럽다거나 배려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들을 이야기 합니다. 공통적으로 다. 다방여자들을 왜 만나냐면 여성스러워서, 사실은 다방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이야 천성도, 육지부 여자들 그렇게 잘 할 수 있겠고, 천성이 아니어도 이 남자한테 한푼이라도 더 끌어내려고 하면 자연적으로...<사례10, 남, 53세>

아까 말했잖아요. 순진해서 그렇다고. 농촌사람들이 나긋나긋하고 여자들이 그런 걸 못 봤어요. 특히 제주도 남자들이. 지금은 육지고 어디고 머느리들이나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끼리만 지금 어르신들은, 육지에서 데려오거나 그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여자들이 투박해요.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내고 표현력이 강하잖아요. 제주도 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긋나긋한 것을 못 봤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다보니까 다방아가씨 앉혀놓고 얘기하다보면 나긋나긋하고 막 상냥하고 언강부리고 그런 것에 혹하는 거예요. <사례9, 남, 44세>

<사례9>의 말처럼 '뭇 모르는' 순진한 농촌남성에게 다방종사여성은 그 자체로 새로운 여성성을 가진 가치있는 여성들이다. 이처럼 마을남성들에게 마을여성은 생활력은 강하나 '투박스러워' 여성적 매력이 없는 반면 다방종사여성들은 나긋나긋한 서울 말씨에 애교가 많은 '여성다움'이라는 강점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애교’나 ‘나긋나긋한 말씨’ 등은 여성적 가치로써 정형화되어 있어 이를 갖지 못한 여성들은 비난받지만 이러한 잣대가 남성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V.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의 변화

현재 지역 주민들은 티켓영업다방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의 현상이 90년대에는 피리마을 주민들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였으나 지금은 소수의 특정 집단에나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로 사소화 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그러나 티켓영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부정적 측면을 개인화, 사소화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티켓영업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문제적이다.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 개발과 지역 발전 담론 하에서 티켓영업은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조직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유지의 리더에 의해 티켓영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자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특성 하에서 어떻게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이 지역 주민 간의 상부상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민의 협조 하에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A.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에 대한 욕망

제주지역은 지역개발 초기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상업적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특히, 피리마을은 감귤농업의 성장으로 외부 유입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입 농산물 개방과 농산물 가격의 변동 등 불안정한 농업 현실 속에서 제주도 주민들은 관광 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개발 과정에서 제주 주민들은 ‘주권 회복’을 위해 많은 저항 운동을 벌여왔다.⁴⁵⁾ 그러나 국가와 지방정부, 자본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속마음에는 개발 철학이 건재하며 지역주민들은 환경 보전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자신

45)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한국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면서 제주지역에도 주민운동의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88년 ‘탐동매립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반대’운동이 이루어졌으며 90년 대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자 제주 주민들은 ‘제주도 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여나갔고 반대운동은 91년 11월 양용찬 열사의 분신자살로 더욱 격렬해 졌다(이상철, 1996:97-104). 이러한 흐름은 2008년 현재 ‘해군기지반대운동’ 등 여러 주민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들이 개발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불만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조성윤, 2008:199). 그리고 제주도 전체 측면에서 관광 개발과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적인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불균등하게 일어나면서 지역별 격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진현영, 2007:2).⁴⁶⁾ 특히, 개발에서 소외를 경험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욕망이 더 크게 작용한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불안정한 농업 수익과 달리 식당 등 관광관련 업소가 호황을 누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각적인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상업 활동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오정준, 2003b:145). 이러한 시각은 피리마을의 (남성) 리더 중 한 사람인 사례 13의 시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연구자: 앞으로 피리마을의 미래는 어떨까요?

연구참여자: 앞으로 발전의 길은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이 하향세이기 때문에 ○○ 뿐만 아니라 주변 산간 마을도 빨리 농업을 그만두고 관광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해요.

관광 중심의 지역개발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성매매를 관광산업으로 묵인·조장해왔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발달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지역개발의 명목으로 시작된 관광개발 이후 내외국관광객이 유입되었고 특히 일본남성 위주의 단체관광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일본인은 ‘기생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았고 이에 따라 <표6>과 같이 ‘기생관광’을 목적으로 한 요정들이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에 세워졌으며 한 요정 당 250명에서 500명까지 수용할 정도의 규모였다. 한 업소의 경우 대표자가 ‘제주도관광협회장’과 ‘제주도정책자문위원’의 직위를 겸임하였다는 사실은 제주지역의 ‘기생관광’이 정치적인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신제주 지역은 관광위락지역으로 집중 개발되면서 이 시기에 고급 관광호텔과 숙박, 위락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

46) 이러한 현실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방향에도 반영되어 있다. 2004,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남지역의 인구유입정책 연구」; 2006,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정책방향과 과제」 등.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신제주는 지금도 제주지역에서 관광유흥지를 대표하는 곳이며 제주지역 중에서 성매매 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다.

<표12> 제주지역 요정 업소 별 면적 및 수용인원(1970~80년대) (단위: 명)

업소명	대표자 출신지	종업원수	수용인원	등록 년월일	비고
버드나무집	제주	160	280	1975.1.5	제주관광협회회장 제주도정책자문위원
청원각	서울	200	250	1980.2.10	
송림각	서울	200	500	1986.2.6	
탐라성	서울	150	300	1986.9.1	

자료: 제주여민회(1989:207 재구성)

제주도의 지역 개발이 얼마나 관광산업과 성산업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즈음에 드러났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은 ‘제주관광위기론’에 휩싸였다. ‘제주관광 위기론’은 제주관광협회의 일부 회원들과 지역구의원, 도의원이 합세한 ‘제주관광 살리기범도민위원회(이하 범도민위원회)’에 의해 현실화 되었고 범도민위원회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신제주 상권의 80%이상 매출이 감소했고 이대로 간다면 제주관광의 미래는 없다’⁴⁷⁾ 며 제주도를 성매매방지법 시행 예외지역인 ‘제주관광특구’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매매와 지역경제 침체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성매매방지법 이후 관광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한 ‘제주관광위기론’은 일부 관광업계 관련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제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⁴⁸⁾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을 계기

47) 『제주의 소리』, 2004.10.12. “성매매 관광 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 [김영란-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새로운 섬의 탄생?”.

48) “제주도는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제주지역의 경우 2214억원 내외의 GRDP가 감소하고 일본인 관광객은 연간 4만 2000명이 이탈, 754억원 내외의 관광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제민일보』, 2004. 10. 25. “성매매방지법 시행 따른 지역경제 대응 방안 모색” 김태환

로 제주관광이 성매매관광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매매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제주지역의 분위기가 드러났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언설로써 잠재하고 있던 지역 정서가 가시화된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생존권을 주장하는 성판매여성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저항이 극심했고 남성들의 반발도 컸지만 제주지역의 경우는 한 지역사회 전체의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 담론이 제주지역에서도 유흥지로서 가장 변화한 ‘신제주’ 지역이나 몇몇 주요 관광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관광의 위기가 곧 제주경제의 위기로 여겨지는 패러다임 하에서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도 자유롭지 않다.

특히, 피리마을은 관광객 등 외부남성이 아닌 마을남성의 의하여 티켓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관광객 등 외부사람들이 마을을 많이 찾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한다. 또한 이미 경제발전 전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티켓다방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특정 소수의 문제이거나 일부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 사소한 문제로 귀결된다. 반대로 지역경제발전은 주민 모두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이며 지역주민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으로 설정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티켓다방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티켓다방 등 상권 발달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을 경험한 주민들에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티켓다방도 괜찮다”는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욕망은 티켓다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묵인 혹은 긍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피리마을의 지역 유지 남성중의 한 사람은 “티켓다방이 피리마을의 특성화 산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역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티켓다방을 중심으로 한 유흥업의 발달로 인해 피리마을은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도시지역 못지않은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이다.

○○는 소비도시입니다. 농촌이 아니라 도시예요. 전국 리 단위 중 가장 큰 규모고 작년에 비해 50가구 정도가 늘어났어요. 하나의 리가 5개 동,

지사 밝혀”.

4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큰 곳이고 원룸, 아파트가 늘어서고 있고 방이 나오면 바로 나갑니다. 사우나도 3개, 노래방 16개, 다방 32개, 유흥종사여성 500명 정도고 ○○는 새벽 2시까지 상가가 영업을 합니다. 이런 곳이 전국 농촌지역에 또 어디가 있어요? <사례13, 남, 57세>

피리마을은 ‘민속마을’과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주요 관광지이다. 그리고 수려한 자연 환경에 따라 호텔과 골프장, 리조트가 입지해 있어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관광객 등 외지인들의 소비에 의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피리마을의 상권은 마을주민들의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심리는 성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용인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개발과정에서 관광지로 변모함에 따라 기존의 농업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상업 중심의 이익사회로 전환되면서 그 결과 마을이 상업 지역으로 변화하고 주민들의 소비성향이 증가하게 되었다(박현숙, 1992; 오정준, 2003). 기존의 생활공간이 관광지화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문화가 상품화되고 제주도민의 삶 자체가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하게 된 것이다. 피리마을 주민들은 지역개발을 통해 경제적 풍요를 지켜보면서 개발과 발전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고 있다. 때문에 피리마을 주민들에게 소비는 미덕이며 소비를 통해 상부상조하는 마을공동체의 문화가 되고 있다. <사례10>의 말처럼 피리마을의 개발 분위기가 제주도에서 가장 골프장이 많은 마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가 ○○에서 느끼는 갈등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런 개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골프장 많은 마을이 될 거예요. 골프장도 많고 P리조트, 리조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리조트잖아요? P리조트가 ○○건데. 그 다음에 리조트가 성공하니까 앞에 R관광호텔 지었는데, 제주도에 하나 밖에 없는 육성 호텔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니까요.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개방 분위기가. <사례10, 남, 53세>

B. 지역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관계

기존의 기지촌이나 집결지 등 특정 공간의 성매매에 주목한 연구들은 성매매로 인한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성매매의 이해 당사자가 성구매남성과 성판매여성, 업주 등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⁴⁹⁾ 그러나 피리마을의 독특함은 이러한 ‘동맹관계’가 상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범위를 넘어 전지역적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지역공동체의 상생의 차원에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티켓영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4>의 여성은 티켓영업의 장점은 상권이 산다는 것이고 이는 곧 지역경제가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장점은 무엇이냐면 상권이 살아난다는 거죠. 상권이 산다는 것은 경제가 산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씬으로 인해서 다방만 가고 단란주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만나려면 미용실을 가야 되고 옷 사야 되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 그러면서 상권이 사는 장점이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면도 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그런 거는 아마 P호텔이 있고 R리조트가 있어서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적인 거는 그런 거 같고. 장점은 상권이 산다는 게.”<사례4, 여, 46세>

1.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티켓영업: 업주의 토박이화

피리마을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티켓영업다방에 대하여 허용적인 인식이 왜 그런가를 물으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좁은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좁은지역’이라는 의미는 친족과 인맥으로 연결되는 관계적 측면과 인구가 적고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물리적 의미에서 마을주민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면(對面)사회의 성격에서의 의미이기도 하다.

49) 성매매가 특화된 지역에는 포주, 업주들의 횡포를 눈감아 주는 경찰이나 형식적인 단속 뒤에는 특정지역의 거대한 상권이 있다. 이들 지역의 업주나 포주는 조직폭력단과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형성된 상권과 더불어 거대한 이익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상권은 매춘여성들과 손님을 상대로 하는 시장, 세탁소, 약국, 미용실, 옷가게, 포장마차, 커피숍이나 카페, 호텔, 여관, 음식점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거대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원미혜, 1996:86).

피리마을은 산업화 과정에서 외부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었다. 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관광단지개발, 상권의 발달은 젊은 층과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피리마을의 티켓영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다수가 육지에서 온 외지 사람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 때문에 피리마을에 들어 왔다가 피리마을의 주민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 토박이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 상권에서 상권 업주들이 본토의 사람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 안 돼. 대부분 어디서 들어오냐면 전라도에서 들어와서 종사하고 한 20년,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지금은 토박이화 되다시피 정착해서 상권을 끌어가고 있다고. 정작 ○○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외지에서 올 때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하거나 땅을 매매하거나, 도로변의 값도 폭등하고 이렇게 하니깐 집세도 올라가고 그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부가 축적 되서 여유가 있어진 거지. ○○○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식당 하는 분들은 원래 토박이들이고, 이 쪽 사거리 상권은 아니야. 실제로 ○○사람들이 한다는 건, 식당 하나만 보더라도 많이 쳐줘야 한 삼십 퍼센트 봐줄까? 거기에 70퍼센트 중에서 35프로 정도는 ○○이외의 마을에서 내려와서 장사하는 거고 35프로 정도는 전라도나 이쪽에서 내려와서 가게를 운영하는 거고. <사례11, 남 43세>

○○은 서른다섯 개 (다방) 중에 지역 사람이 하는 게 두 개 뿐, 다 외지. 외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그 다방에 종사했던 아가씨들, 나중엔 나이 들어서 아니면 또 그냥 업주가 되어서 또 새끼 쳐서 다방 하나 만들고, 만들고 하다보니까 삼십 여개가 된 거라. 또 무슨 말이나 하면 ○○이 또 식당이 굉장히 많아. 소주방이 많아. 단란주점이 많고. 이게 이 아가씨들이 공급권이라. 이 아가씨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식당은 대부분이 다 지역사람들이야. 이 지역사람이 내가 마누라 아닌 다른 여자랑 밥을 먹어도 흥을 안 본다 이거라. <사례10, 남, 53세>

제주지역의 자연공동체적 관계망과 대면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피리마을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티켓영업 관련 업소의 업주나 유흥종사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업주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거

주하고 있어 마을의 토박이나 다름이 없고 다방종사여성 또한 장기 거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마을주민들은 이들을 같은 주민으로써 인정하고 함께 생활하는 데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아무래도 지역이 좁다 보니까 유흥업소 사장님들이 이웃이잖아요. 너무나 가까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마디로 자기 집에 일하는 종업원들 챙기면서 같이 어울리고. 예를 들면 같이 보면은, 같이 화투 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거 같아요. 제주시나 다른 지역처럼, 처음에는 우리도 좀 깨림직한 게 있어요. 그래도 같이 다니다 보면은 아 그런가 보다. 아 거기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아 왔구나 이런 정도지 거리를 두거나 그러는 거는...<사례 4, 여, 46세>

티켓영업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식당 등 티켓영업 관련 업소가 피리마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다방종사여성을 상대로 한 미용실, 의상실, 피부관리실, 식당 등이 먹이사슬처럼 티켓영업으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티켓영업이 사라지는 것은 실제로 피리마을의 상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는 곧 피리마을의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티켓영업으로 유지되는 지역 상권의 특성 상 자영업에 종사하는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며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근마을 사람들도 쉽게 티켓영업의 근절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2. 지역여성의 다방종사여성과의 구별 짓는 방식

일반적으로 성판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성판매여성의 일을 그만두기 어렵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반면 피리마을은 다방여성에 대한 낙인이 적고 돈벌이기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살기 괜찮은’ 곳이 되며 ‘낙인없음’은 다방여성이 다방 일을 지속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다른 지방 소도시의 다방연구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 이후에 업주와 다방여성의 고용 관계 변화와 근로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와 별도로 다방여성의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직업을 가진 주변 인으로써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김수미, 2006)하고 있었다. 그리고 십대 여성의 티켓다방 일에 대한 연구에서도 다방여성은 사회적인 시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창피하다”고 느끼며 낙인화된 여성에 대한 혐오를 경험(김주희, 2006)함을 보여주었다. 유흥종사여성이 사회적 시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피리마을처럼 마을 주민들이 다방여성을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고 다방여성이라는 낙인과 혐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다방여성은 다방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 분들은 자기가 그 유흥업소에 다닌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환경 때문인가 여하튼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분들은 그래요. <사례4, 여, 46세>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을여성들과 유흥종사여성 간의 구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유흥종사여성에 대한 비하적 시선과는 다를 뿐이다. 마을여성들의 경우 유흥종사여성들을 돈 벌기 위해 일하러 온 여성노동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나 피리마을의 유흥종사여성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다방뿐만 아니라 식당 등 일반 업소에서 일하기도 하는 여성들로 외형적으로도 마을여성들과 차이가 크지 않다. 마을여성에게 유흥종사여성은 남자를 상대로 일을 하는 그냥 옆집에 사는 아줌마이다. 심지어 남자를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을 한다며 ‘불쌍하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나는 나쁘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옆집에 사는 아줌마들이다. 그 아가씨들이 워낙 어린 아가씨도 아니고 40대, 50대가 많잖아요? 장사도 하고 그거 하던 아가씨가 나이 들면 치워가지고 식당도 하고 그렇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옆집의 아줌마 같이 이렇게 수다 떨어요. <사례3, 여, 49세>

요즘같이 어려우면 (시간비)만원 밖에 못 받아. 여관에 가서 같이 자면 그건 10만원. 근데 요즘은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대. 그거 벌기 위해서 엄청

고생해요. 남자들이 별짓을 다 하지. 그냥 자기 머 진짜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별 서비스를 다 해야 하고. 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쌍해. 그 삶이 너무 불쌍해. <사례1, 여, 43세>

마을여성과 유흥종사여성의 차이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별된다. <사례3>을 비롯한 마을여성들은 장기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이해할 수 없으며 성매매 일을 통해서 돈을 벌더라도 빨리 언젠가는 그만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언젠가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다. 특히, 40대 이상의 나이 많은 다방여성들은 결혼의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안정적인 삶’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처럼 피리마을 여성들에게 결혼은 권력으로 작용하여 유흥종사 여성과 구별 짓기는 효과를 발휘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고, 나이 40대, 50대 되는 다방여자들은 할 수 없지만은 단란주점 아이들은 20대잖아요? 해봐야 30대 초반 아이들. 그랬을 때는 이 지역에는 그렇게 젊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이가 들고. 그디 있으면은 나이든 사람, 아니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아가씨한테 가. 가지고 팁이다 뭐다 주고 하룻밤 잘려고 하고 그러면은 아가씨들이 거절을 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거절을 할까~ 하루 저녁 주고 나면, 돈을 1, 2만원 주는 것도 아닌데 한 20, 30만원 주는 데 그렇게 받고 그 일을 빨리 청산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면 될 건데,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기간 내에 남자든 뭐든 상대를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청산을 해버렸으면 하는 그 바람이에요.<사례3, 여, 49세>

우리 밥 먹으러 가 보면은 오늘은 만약에 어디 가 보면은 오늘은 이 사람 이랑 같이 있었는데 몇 시간 후에 다른 식당에 가 보면은 또 가서 앉아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몇 명 있지. 그러더라고. 저런 사람 참 돈 많이 벌고 참 좋겠다. 우리도 노래방도 시내 같은 데는 3만원, 노래방 도우미나 갈까 농담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솔직히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안 되고 하고 그러면은 농담이라도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어디 가서 일 년만 일하고 오면 돈 몇 천은 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지. 근데 머 처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안 그럴려고 자기가 챙피하게 안 살려고 그런 거지. (나는) 그런 사람들 하고도 틀리지. <사례1, 여, 43세>

<사례1>은 유흥종사여성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한 번 해 볼 까’하는 심정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유흥종사여성과 달리 자신에게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유흥종사여성과는 다르게 위치시킨다. 자식과 남편이 있는 사람으로써 유흥종사여성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된다. 이처럼 피리마을 여성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유흥종사여성에 대해 일하는 여성이라는 동질감을 느끼지만 가족이라는 경계를 두어 자신과 유흥종사여성을 구별해 낸다. 즉, 조강지처라는 권력으로 유흥종사여성과 거리를 두며 이들과 다르게 위치짓는 것이다.

3. 지역남성의 로비 창구로써 티켓영업과 다방종사여성의 조직화

농어촌 지역의 티켓영업다방의 주요 고객은 ‘지역유지’나 소를 키우거나 하우스를 하거나 정책 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읍면내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기관장들과 통하여 특정인에게 특별 대출을 받게 해 준다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기도 하며 선거 시기에는 선거 운동원으로 활약하기도 한다. ‘지역유지’는 대표적으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등을 말하며 각 기관의 직원들과 자주 어울리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방이 이용되었다(강준만 외, 2005:173). 피리마을은 70년대에 축산업이 매우 발달하여 산간마을의 남성들의 소 매매 장소로 다방이 활성화되었고 계속해서 감귤 등 환금작물로 이어져 마을남성의 놀이공간으로 보편화되었다. 마을남성들은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감귤 등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고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남성에게 다방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일은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유지들은 티켓영업다방의 주요 고객으로써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다방의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제주농촌지역은 토박이남성 중심의 마을로써 지역유지남성이 마을의 대소사를 이끌어가는 남성 중심의 마을이다. 제주지역은 마을내혼의 혼인경향이 강하여 마을남성들은 일을 하기 위해 바다나 일본 등지로 떠나지 않는 한 태

어난 곳을 떠나지 않았다. 이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잦은 인구이동이 이루어졌지만 제주지역은 타 지역의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유출 정도가 높지 않았다. 이는 상업적 농업 중심의 지역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남성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마을남성은 마을을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거나 마을을 떠나지 않은 반면 여성의 농업 종사 비율이 줄어들면서 여성인구의 유출이 일어났고 피리마을의 경우 8,90년대 여성의 공동화 현상을 보였다.

제주도의 친족체계는 부계혈연에만 얽매이지 않는 양계체계를 가지고 있어 부계혈연중심의 한국사회의 친족체계보다는 평등한 사회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주사회는 의례를 중시하여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였고 집안이나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성이었다. 특히 피리마을은 토박이남성, 지역유지남성 중심의 사회로 이들이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단체장을 하거나 지역유지를 지내는 것은 권력과 명예로 작용하며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과거 청년회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사례9>는 단체장의 이점을 ‘명예’로 표현하였다.

어찌됐건 어디가도 알아주죠. 어디가도 인정해주고, “어, 연청회장와서~”. 어쩐거나 읍면동에서 연청회장 했으면은 면장다음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어쩐거나 명예죠 명예. 돈을 쓰고 안 쓰고 떠나서 명예죠. <사례9, 남, 43세>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원인은 티켓구매에 앞장서서 생활화하고 있는 토박이남성과 지역유지남성 집단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토박이남성과 지역유지남성 집단은 다방종사여성의 ‘작은 부인’ 또는 애인화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을 특성화하고 있다. 피리마을의 지역유지인 <사례13>은 공적 모임이나 회의를 할 때, 점심시간에 모이면 같이 점심 먹고 저녁시간에 모이면 같이 저녁 먹고 2차로 노래방 가거나 술 마시러 가며 그 때에 티켓(시간)을 부른다고 하였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례13>은 다방종사여성을 작은부인(세컨드)로 둔 남성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다방종사여성을 작은부인(세컨드)로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남성으로써 자부심 높이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지역상권구조하고 선거문화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장 정도하면 사실은 큰 감투로 명예를 획득하는 거거든. 이 지역에서 만큼은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으로 보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부심이랄까 왜곡된 자부심이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다른 사람들은 세컨드 있는데 나는 세컨드 없이, 이게 정상인데 없는데 정상인데, 오히려 없는 사람이 바보 되는 형식이 된 거지. 우리 동네에서는...<사례 11, 남, 43세>

이처럼 다방종사여성이라도 여자가 많은 것은 마을남성에게 자부심으로 작용한다. 특히 토박이남성과 지역유지남성 집단에서는 일상생활화되어 있어 공식적인 회의나 모임에서도 항상 티켓을 부르거나 자신의 세컨드 여성과 동석한다. 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사례10>은 자신의 마을과 피리마을을 비교하며 기관장들이 공식 모임에서 티켓을 부르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티켓영업은 지역유지남성이나 마을남성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유지들끼리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기관장급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마을 내 여론을 형성하며 선거철에 선거운동원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티켓영업을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돈 많은’ 어르신과 공모하기도 하면서 마을의 자본과 권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근데 ○○(의) 상권을 유지하는 데 일등공신 마을들이 절반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 열 개 마을에서. D마을, E마을, H마을 여기가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A마을, B마을은 일부고. 씬씬이가 제일 큰 마을이 D마을하고 H마을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D마을 같은 경우에는 윗놀이 한 번 하더라도 천 만 원 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게 어떤 문화에서 시작되었느냐 그게 아까 축산 관련된 부분에서, 입지 조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D마을, H마을 쪽이 옛날에 축산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지역이고 큰돈을 만졌던 입장들이고 크게 써보기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 상권을 살리고 있다고, 실제로 ○○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웃동네라고 하는데, 웃동네 마을들 어르신들하고 교류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용하고 있는 거지. 같이 따라 다니고 꼬시고 불러내서 하고 선거철 되면 연관지어서 도와주십사하고 자기들의 잇속은 다 챙기고. <사례11, 남, 43세>

이처럼 피리마을의 권력 구조는 자본과 남성 권력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곳이 피리마을이다. 반면 피리마을 여성들은 단체에 가입하더라도 부녀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마을 공식 행사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마을의 환경을 미화하는 등 성별화되고 보조적인 일에 그치고 있다. 피리마을은 토박이 남성과 지역 유지 남성을 중심으로 권력화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 마을의 대소사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 특히 티켓영업 중심의 음주문화, 성문화, 놀이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고문화를 이끌어가는 집단 또한 마을 남성 집단이다. 티켓영업은 이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공생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자치단체 차원으로 중앙의 권력이 이양되면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관변 단체나 사교 모임 등이 빠른 속도로 구성되고 있다. 피리마을은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 단체와 모임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민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5개-10개 가량의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피리마을의 유흥종사 여성은 '피리마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자로서 이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이들을 조직, 관리하기 위하여 티켓영업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근데 다방아가씨들 또 그 젊은 사람들 또 이용하려고 왜냐면 무슨 선거다 하면은 워낙 다방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무시를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을 다 잘 먼가를 잘 심어둔 몇 사람을 고정적으로 심어줘야 선거철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우르르 몰리잖아. 타지방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머가 틀리고. <사례1, 여, 43세>

어쨌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는, 이런 음주 문화든지 성문화든지 놀이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는 사람들이고 특히 사람들 중에서도 문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어차피 주도층이라 예.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 거에 그 문화

를 바꾸려면 충분히 바꿀 수도 있다고 봐 예. 그런데 바꾸려고 안 해. 그 주도층들이 자기의 기득권들을, 남성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걸 바꾸려고 하지 안 해. <사례6, 여, 42세>

제주지역은 지역공동체를 단위로 결속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을 이끌어가는 지역 유지의 권한은 더욱 커지고 지역 주민들도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높이고자 한다. 때문에 지역 유지를 비롯한 마을 리더 집단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지역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지역 리더의 언행에 영향을 받게 되고 지역 리더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에 지역 리더들은 크게 일조를 해왔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이처럼 남성중심적인 마을의 권력 구조를 토대로 하여 발전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C. 소비를 통한 상부상조와 지역공동체의 변화

지역개발로 인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서 80년대에 관광산업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중심을 옮겨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의 산업 구조는 관광 산업이 비대하게 성장하면서 제주 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피리마을은 농어촌 마을이면서 관광지이기도 하다. 초기에 피리마을에 티켓영업이 도입된 것은 농업의 상업화에 따른 지역 남성의 경제력에 편승한 것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피리마을이 먹거리와 유흥문화가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티켓영업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마을남성의 공간인 다방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유입되면서 지역 주민의 저항을 예방할 수 있었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의 규모는 지역 남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거대한 규모와 티켓영업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티켓영업이 일상생활화되어 있어 쉽게 용인이 되고 있고 지역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관계망이 장점으로 발휘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의 제주사회는 친족을 기반으로 한 지연공동체로 제주도민에게 가족이나 친족만큼이나 마을공동체의 의미가 컸다. 이는 마을내혼을 선호하는 통혼권(通婚圈)의 영향이 크다. 한 마을 안에 양가 친족이 함께 기거함으로써 가족, 친족 구성원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혼인의

양상이 변화하여 마을내혼의 경향도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경향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마을 안에서 이루어졌던 통혼권의 범위가 이웃마을 혹은 제주도내로 확장된 경향이 있지만 섬 외부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물론 ‘육지사람’과의 혼인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혼인상대자로 첫째 제주도 사람이라는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 13사례 중 한 사례만 제외하고 모두 제주도민 그것도 이웃마을 사람과 혼인하였다는 사실은 실제 혼인상대로 가까운 지역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나마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마을내혼이 일반적이던 과거와 달리 통혼권의 범위 확대에 의해 친족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지역개발을 통한 산업화 과정에서 마을 공동 재산권의 붕괴되면서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와해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과거 지연공동체 하에서 마을공동목장과 공동어장 등 마을공동재산은 친족집단이 확장된 지역 집단에 준거를 두고 이용됨으로써 마을주민의 결속을 높이고 지연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하였다(김창민, 1992:104). 그러나 축산업 육성에 따른 중산간 개발은 기존의 마을공동목장 형태로 운영되었던 방식의 붕괴를 가져왔고 마을주민의 소유권이 시-군유지 등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거나 외부자본에 의해 잠식되었다.⁵⁰⁾ 이는 이후 외부 자본에 의한 골프장, 호텔 등의 개발로 이어져 국가와 외부 자본에 의한 생활공간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개발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는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를 통한 획기적 변환이라기보다는 전통사회의 속성과 산업화의 영향이 교차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 되었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측면이 혼재되어 있고 대면사회적 측면, 전산업사회적 요소 등이 남아있다. ‘알음알음’으로 일을 처리하고, 관혼상제 때 특이한 부조행위를 하고, ‘신구간’⁵¹⁾이란 이사법이 존재하고 제삿밥을 먹으러 가면 웬만한 사람을 ‘삼촌’이

50)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리, 동, 면, 읍 단위의 마을공동재산이 부인되었고 시, 군으로 귀속시켜 더 이상 무상으로 마을공동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임대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마을공동재산을 넘기는 등 정부에 의한 국유화 과정은 곧 개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이었다. 결과적으로 매각 과정에서 토지 가격의 상승은 토지 사용을 둘러싼 모든 권한이 남성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강성의, 1996:79-82).

51) 신구간(新舊間)은 제주도의 전통 풍습 중 하나로,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7~8일 동안 이어지는 이사 풍습이다. 이 시기에 이사를 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

라 부르는 ‘켄당’이 있다(이상철, 1996:77). 이러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혼재는 현실 세계에서 난관에 부딪치기도 한다. 피리마을주민들은 다양해진 마을공동체의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상 낮을 때라든지 좋은 경사가 있을 때에도 축의금이라든가 상조금 같은 경우 이중삼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가계적으로 큰 부담이죠.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모임이기만 해도 해야 되고 그 동생도 알고 있으면 그 동생한테도 해야 하고 또 아버지와 일이 있으면 (해야 하고)... <사례4, 여, 46세>

모임이 많아서 부주 문제가 심각해. 모임이 많은 건 살아가는 데 나쁘지 않은 데 부주가 너무 부담되지. 제주도의 겹부주가 너무나 문제야. 육지처럼 겹부주가 사라져야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모임이, 라이온스 클럽,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7개가 있고 단체장을 하려면 청년회장도 체육대회 한 번 하면 200만원 정도 내야하고 라이온스 클럽 등과 같은 단체장을 하려면 2,3천 만 원이 드니까.<사례12, 남, 57세>

제주도에서는 결혼식이나 상이 낮을 때 집안 전체에 부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집안에 아는 사람이 여럿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부주를 하며 이를 ‘겹부조’라고 한다. 이처럼 제주도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산업사회의 특성보다는 대면사회의 속성이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는 그 이유는 도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통합의 원리가 산업화 이전의 제주도에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주도에서도 의미있게 작용(유철인, 1992:45)하고 있고, 육지보다 강력했던 지역공동체의 전통, 외부가 주체가 되고 도민들은 소외된 개발, 다수의 도민들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외지대자본이 관광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도시와 농촌

장하는 신들이 임무교대를 위해 하늘로 올라간다는 속설이 전해져 예부터 제주에서는 이 기간에 집을 고치거나 이사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약 5000여명에서 만 명 가량이 이사를 하여 도민 중 약 15%가 이사를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누그러진 추세이다(DAUM 사전).

간의 분화가 미진한 사회공간구조, 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산업화 과정 등에 있다. 즉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기제로서 전통적 요소들이 활용된 것이다(이상철, 1996:77).

피리마을은 통혼권의 확대와 상권 발달에 의한 외부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마을공동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대면사회의 성격을 띠면서도 주민들 간의 익명성이 증가하기도 하다. 그리고 지연공동체의 강한 전통이 남아 있지만 그 바탕에는 혈연, 지연, 학연에 그치지 않고 취미, 직업 등에 따른 다양한 집단이 형성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성격도 바뀌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친목적 성격의 모임에서 경제적, 행정적, 여가 활동적 성격의 모임으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고 수단적 관계의 수준의 조직 활동이 강조(신행철, 1994:116)되고 있는 것이다.⁵²⁾ 특히 지방자치체의 실시 이후에는 기존의 혈연, 지연, 학연에 기반 한 공동체의 내용과 규모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계난(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라는 요소에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흐름이면 이해하는데 ○○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총동문도 어서났거든요? 선거를 통하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동문 중에 군수 나오젠 하면 이쪽의 세력을 잡아야 해!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동문들이 형성이 되고 동문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사가 존재하고 기수를 조직을 만들어 가고 이런 거예요. 선거가 만든 거예요. 선거가. 농협은 농협 따로. 각 선거 별로, 어촌계면 어촌계 따로 모임들도 많고. 그래야 몇 개의 모임을 관리하는 그 양반들이 있잖아요? 발 빠르게 그 모임을 통해서 정보랑 흐름이랑 이런 것을 전달하는 구조,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 <사례12, 남, 40세>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는 전통적으로 노동공동체로써의 성격이 컸다. 제주도의 마을공동체가 지연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노동력의 동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가 컸으며 전통적으로 제주지역만의 품앗이 형태인 수눌음⁵³⁾이 발달하였다. 이처럼 노동공동체의 성격이 컸던 이유는 척박한 자

52) 신행철(1994:114-117)은 85년과 92년 각각 제주농촌지역 8곳의 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써의 성격과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마을 조직 면에 있어서 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써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회 조직 활동권으로써의 마을공동생활권은 점차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공동체의 성격이 강화되는 변화를 맞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제주 주민의 생존 전략이었다. 이처럼 제주마을의 노동공동체의 성격이 컸던 반면 놀이문화는 발달하지 못하였다. 대신 의례가 발달하여 마을포제나 제사, 혼례⁵⁴⁾ 등 마을 행사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이 놀이었다.

지금의 피리마을 공동체는 경제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 마을구성원 내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연공동체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는데 과거 마을공동체가 노동, 마을의례 등에 함께 상부상조하는 협동체제였다면 지금은 공동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소비, 여가를 위한 공동체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러한 원인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관광유흥중심의 지역 개발과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욕망, 소비문화의 확산 그리고 지자체 이후의 지역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마을리더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지닌 마을공동체는 오늘날 국가나 제주도의 주도 없이도 마을주민 스스로 티켓영업의 활성화에 참여, 일조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 정신이 티켓영업에 대한 소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네 체육대회 행사하잖아요? 동네 체육대회 공동체의 근원은 운동장이 아니에요. 뒷풀이에 있는, 뒷풀이는 뭐냐하면 단란주점이예요. 이게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마을에 있어서의 상호부조나 상호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공동체가 소비 공동체로 바뀐 지가 한 20여년 가까이 되가는 게 아닌가? <사례12, 남, 40세>

이러한 공동체의 변화 흐름을 통해서 피리마을을 비롯하여 제주지역의 산

-
- 53) 제주도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의 품앗이. 수눌음이란 “수눌어간다”는 뜻이 명사화된 말이며, 함께 품을 교환한다는 의미이다. 보통은 농사일을 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일하는 협부조직(協部組織)을 구성하고 있다. 좌목(座目)과 내구가 정해져 있는 계(契)나 접이 아니어도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집단이 형성되어 순번을 정하여 돕는다. 대개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이을 때, 농번기에 김을 땔 때, 산에서 큰 나무를 끌어내릴 때, 방아돌을 굴릴 때, 밭을 밟아 줄 때, 마을길을 닦을 때와 같이 일시적인 공동의 역사나 농사일에 힘을 합하여 협조하는 모든 것을 수눌음이라 부른다. <출처:브르태니카>
- 54) 제주지역은 의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의례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이루어지는 편이다. 이는 의례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장이 마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예로 제주도의 혼인은 보통 3일 동안 진행된다. 제주도의 혼인은 의례에 대한 의식보다는 ‘잔치’의 관점이 강하다. 혼인전날 가문잔치, 혼인당일 잔치, 혼인 후 사돈잔치로 구성되며 양가에서 모두 각각 진행된다. 혼인은 한 집안의 행사이면서 동시에 마을 전체 공동체적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동네사람들이 품앗이의 교환현상이 나타난다(김혜숙, 1999a:219-220).

업화는 문화적 측면은 제쳐놓은 채 경제적인 발전에만 치중한 불균등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적 토양은 비곤한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관련된 소비문화의 방향으로 활성화 된 것이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티켓 영업이다. 이로 인해 피리마을은 성인남성의 유흥을 위한 공간으로, 노동중심의 마을공동체에서 소비, 경제공동체로 구조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서 아이와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다. 대부분 피리마을의 토박이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이주한 마을여성들은 남편과 시집의 삶의 패턴에 맞춰서 살아간다. <사례 2>는 남편들의 티켓구매를 일상화하는 문화 속에서 아내들의 관계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 유흥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남편들끼리 그러다보니까 여자들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영화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있는 것도, 이제야 생겼지만, 그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멀게 모임 하면 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계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예요. 물론 어디나 다 그러겠지만, 그래서 가다보면 다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는 단란주점 같은데 가고 50대, 60대는 다방으로 가고 여자들은 노래방 가고 모임하면 갈비 집에서 그게 관행. 관행. 여자들 모임에도 갈비 집 가서 노래방 그 다음에 단란주점 그거는 의례히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되는거.<사례2, 여, 51세>

일단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애. 여가 문화가 진짜 극장 하나 없지. 여가문화가 하나도 없어. 애들이 갈 곳도 없고. 우리가 갈 곳도 없고 심지어 아줌마 모임 할 때도 보통 단란주점은 가예. 같이들 가고 그러는데 아마 엄마들도 이렇게 남편들 따라 모임하면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 단란주점이 이런 데구나’ 아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여가 문화가 없어. 여가 문화도 없고. 글썸. 술 먹으면 다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허용적인 분위기도 있고. 일상화되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대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동네에 살지냐. 진짜 살기 싫다 이해가 안가다가 몇 년 지나니까 나도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라 ‘아, 그렇구나 그런 가보다 그렇게 살아가나보다’ 점점. <사례6, 여, 42세>

2007년에 실시한 제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542명 대상)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는 질문에 23.2%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 마련’, 19.8%가 ‘남녀가 평등하고 존중하는 농촌만들기’, 18.1%가 ‘건강관리, 무료검진 확대’, 7.2%가 ‘교육기회의 확대’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남녀가 평등하고 존중하는 농촌만들기 사업’, 3,40대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 마련’, 50대 이상이 ‘건강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희, 2007:). 많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이 문화생활과 남녀평등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피리마을 뿐만 아니라 제주 농촌 지역 여성의 현실을 말해준다. 특히 피리마을의 경우 문화와 여가를 모임을 통하여 해소 하며 모임의 내용들은 성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VI. 결론

이상에서 제주 피리마을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과 지역 주민의 경험을 통하여 성매매 지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피리마을이 성산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피리마을의 성산업 구조와 티켓영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경험에 주목하여 출발하였으나 기존의 성매매에 관한 연구로는 피리마을의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관한 연구들은 성판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 민족, 성산업의 착취구조, 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각각 이루어졌지만 지역주민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논의들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방식과 이와 관련된 문화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지역개발과정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의 맥락에서 지역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먼저 피리마을의 성산업 지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리마을은 티켓영업을 통한 성산업 중심의 상권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성이 있으며 관광개발과 성산업이 발달하여 농촌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지가(地價)를 형성하고 있다. 피리마을의 다방종사여성의 고용, 영업방식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데, 차 배달 없는 노골적인 ‘아가씨 장사’와 다방종사여성의 프리랜서 영업이 눈에 띄며 지역 남성은 다방종사여성을 ‘족은각시(작은부인)’로 호명하며 장기적, 독점적 관계에서 단골장사를 선호한다. 다방종사여성들은 대다수가 중장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피리마을을 삶의 ‘중착지’로 여기는 여성들로, 피리마을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인식은 다방종사여성들이 피리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지역 주민들은 다방종사여성의 일을 일로써 인식하고 다방종사여성에 대한 비하나 낙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방종사여성은 마을 주민화되는 경향이 있다.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이성애적 연애 관계와 구분이 어렵고 지역 남성의 ‘외도’와 가족해체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티켓영업은 성매매로 이어지거나 가족해체의 원인이 될 경우 문제적인 반면 티켓영업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경향이 강하다.

지역 남성의 티켓구매행위는 제주지역의 1차, 3차 산업 중심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성별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제주지역의 성별분리체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피리마을은 지역개발을 통하여 상업적 농업의 전환과 관광 단지로 개발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이전과 달리 지역 남성의 경제력이 높아졌으나 여성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하여 지역 여성들은 가족노동에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피리마을은 축산업과 감귤 등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인해 농산물 출하시기에 고액의 현금이 유통되는 지역의 경제 구조와 맞물려 지역 남성의 티켓구매 등 유흥소비가 가능해 졌다. 그리고 노동과 시간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제주지역의 성별분리체계에 따라 남성들의 여가/놀이문화로써 티켓구매가 가능하고 있고 지역 남성들은 티켓을 통해 다방종사여성의 여성성을 구매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관광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개발은 제주 지역의 유흥 성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지역 개발의 과정은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주 지역의 관광개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에 의해 ‘기생관광’을 시작으로 관광유흥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다. 오늘날 지역 경제가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에 포섭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서 각 단위의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리마을의 경우 티켓영업이 지역 경제의 큰 축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티켓영업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식이 강하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업주들이 토박이 화되고 다방종사여성들이 주민화되면서 티켓영업은 지역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지역 남성들은 자신의 권력 재생산을 위해 티켓영업을 활용하고 다방종사여성성을 조직하고 있다. 지역 여성들은 결혼을 통하여 다방종사여성성과 자신을 구별짓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공간에서 다방종사여성공존이 가능해진다. 특히,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특성 상 지역 주민 간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소비가 미덕으로 발휘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는 소비를 통한 경제공동체로 변화하면서 성인 남성을 위한 유흥 공간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피리마을의 티켓영업 등 성매매의 지형은 개별적인 부분,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의 상호 관계 하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문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1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

조와 남성 중심의 친족 공동체로 특징지을 수 있는 피리마을은 과거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에서 관광, 성산업 중심의 ‘소비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피리마을은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서 티켓 영업에 대하여 공론화하는 계기가 주어졌으나 티켓영업다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티켓영업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문제적이지만 티켓영업 자체는 문제시하지 않는, 즉 티켓과 성매매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인식은 티켓영업과 성매매/가족해체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이 실제적으로 확고히 구분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남성과 관광객 등 외부남성, 나이 많은 다방종사 여성과 젊은 단란주점 여성을 이분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시 말해 관광객 등 외부인이 성매매를 하는 것인지 지역 남성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티켓영업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성매매는 지역공동체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이분법적 인식은 지역주민들의 티켓영업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지로서 유흥성산업에 대한 수용과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망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티켓영업도 괜찮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티켓영업 등 상권의 수요가 이루어질길 기대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티켓영업의 주 수요층은 지역 내부 남성들이며 이들에 의해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은 특화 산업화되어 있다.

오늘날 피리마을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티켓영업 등 성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유지가 앞장서서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다. 때문에 지금의 피리마을의 티켓영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가 주도의 지역개발과 외부 자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판의 방향을 내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실에서 미미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저항과 변화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발굴해 냄으로써 지금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지역개발과 발전에 대한 욕망을 멈추고 공론의 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논의의 장들이 이루어질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도시 지역과 성관매여성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성매

매 관련 연구들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농어촌 지역과 지역 주민의 경험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성매매 연구와 지역 연구의 접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 접근으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성매매 지형과 각 사회적 조건 간의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희, 2007, 「제주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조사」, 제주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강성의, 1994, 「지역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에 관한 일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준만, 2008, 『지방은 식민지다』, 개마고원.
- 강준만·오두진, 2005,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커피와 다방의 사회사』, 인물과 사상사.
- 고관범, 2005,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입지 조건에서 본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정갑희, 2005,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 이론」 제12호.
- 김선화, 2006, 「성관매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성매매의 성별정치학-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성적 침해와 빈곤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례 외, 2001, “제주 4·3의 경험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34-1,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수미, 2006, 「성매매방지법 이후 지방 소도시 다방여성의 노동과정과 자기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실, 2004, “지구화 시대 근대의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변화하는 여성문화 움직이는 지구촌』, 푸른사상.
- _____, 2006, “지구화 시대 한국 사회 성문화와 성 연구 방법”,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 김윤희, 2006, 「인천 송의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연구: 성매매방지법과 시범사업에 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희, 2006, 「성산업 공간인 티켓영업다방 내 십대 여성의 ‘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명, 1996, “공간, 육체 그리고 성: 한 농촌 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9-2,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진영, 1995,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제주사회론」, 서울: 한울
- 김창민, 1992, “범주로서의 친족: 제주도의 켄당”, 「한국문화인류학」 제24집.

- _____, 1995,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서울: 집문당.
- 김항원, 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김혜숙, 1993, 「제주도 가정의 혼인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8,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여성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 _____, 1999a,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9b, “한국 가족/친족 연구의 쟁점: 도시 중산층과 제주도의 가족/친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1집 1호.
- 김효선, 2003, “성폭력, 성별 정치가 남성간의 정치로- 제주도 도지사 성추행 사건”, 『성폭력을 다시 쓰다』, 한울.
- _____, 2007, “제주사회의 가부장제 드러내기”,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개인의 일상경험을 중심으로」 자료집, 제주여성회.
- 권귀숙, 1998,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3, “제주도 이혼의 구조적 원인 분석”, 「가정법률상담 15년」, 제주여성회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 다시함께센터, 2006,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산업형 성매매 실태조사와 행정 규제를 통한 성매매산업 축소방안 모색」, 성매매피해여성 자활 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 다이내믹제주, 2004, “‘富農’의 꿈을 키우는 옥토망월 ○○리”, 제주도정신문.
- 대구여성회, 2003, 「이중성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대구지역 남성 성문화 조사를 중심으로」, 대구여성회.
- 막달레나의 집, 2002, 『늑대를 타고 달리는 용감한 여성들』, 삼인.
- _____, 2004, 「성매매로부터의 탈주, 그리고 전업」, 막달레나의 집.
- 문은미, 2000, “노동자권으로써의 섹슈얼리티 연구: 이십대 행사도우미를 중심으로”, 「여/성이론」 3호.
- 민가영, 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 박이은실, 2007, “섹슈얼리티의 위계와 낙인의 문제 - 성(별)전환인들의 성노동에 대하여”, 『성·노·동』, 여이연.

- 박정미, 2007, 「제주도 지역 격차에 대한 연구 - 인구와 사업체 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숙, 1992, “제주민속마을의 관광현황”, 「제주도연구」 제9집. 제주도연구.
- 변화순 외, 1998, 「산업형 매매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서울여성의 전화, 2003, 「성매매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 변화를 위한 간담회- 영등포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여성의 전화.
- 성윤애, 2000, 「십대 가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재현 과정에 관한 여성학적 연구 - 다방 여종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동원, 2005, 「성구매 행위와 남성 성문화」,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행철, 1989, 『제주 농촌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일지사.
- _____, 1994, “제주 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서의 성격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제4집, 한국지역사회학회.
- 안미정, 1997,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왕성옥, 2007, 「한국경제개발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의 노동현장과 성산업 현장간의 배치과정에 대한 고찰 - 1960-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엄혜진, 2006, 「성매매 담론의 비판적 고찰 - 1980년 ‘인신매매’ 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염미경, 2007, “성인지적 지역혁신발전의 가능성: 제주도의 ‘신 어촌운동’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3권 2호.
- 여성부, 2002,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 조사」, 여성부.
- _____, 2007,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 오성근, 2007, “남성의 의식 변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개인의 일상경험을 중심으로」 자료집, 제주여민회.
- 오성찬, 1987, 『제주의 마을』, 반석.
- 오정준, 2003a,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제주도 생태관광지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3b, “제주도 지역개발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37권 2호.
- 우에노 치즈코, 199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 유철인, 1984,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제1집.
- _____, 1992, “제주사람들의 사회와 섬에 대한 관념”, 「제주도연구」 제9집.
- _____, 1996, “지역연구와 제주도: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제13집.
- 윤택립, 1995, “지방 여성 역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사 연구”, 「한국여성학」 제11집, 한국여성학회.
- _____, 1994, “기억에서 역사로 -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한국문화인류학회.
- _____, 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젠더: 여성주의 문화기술지(feminist ethnography)의 정립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제18권 2호.
- 윤형숙, 1994, “호남지역의 여성연구-개관과 제언”,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이기석, 2002, “청소년의 성 매수와 티켓다방”,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방안 토론회」 자료집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기욱, 2002, 『제주 농촌경제의 변화』, 집문당.
- 이나영, 2007, “기지촌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제23권 4호.
- 이상철, 1995a,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제주사회론」, 서울: 한울
- _____, 1995b, “제주개발정책과 도민태도의 변화”, 「제주도연구」, 제12집.
- _____, 1996,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동과 전망”, 「제주리뷰」 Vol.-No2.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 이재경, 2003, 『가족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문화.
- 이정주, 1999,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창기, 1997, “19세기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 1897년 덕수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14집.
- _____, 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사.
- 이효희, 1998,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유흥업소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숙, 1989, “○○○지역, 민속촌 관광객 발길 따라 치솟는 땅값”, 「월간 제주인」, 8월호.

- 일레인 H. 김, 2001, “남성들의 이야기”, 『위험한 여성』, 삼인.
- 원미혜, 1996,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99,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 _____, 2005,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성판매여성의 ‘인권’탐색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 장필화·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 8집, 한국여성연구소.
- 전경수·한상복, 1996,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도연구 제13집, 제주도연구.
- 정영태, 2005,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 제주발전연구원 구원.
- _____, 2006,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정찬숙, 1997, 「제주도 관광자원의 공간분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성윤, 2008, “제주개발과정의 국가논리와 주민의 삶”,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2008 제주인권회의 자료집」
- 조순경, 1989, “여성노동과 성적 통제”, 「한국여성학」, 5호, 한국여성학회.
- 조순경 엮음, 2000,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옥라, 1996, “여성 농민의 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9-2, 한국문화인류학회.
- 조은 외, 2002, 『성 해방과 성 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혜정,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문학과 지성사.
- 진경복, 2005, 「제주지역 대학생의 결혼의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진관훈, 2004,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도서출판 각.
- 진현영, 2007, 「제주시 신시가지의 공간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연동·노형 신시가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제주대학 YWCA, 1989, “(기획들/스스로 자유롭고자 하는 자는 싸워야 한다)매춘 관광에 대하여”, 「햇귀」 제 4호. 제주대학교 여학생회.
- 제주도, 1993, 『제주도지』, 제2권, 제주도.
- _____, 2006, 『제주도지-산업경제』, 제 4편, 제주도.

- 제주발전연구원, 2004,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남지역의 인구유입정책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_____, 2008,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여민회, 1989, “제주개발과 기생관광”, 「제주사회연구」 창간호, 제주사회연구소.
- _____, 2007,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 개인의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제주여민회.
-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현장상담센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블턱’, 2004, 「제주지역 성매매 실태와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제주여민회 성매매현장상담센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블턱’
- 제주여민회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2003, 「가정법률상담 15년」
-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2007,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성매매업소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 세미나」,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도서출판 각.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a, 「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 조사 연구」
- _____, 2002b, 「청소년교용 티켓다방 근절방안 토론회」
- 캐서린 문, 2002, 『동맹 속의 섹스』, 삼인.
- 통계청, 2006, 「2005년 혼인 · 이혼 통계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 제주통계사무소, 2007, 「2006 제주 이혼통계 결과 보도자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9, 『기생관광-전국 4개 지역실태조사 보고서』, 가톨릭출판사.
- 한국염, 2004, 「한국의 이주의 여성화 실태와 그 과제」,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워크숍 자료집,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 한국여성학회·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제주여성의 삶과 가족」, 지역여성학술대회자료집, 한국여성학회.
- 한석지, 2004, 「한국의 지방정치와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정원, 1986, 「전통적 여성역할 규범에 대한 제주도 여성들의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현혜경, 1999, 「제주 농촌마을의 기제사의례 변화」,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성철, 2007,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 후지메 유키, 2004, 『성의 역사학』, 삼인.
- Berry, Kathleen,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정금나 · 김은정 역, 2002,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 Hochschild, Arlie Russell, 2003,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Notes from Home and W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 Josephine, 2000, "Self Empowerment and 'Professionalism': Conversation with Tiwanese Sex Workers",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1 No. 2, Routledge.
- Milkman, Ruth, 1987, *Gender at work : the dynamics of job segregation by sex during World War II*,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전방지 · 정영애 역, 2001, 『젠더와 노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Nickie Roberts, 1992, *Whores in History : Prostitution in Western Society*, London : HarperCollinsPublishers (김지혜 역, 2004, 『역사 속의 매춘부들』, 책세상)
- Rubin, Gayle, 1975, "The Traffic of Women: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x", *Toward an Anthropology of Women*, Rayna Reiter(ed.), NewYork: Monthly Review Press.
- _____, 1984,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Pleasure &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London &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ABSTRACT

**Prostitution Terrain at Jeju's Rural Area in the local Context
- through the experience of Inhabitants and Female Teahouses Workers
of 'Piri' Village in the Course of Community Development**

Kang, Kyung Sook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selects Piri Village where sexual industry is 'special-industrialized' with ticket-selling teahouses, and intends to analyze the prostitution terrain at Jeju's rural area in the local context. Particularly, this study examines how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of the community, influenced by the community development, would construct a sexual industry-orientated village by investigating the experience of inhabitants and the Female Teahouses Workers.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on prostitutes' experience, more specifically, in terms of their country and ethnicity, the exploitative structure of sexual industry, and the relation with male client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experience of inhabitants, local residents. Thus, previous findings are insufficient to explain the ticket sales method in Piri Village and relevant cultural phenomena. This study accordingl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he female prostitutes of ticket-selling teahouses in the context of economic and sociocultural changes for the period of community 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is the survey to inhabitants and the participant observation during the field work.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feature of sexual industry geomorphology in Piri Village is inspected. This village is characterized, first, by the coexistence of residents' general living space and the commercial central area of sexual industry, focusing on ticket sales, and, second, by the exceptionally high land prices. ticket-selling teahouses in this village take a different employment and business method from other regions, which is explicit sexual business without coffee delivery service, freelance female teahouses workers, and the long-term exclusive relation between female teahouses workers and clients (male residents call the female teahouses workers a 'secondary wife'). The female teahouses workers's properties are also different; most female teahouses workers are above the middle age and consider Piri Village as a terminus. Because community inhabitants regard the female teahouses workers as a fair work, and do hardly depreciate or stigmatize, female teahouses workers have a tendency to become local residents. Ticket sales are not so different from the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 and is likely to be linked to males' 'cheating' or the family dissolution. If it happens, ticket sales can be problematic for inhabitants but, in other cases, the ticket-selling behavior itself tends to be accepted by the village.

Second,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first, the sexualized change of economic conditions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he first- and the third-industry oriented community, and, second, the ticket purchasing behavior of male residents in the context of a sexually separated system in Jeju. Piri Village was transformed to a complex for commercial agriculture and tourism. Due to that, males' economic power has been improved, on the other hand, the value of female labor has decreased, letting females depend on domestic work. Because this village commercially specializes in livestock and agricultural industry such as citrus fruits, the period to ship products is the time for enormous amount of cash flows in the community. Thus, at that time, inhabitants are capable of buying tickets for entertainment. Along with the economic condition like this, the system, sexually discriminating the labor type and time, has been established in Jeju, which allows local male residents

to purchase the ticket and to enjoy the femininity of female teahouses workers.

Third, the tourism-oriented community development since 1980's has fostered sexual industry in Jeju, which has led to the change of local communities. By the collus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prostitution and relevant entertainment business have been promoted as a part of the Jeju tourism policy. Recently, as local economy is subsumed within the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and as competitive relations are built among local governments, each community is making efforts to activate local economy. In the case of Piri Village, ticket sales function as the core of the community economy and, thus, inhabitants have a receptive attitude to ticket sale. Since pimps and female teahouses workers are now natives and residents, ticket sales are directly relevant to inhabitants' living as well. Local male residents organize female teahouses workers and utilize ticket sales to reproduce their power, local female residents use the marriage as a method to differentiate them with female teahouses workers and, ironically, to coexist. Especially, the local community, as a small territorial society, promotes consumption, enforces it each other, is transferred to an economic community with common financial interests, and, finally, becomes structured entertainment space for adult males only.

The present study has methodological contribution because it extends a research boundary. Previous studies mainly dealt with prostitutes' experience or urban areas of previous studies, whereas this study focuses on the suburban residents and rural areas, which is the mixture of prostitution research and local research.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is no detailed analysis due to the macro perspective applied. Thus, following research should contain more various analyses on the prostitution terrain and each social condition. Hopefully, future research on the prostitution will be activated in more various fields.